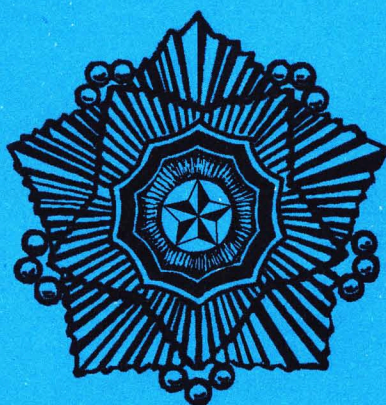


조선문학



1

주제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1호

(루계 제807호)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고 당의 현명한 정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김정은

차 례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도는 약동하는 조선의 힘이다	
축원(시)	정두국(4)
태양성지에서 부르는 노래(시)	전승일(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조국을 떠나시던 그날에(편지)	한원희(6)
우리의 새해(시)	문동식(8)
령장의 담력(시)	엄정호(9)
인민이 따르는 김정은동지(가사)	문기창(9)
단편소설 두단령감	동의희(10)
소원	탁숙본(26)
주체문학의 대강	(18)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론설)	안성(22)
1월에 부르는 노래	박성일(38)
대동강기슭에서	정동찬(7)
청산리!	위명철(36)
시 원수님의 리상	변희철(37)
눈내리는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리성애(37)
태양의 별들이 사는 집	김형준(39)
백두의 폭풍(가사)	최주원(39)
☆ 새해결의 ☆	
2 명작폭포를 쏟아내겠다	박래수(19)
0 자랑찬 열매의 해로!	황성하(19)
1 힘껏 달리자	사영철(20)
5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평론을!	박춘택(21)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단 편 소 설	감 상 문	리 희 찬(44)
	돌배향기	김 성 희(59)
수	터발에 대한 생각	궁 광 철(55)
철	문 두드리는 소리	리 경 명(75)

◇ 평 론 ◇

사과바다에서 끝없이 파도쳐오는 서정의 격랑	권 선 철(40)
강산에 메아리치는 조국수호전의 노래(단평)	최 언 경(72)

~~~~~ 시 ~~~~~

10월로 가자	김 충 기(52)
삼지연의 맑은 물 외 2편	조 광 원(53)
추억의 등판에서	송 명 근(43)
더 높이 내려치자 조선속도로(가사)	리 권(54)
강선의 마음	김 학 루(57)
포구의 밤에	함 영 주(57)
나의 소원	리 명 학(58)
아이들아!	원 영 옥(71)
눈내리는 포전에서	김 정 삼(74)
경기장밖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류 명 호(77)
하늘로 날아간 닭알(우화)	김 성 루(78)
조선봉건왕조시기의 《10악》(자료)	전 금 성(79)

축원

정 두 국

새해여
너는 무엇을 안고왔느냐
나래쳐 퍼덕이는 희망이나
봄날의 환희로운 기쁨이나
행복의 모든것을 약속하며
부푸는 마음의 문 한껏 열어젖히고
우리 맞은 2015년이여

뜻깊은 이 아침
우리 무엇을 더 바라랴
우리 희망의 모든것을
우리 기쁨의 모든것을
축원의 꽃다발로 엮어안고
인민은 축원의 인사 드리나니

우리 희망의 전부이신 그이
우리 행복의 전부이신 그이
아, 우리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뿐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맞고보낸 날들은
우리 원수님 사랑으로
해가 솟고 별이 뜬 날이었어라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이
이 세상 가장 은혜로운 품이
이 땅을 덮혀준 한해였어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태양의 열과 빛을 주시려
자신의 온넋을 불태우신분
행복의 절정에 인민을 세우시려
순간의 휴식도 잊으신 원수님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아이들의 능금불엔 웃음을 주시고
과학자들 새집들엔 축복을 주시고
체육인들의 가슴엔 용맹을 주시며
바치신 헌신의 낮과 밤은 얼마
걸으신 초소길 공장길은 또 얼마

아침에도 저녁에도

원수님소식 기다리는
우리 인민이어서
낮도 없이 밤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아, 원수님모습 뵈왔을 때

철없는 어린이들마저
아버지원수님의 안녕이란 글을
또박또박 일기장에 써넣었더라
온 나라 가정의 마음과 마음들이
저 멀리 전선길에 이어놓고
그리움의 노래부르며 잠 못들었더라

정녕 우리 원수님 계시여
내 조국은 비약의 숨결 드높이
세기를 뛰어넘고
력사를 앞당기며
승리만을 펼쳐온것 아니라

그래서 새해의 이 아침
송이송이 눈송이도
축원의 꽃보라로 뿌려지나니
애육원아이들의 두볼에
곱게 피어 웃는 밝은 웃음이
충높은 교육자살림집 창가의
눈부신 해살들이
총검 추켜든 병사들의 철의 맹세가

원수님 모신 이 행복 강산에 넘쳐
환희와 기쁨속에 우리 맞는 새해
바라노라 그이 가시는 길우에
하얀 눈은 포근한 주단이 되고
바람은 꽃향기신고 흐르기를
언제나 그 언제나
따뜻한 봄날만이 비끼기를

뜻깊은 새해
2015년의 새아침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갈
가슴속 충정의 맹세는 불타올라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며
인민은 삼가 축원의 인사 드리웁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날 만강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참으로 비상한 예술의 힘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만강에서 한 연극공연은 너무나도 소박한것이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 소박한 작품을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도 쥐여뜯고 손벽도 치고 발도 구르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수 있었다. 우리가 예술활동을 가리켜 〈북대포〉라는 말로 표현한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것이였다.》

태양성지에서 부르는 노래

전 승 일

무슨 말부터 아뢰오리까
바다처럼 가슴속에 파도치는
이해의 이 걱정
천만마디 소용돌이치는 숨찬 이 궁지
정녕 무슨 말부터 아뢰이면 다 터치오리까

새해의 이 아침
금수산태양궁전의 드넓은 광장
하얀 눈세계를 짝 채우며
광휘로이 누리에 빛발쳐가는
아,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미소앞에

꼽아보면 길지 않은 365일
허나 폭풍치며 달려온 지난해읍니다
원수님 몰아가시는 선군기관차따라
백승의 궤도를 달려온 한해읍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운 웃음소리
땅을 차고 비약하는 불굴의 기상을 빼앗으려
사납게 달려드는 핵독수리들의 날개죽지
통쾌하게 찢어버린 한해읍니다
야수들의 사등뼈가 부러진 한해읍니다

정녕 무슨 말부터 아뢰오리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버이란 소중한 그 부름이

하루도 한시도 인민의 심장속에서
떨어져본적 없는 한해읍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짝 차서 흐른 한해읍니다

비를 맞으시며 가시고
더운 땀 흘리시며 또 가시고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아버지되어주신분
과학자들의 궁궐같은 살림집
수도꼭지까지 틀어보실 때
친아버이의 하늘같은 그 품에
천만군민이 목메여 안겨든 한해읍니다

일심단결이 더 백배해진 한해
백두산대국의 총대가 더 억세어진 한해
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승리이시라는
목숨같은 철리가 억척불변으로 억세어진 한해이
오니

아뢰이고아뢰어도
자꾸만 샘솟듯 솟구치는 이 환희 이 걱정
금수산태양궁전 대원수님들을 우러러
심장을 터놓는 새해의 이 아침입니다
원수님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모셔갈
충정의 맹세로 심장이 불타는
오, 태양성지 새해의 아침입니다

련 시

조국을 떠나시던 그날에

한 원 희

머리시를 대신하여

옛말처럼 전설처럼
못 잊을 사연이 어려있네
너무도 어리실적에
어버이수령님 걸으신
눈보라 천리길

그 길을 따라 걷고걸으면
눈에 삼삼 보여오네
험한 산 험한 령 머나먼 길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날의 그 모습

눈 물

온 집안이 다 울었다
그이 만경대를 떠나시던 날
할아버님 할머님도 우시였다
홀로 엄동설한 천리길 어이 가랴
장중보옥같은 손자분을 끌어안으시며
피같은 눈물을 쏟으시였다

길량식도 꾸려주지 못하시고
로자도 보태주지 못하시고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그 아픔 그 고통 눈물로 쏟으셨다

다만 그 눈물 그 피눈물로
할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령어의 몸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시며

길량식대신에 로자대신에
가슴에 불을 달아준 그 눈물

꺼지지 않는 세찬 불이 되어
천리길 엄동설한 녹여주고
진할줄 모르는 힘이 되어
발걸음 높이높이 받들어준
조국의 그 눈물

그 눈물속에
찾아야 할 삼천리강토가 비껴있었다
세월이 가도 마를줄 모르는 그 눈물
오늘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성스런 피방울로 높이높이 고동쳐라
가고가는 최후승리의 길에
발걸음 높이 더 높이 받들어주어라!

우정의 길을 이어

—성주, 너와 헤어지자니
눈물이 나 못 견디겠구나
쪽지편지속에 돈 3원 넣어준
창덕학교시절의 친한 동무

로자없이 떠나시는 아득한 천리길
얼마나 요긴한 돈인가
거기에 숨배인 우정을
억만금엔들 어이 비기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그 우정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세상에 못 얻을것 없으려니
마음속의 그 동무와 함께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그렇게 그렇게 한생을 걸으셨다
그날의 우정의 길 이어이어
순결한 동지애의 력사를 창조하시며
그이는 마침내 천하를 얻으시고
주체의 내 나라를 안아오셨다!

불라는 한마음

압록강가에 찍으시는 자욱자욱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포평나루가에 이어오신 자욱자욱
천리 하늘가에 별이 되어 떠올랐다

하지만 자신께선 모르시였다
빠를 어이는 슬픔이 너무 커서
왜놈의 총칼아래 짓밟힌 땅을
차마 어이 두고 떠날가
가슴 무너지는 비분이 너무 커서

백보도 아니되는 강을 건느면
남의 나라 땅 팔도구
얼음판우에 한걸음 내짚으셨다가
다시 또다시 되돌아짚으시고
오래오래 바라보시는 고국땅

조국의 표적이 되는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중히 간직하고싶으신
애통하고 절통하신 그 마음

강가의 조약돌 하나 감싸쥐시고
뜨거운 눈물로 적시시던 그 모습
검은구름 헤치는 해님처럼 빛나셨다

하지만 자신께선 모르셨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알았다
어두운 강산에 밝은 세상 안아오리라
자신을 다 불태우고불태우시는 그 모습
민족의 태양으로 빛나고있음을!

압록강을 건느시던 날에

이제 조국을 하직하면
언제 이 강을 다시 건느실가

얼어붙은 압록강우에
무거운 발걸음 옮겨짚으시며
조국앞에 삼천만동포앞에
억척불변의 언약으로 맹세하셨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쳐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그날의 그 맹세 산천이 들었다, 겨레가 들었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불같은 그 맹세

슬픔을 눌러딘고
강도 일제를 눌러딘고
압록강 압록강을 건느실 때
그이는 조국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이는 조국을 안고 가셨다

기어이 찾아야 할 조선
해방된 이 나라 이 강산
찬란한 미래가 그 품에 안겨있었거니
그이가 바로 조국이였다!
위대한 어머니조국이였다!

대동강기슭에서

정 동 찬

먼동이 트기 전
대동강해맞이기슭으로 내 가노라
하늘중천에 솟은 창천거리와 5월1일경기장
저마다 아름다운 그 자태
맑은 물면에 다투어 비춰보는구나

저기
미래의 아득한 높이에도
생각은 나태쳐오르라고
뚝처럼 키를 솟군 교육자들의 보금자리
이 강변에 닳을 내린듯

노을을 앞세운 해돋이의 장쾌함이여
인민의 눈부신 꿈세계를 거느리시고
온 한해 바쁘신 걸음으로 오신분
위대한 령도자의 의리와 사랑에 매혹되어
이 강변의 거리를 내 떠날줄 모르거니

봉쇄와 제재의 사슬 끊어버리며
그이 이끌어오신 현대문명의 선단인가
펼쳐울린 뚝뚝 희망에 부풀어

여기저기서 행복의 닳을 내리는 소리
내 가슴벽에 걱정의 물머리를 세우노라

새해에는 또 어떤 창조물들이
사랑하는 이 강반에 비길것이나
또 얼마나 높은 리상의 마루에서
곡절많은 세계를 앞질러가는
내 조국의 보폭을 보게 될것이나

그이 가리키신 리정표를 따라
가고가는 빛나는 그 지점들에서
세상에 처음 보는 꿈의 세계 마주 솟고
인민을 불러들이는 그이의 열광속에
나도 어느덧 뚝자락에 안긴것인가

가자 비약의 불바람 돛에 휘감으라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한번 틀어잡은 키를 놓지 않으시는
그이의 빛나는 항로를 따라
인민이여 힘차게 노저어가자

우리의 새해

문 동 식

새해가 밝아오는

금수산태양궁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서계시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승업하신 립상을 경건히 우러러

또 한해

조선의 희망찬 새해

휘황한 설계도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앞에

깊으신 사색속에 서계시는 우리 원수님

순간 온몸을 휩싸는

대원수님들의 빛나는 안광 밝으신 미소

우리 원수님의 사색은 미래로 날으신다

태양의 해빛이 가닿는 끝까지

침략과 략탈 예속과 굴종

피눈물의 인류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려

펼쳐놓으시는 자주화된 새 세계

국경과 국경넘어 팽활한 대륙에 비껴가는

친선과 평화의 황홀한 무지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깊은 사색속에 보고계신다

대원수님들의 슬기와 예지로

가없이 열리는 세계의 푸른 창공을

그이는 들으신다

금나락전야의 이삭마다 흐르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더운 숨결소리

그이께서는 보고계신다

새로 펼친 파원에도

따사로이 어려있는 사랑의 해빛을...

백두의 폭풍과 칼바람속에서

이민위천 별천지를 이 땅우에 안아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론 해빛

빛발쳐가는 세월의 끝까지

다 안아보시며

다 걸어보시며

백두의 푸른 기상 넘치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는 조용히

금수산태양궁전 문을 나서신다

이밤 여기에 비껴흐르는

태양의 노을 온 누리에 펼쳐주시려

최첨단타격력과

수천만 결사옹위총폭탄군민을 이끄시고

새해의 첫걸음 떼시는

우리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발걸음소리

척척척... 그 소리 따라

새해에도 이 땅우엔 넘쳐흐르리라

인류의 갈망 자주와 새봄이

얼음장을 터치며 태동하는 소리

여기 조선에서 분출하는

로동당만세소리

대양과 대륙넘어 올라가는 소리

그 소리를 온 누리에 가득채우시려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이밤

금수산태양궁전 바로 여기서

새해의 위대한 승리의 첫걸음을 떼신다

가장 밝으신 미소로

가장 활달하신 걸음으로

또 한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력사가 알지 못한 인민의 무릉도원

이 땅에 끝없이 펼쳐놓으시려

오, 그이는

금수산태양궁전 문을 나서신다

대원수님들의 축복을 한품에 다 안으시고

그이는 새해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신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비약의 진군길에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앞길에

정장의 담력

엄 정 호

원수님모습 뵈을 때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 내려쳐오른다
원수님 우리를 찾아주셨던 최전연
오성산의 까칠봉초소

언제나 그렇게 찾아오셨던
아버이장군님 모습으로
아버이장군님 오셨던 그 걸음으로
원수님 오셨던 까칠봉초소는
적진과 350미터!

그렇게도 뵈고싶고
그렇게도 안기고싶어
꿈에도 달려가 안기던 품이었던만
정작 오시면 어찌랴 하던 생각
초소에서 적진까지는 350미터!

우리 원수님 꿈같이 오시였어라
까칠봉초소 우리들을 찾아
령을 넘어 벼랑길을 뚫아
자욱자욱 원썬들의 총구가 노리는 사선길
자욱자욱 적진을 천만리로 밀어내시며

터져오르는 만세의 환호를
깊이 묻어둔 심장에서 솟는 눈물로
웨치고웨치는 병사들
와락 그이의 품에 안겨 터치는 진정
—원수님 여기서 적진은 350미터입니다!

그 진정 원썬들은 들었으리라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동무들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시며
그길로 천리 먼 고향을
병사가 지켜선 전호가에 불러주신 령장의 말씀

원썬들은 보았으리라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있다고
초소에 병사들의 부모형제들을 불러주시어
병사와 부모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천출명장의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이의 모습

이 세상 령군사 어느 갈피에 있었더라
병사들을 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그들과 팔을 끼고 어깨걸고 가는 길에
병사들 위해 원썬의 총구앞에 나서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

원수님 담력으로 안겨주신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 태양같이 열렬하고
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이었기에
까칠봉은 사랑의 최전선에 높이 솟은 승리의 고지
가증스런 적진은 공포와 죽음의 천길나락!

오, 병사들을 위해
조국의 운명을 위해
적진앞에 거연히 서계시는 원수님은
병사들과 조국사랑의 최고화신의 모습이였다
조국을 수호하시는 최고사령관의 거연한 모습이
였다!

가 사

인민이 따르는 김정은동지

문 기 창

궁궐같은 새집 세워도 유원지 꾸려주셔도
더 큰 기쁨 안겨주시려 마음을 쓰시네
사랑을 주셔도 사랑을 주셔도
뜨겁게 주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의 념원을 뜻으로 삼으시네

최첨단 불길 지퍼도 새 공장 세우시여도
더 큰 경사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네
믿음을 주셔도 믿음을 주셔도

끝까지 주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의 리상을 목표로 삼으시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만복을 안겨주시려
애국의 뜨거운 심장을 불태워가시네
천만이 우러러 천만이 우러러
끝없이 따르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은 그이만 영원히 모시렵니다



동 의 희
그림 김 광 석

(전호에서 이음)

3

《이 겨울에 야외우리기등감때문에 자강도에 갔단 말이지.》

두단목장에서 돌아온 리인배의 말을 들으며 수령님께서 멀리 북쪽하늘을 바라보시었다. 그러니 최성준은 새해 설날도, 제일 추운 정월도 외지에서 지내고있는것이였다.

지금 이 시각도 북방의 산력을 오르고있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릿하시였다.

(사람두, 얼음이나 녹은 다음에 떠날게지.)

야외우리를 지을 과업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한 겨울에 산정에 오를줄은 생각 못하시였다. 하긴 그게 없으면 두단령감이 아니지. 달리는 살수 없는 최성준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수령님의 눈앞으로 두단을 찾으시였던 지난해 가을날이 삼삼히 떠오르시였다.

아침부터 교외의 닭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곧장 두단오리목장으로 가자고 하시였다.

《수령님, 점심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두단엔 제가 가겠습니다.》 리인배가 앞으로 나서며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이 이해되시였으나 더 말할수도 없으시였다. 지대가 좋고 조건이 유리한 두단에서 한 3천톤쯤 고기가 생산되어야겠는데 아직

은 천톤수준이었기때문이였다. 힘들지만 현지에 나가 방도를 찾아내야 했다.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일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가금업이였다. 시의 가금업에서 두단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지체하지 않고 두단으로 향하시였다. 점심시간에 그이께서는 목장에 들어서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오리우리를 바라보시였다. 줄을 지어 늘어선 오리우리는 살림집마냥 규모가 크고 그뿐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서포와 하당에서 닭우리를 다 계단으로 하여 마리수를 늘려 고기생산을 높일 방도를 찾은것처럼 여기서도 무슨 방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이겠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사색에 잠겨 한동안 오리우리 사이길을 걸으시였다.

옆에서 서성거리던 리인배는 지배인을 찾으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사색을 이어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오리우리들 사이사이를 바라보시였다. 문득 그이의 시선이 오리우리사이의 공간에서 멎으시였다. 저 공간? 얼핏 보기에도 몇십동이나 되는 우리사이의 공간을 다 합치면 대단한 부지다. 저 공간을 리용하는게 어떨까?

번쩍 빛나던 수령님의 안광에 미소가 흘렀다.

종금오리놀이장쪽에서 최성준이가 달려오고있었다. 그전과 달리 신발은 신었지만 오늘도 바지가래

이는 걷어올린채였다. 그뒤에서 리인배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성준이에게 다가가시었다. 그의 몸에선 작업복차림새와 달리 향긋한 향수내가 풍겨나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은근히 놀라시면서도 활짝 핀 꽃송이앞에 서신듯 한 기분을 느끼시었다. 바지가 랭이를 내릴 사이도 없이 뛰어다니는 그에게 향수를 칠만 한 생활의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무엇을 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최성준을 바라보시었다.

《건달오리들을 골라내는중이였습니다.》 그가 어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었다.

《건달오리?》

《저 종금오리들속엔 알을 낳지 않고 먹기만 하는 오리두 있습니다. 그것들이 축내는 먹이가 약차합니다.》

그래서 건달오리? 수령님께서서는 긍정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런데 그런 놈을 인차 알아볼수 있소?》

《눈을 밝히면 인차 골라낼수 있습니다.》

성준은 버릇처럼 머리칼을 매만지며 든든해보이는 대문이를 드러냈다. 입가에 수더분한 웃음이 어리었다. 술한 오리가 바글거리는 속에서 건달오리들을 골라내는것은 축적된 현장경험과 함께 터득한 기술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다. 전번날 물놀이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그의 견해도 결코 우연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었다.

《그건 무슨 책이요?》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작업복주머니에서 삐죽이 나온 책을 보시며 물으시었다. 어색하게 머리칼을 매만지는 성준의 얼굴이 금시 불깃해졌다.

리인배가 얼른 수령님께 말씀올리었다. 지배인감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실책을 봉창이라도 할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랑했다.

《수령님, 지금 여기 목장에선 매일 저녁마다 기술학습을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초빙되어 출연하군 하는데 지배인동무가 제일 열성입니다.》

최성준이가 미처 손건사를 못하고 비비적거리었다. 그는 주머니에 책을 넣고 다니며 짹짹이 기술을 익히고 현장에서 늘 살고있지만 누가 한마디 칭찬이라도 할라치면 이렇게 머리도 들지 못하군 했다.

《음,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하니 오리에 대해서 잘 알겠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최성준이가 여간 대견하지 않으시었다.

최성준의 얼굴은 귀뿌리까지 빨갛게 익어버렸다. 이제 리인배가 한마디 더 하면 아예 타들것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르는척 앞을 가리키시었다.

《지배인동무, 저기 오리우리들사이의 공간이 얼마요?》

《예?》

성준의 눈썹이 쭈글했다. 그는 정확한 수자를 말씀드리면서도 어정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길이는 얼마나 되오?》

최성준은 여전히 의혹을 감추지 못한채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최성준의 대답을 들으시며 아까부터 구상하시던 공간리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었다.

《지배인동무, 저 공간에 야외우리를 짓도록 합시다.》

《야외우리 말입니까?》 성준은 눈이 둥그래졌다.

《야외우리란 별게 아니요. 저 공간 네귀에 말뚝을 박고 지붕을 씌우면 그게 바로 야외우리요. 그러면 거기서 여름 한철 오리를 키울수 있지 않겠소. 오리우리들사이의 공간을 다 리용하면 얼마나 많은 야외우리를 일떠세울수 있겠소. 그러면 저런 우리를 더 짓지 않고도 오리마리수를 늘일수 있소. 총국장동무, 어떻소?》

수령님께서서는 수첩을 꺼내 무엇인가 계산하고있는 리인배를 바라보시었다.

《수령님, 그러면 한 야외우리당 지금 있는 오리의 배만큼 넣을수 있습니다.》

리인배가 야외우리인것만큼 오리우리의 배나 되는 오리를 넣어도 된다고 얼른 계산해냈다.

그제야 성준의 입귀가 벅글서해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야외우리를 짓겠다고 나섰다. 역시 어느때 보아도 믿음직하고 정이 가는 일군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오리고기생산을 늘일 문제때문에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히 열려지시는듯 했다.

《새끼오리를 야외우리에서 살찌우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소. 야외오리우리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며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되기때문에 우리안에서 기를 때보다 새끼오리 키우기물이 높고 몸질량도 빨리 늘어날수 있소. 그러면 3천톤은 문제없소.》

수령님께서서는 옥실거리는 하얀 오리떼가 벌써 보이는듯 하시었다.

《3천톤 말입니까?》 이제껏 천톤도 채우지 못 하던지라 3배나 되는 생산수자앞에서 최성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3천톤이 뭐라구 그렇게 놀라오? 앞으로는 한 5천톤을 해야겠는데. 수도의 두단목장이 팜포오리 목장한테 저서야 되겠소.》

수령님께서는 슬쩍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시 었다.

일욕심이 많은 최성준이가 제일 싫어하는건 일을 하는데서 남한테 지는것이였다.

《아, 저서는 안됩니다.》

아닐세라 성준은 부득부득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흔들었다.

《바로 그거요. 남의 뒤꼬리를 따를바에야 무슨 멋으로 일하겠소. 여기에 야외우리를 짓기만 하면 문제없소. 이 좋은 땅에 다른걸 더 지을 생각은 하지 말고 저 공간에 야외우리를 짓소.》

《알겠습니다, 수령님.》

《총국장동무, 오늘은 닭공장들에서도, 여기 두 단에서도 예비를 찾았소. 오늘 이렇게 예비를 많이 찾아내니 기분이 좋구만.》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시여 앞서 걸으시였다. 살랑거리는 바람결이 어디선가에서 알릴듯말듯 향기를 날라왔다.

그때였다. 최성준이가 앞서신 수령님께 달려가며 송구스럽게 아뢰였다.

《수령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점심식사를 하고난 뒤일겁니다. 저희들의 식당에라도...》

그제야 리인배도 멈칫했다. 고기예비를 찾은 기쁨에 그만 점심시간이라는 생각을 못한것이였다.

《아니, 점심은 늦어졌지만 고기생산을 늘일 방도를 찾았으니 배가 부르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앞서 걸어가시였다.

어쩔수 없는듯 성준은 수령님을 따라가며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저... 그럼 오리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의 눈가에 핑 물기까지 어리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오리알? 그거 마침이요. 오리알이 좀 있었으면 했겠는데.》

정녕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분이 좋으시여 유유히 흘러가는 대동강이며 만경봉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어린시절 저 만경봉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인민의 락원을 세우리라 꿈을 키우던 일이 어제처럼 추억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시였다.

《자, 그럼 잘들 있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성준의 몸에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향수내가 연연히 풍겨왔다.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꽃피는 정원에 들어선듯 한 기분을 느끼시며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

그러니 그때 준 파업을 실행하자고 한해 오리생 산계획을 끝낸 이 눈덮인 겨울에 떠났단 말이지.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먹이려는 소원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실현되고있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아마 두단에서 야외우리를 지으면 오리고기생산에서 장훈을 부를거요. 우리 그들을 잘 도와줍시다.》

4

최성준은 자강도에 가서 나무를 해결해오자 야외우리건설에력을 충집중했다.

성준은 겨울이 지나고 나무가지마다 파릇파릇 새움이 트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해났다. 하루라도 빨리 오리들을 넣기 위해 그렇게 즐기는 담배 한대 피우는 시간도 아끼였다.

야외우리를 세우는 기둥박는 작업을 선행시키고 역은 이영을 날라오는족족 덮게 했다.

성준은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외우리작업장을 돌아보고, 거기에 넣을 오리에 대해 알아보고 또 새끼오리에 관심을 돌리느라 뛰어다니였다. 그야말로 팽이돌듯 했다. 오리들이 야외우리에 들어온지 벌써 스무날이 지나 45일이 다 되었다. 드디어 자기 날자가 다 된 오리들이 가공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오리우리에서, 야외우리에서 생산이 어느때의 곱절로 늘어난것으로 하여 가공이 난문제로 제기되었다. 설비가 협소해서 야전가마를 걸고 물을 끓여가며 오리들을 튀어내곤 했는데 몇사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성준이자신도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야 할 정도였다. 가마를 더 건다, 로력을 더 붙인다 했지만 고기도매차들이 기다리게 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었다. 어쩔수없이 종업원들은 퇴근하지도 못하고 오리들을 저마끔 튀어내느라 말그대로 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산오리를 그냥 가지고 퇴근하는 정도였다. 집에 가서 튀여온다는것이였다. 할수없이 성준은 상업관리소와 토의해서 산오리들을 도매에 넘기기로 했다. 박박 거리는 산오리들을 싣고 떠나는 상업관리소차를 바

라보는 성준의 얼굴은 밝지 못해도 입에서는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처리한 이 일로 해서 수령님께 또 걱정을 드리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목장관리국에 갔던 기사장이 험뎌거리며 성준이의 앞에 나타났다.

《지배인동지.》 그의 얼굴은 당장 울음이라 도터질듯 했다.

《무슨 일이에요?》 현장으로 나가려던 성준은 의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 수령님께서 대동문식료품상점에 가시었답니다. 거기서 산채로 있는 닭을 보시고 이렇게 여윈 닭을 인민들에게 공급하게 됐으니 자신께서 인민들에게 신용을 잃었다고 말씀하셨다질 않습니까. 우리도 산오리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아차.》

성준은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빨리 가공설비를 만들어 이제 더는 산채로 판매되지 않게 해당 일군들에게 파업을 주셨다는 수령님의 교시를 어떻게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대동문식료품상점의 산닭을 보신것이 아니라 자기네 산오리를 보신것만 같아 가슴이 타들었다. 하긴 닭과 오리가 무엇이 다른가. 다 같은 가슴이 아닌가. 뒤늦게야 정신이 들어 그는 산오리채로 내보낸 토성식료품상점으로 달려갔다. 상점문은 열려있었다. 그는 상점안을 둘러보았다. 아닐세라 상점구석에는 발목을 묶이운 오리들이 나뒹굴고있었다.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마음은 그것들을 한아름에 다 안고 일어서고싶었으나 가공준비를 하지 못한지라 가져갈수도 없었다. 한참후에야 성준은 밖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딱히 어디로 간다는 생각도 없이 허청허청 발길을 옮기는데 앞에 대동강이 보이였다. 푸르른 그 물을 보니 더 갈 힘도 나지 않아 동쪽우에 주저앉았다. 대동강에는 커다란 짐배가 떠있었다. 그는 짐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짐배를 보기만 해도 잊혀지지 않는 자기의 지난날이였다. 끝이 없는 함정같은 기선의 짐칸을 채우느라 하루종일 짐을 메나르던 지난날의 고달픈 일들이 어제일처럼 살아올랐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강심을 모으며 아찔한 배다리를 타고 무수히 오르내려야만 했던 그 시절, 정말이지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저런 배밀창에 영영 구겨박혀졌을 자기의 인생이였다.

(내가 어느새 수령님의 은덕을 잊고있었구나. 내

가 일을 쓰게 못해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으니 이런 큰 죄가 어디 있는가.)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늘어나는 생산에 맞추어 가공조직을 잘했어야 했었다.

아, 나는 언제면 인민들의 복리부터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을 다 체득할수 있을까.

《아버지, 아니, 아버지!》

성준은 누가 찾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묻혀있다가 곁에서 큰소리가 나는 바람에 와들 놀라 돌아보았다.

뚝뚝에도 팔이 방실거리며 다가오고있었다. 아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였다. 팔은 금년에 교원대학에 입학하여 두단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였다.

성준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비맞은 오리모양꼴을 한 자기가 민망스러웠다.

《아버진 여기서 뭘 하세요?》

팔은 눈이 울롱해서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옆에 앉으려던 그가 《아이, 땀내.》 하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착착 접은 손수건갈피속에서 하들거리는 종이쫂박을 하나 떼냈다. 향수내가 확 풍기였다.

팔은 서슴없이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였다.

《손수건이 왜 없나요? 아버지.》

그제야 성준은 주머니를 뒤지였다. 정말 손수건이 없었다. 당황해난 성준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보았다. 그러나 손수건은 없었다. 아까 허둥지둥 달려오면서 땀을 닦고 주머니에 넣는다는게 그만 헛손질을 한 모양인가?

《허, 내 그만...》 성준은 딸의 성의가 깃든 손수건을 잃은게 미안해서 허거프게 웃어보이였다.

《됐어요.》 딸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종이향수가 든 자기의 손수건을 성준의 옷주머니에 조심히 넣어주었다.

성준은 코마루가 찌르르해났다. 딸은 점점 커갈수록 극성스럽다 할 정도로 아버지의 시중을 들었다.

《아버진 지배인이야요. 언제 어버이수령님앞에 나서게 될지 몰라요. 그런 지배인의 몸에서 땀내만 풍기면 어떡해요.》 하고 다심히 살펴보다가 《아버지, 어서 옷 벗으세요.》 하며 가방을 열었다.

《옷을?》 성준은 행해서 자기의 양복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팔은 가방에서 벌써 실을 켤 바늘을 꺼내였다.

《이 단추가 덜렁거리지 않아요. 이제 달지 않으

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원, 애두.》

딸이 아니라면 이렇게 온전한 차림새를 생각이나 할터인가. 성준이보다 한살 우인 로친은 셋이나 되는 사내들 시중을 드느라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다. 하긴 그 애들을 전사하는것만도 용타고 해야 할 정도이다.

딸은 코등에 송글송글 내뿜은 땀을 씻을념도 않고 바느질에 열중했다. 발그레 홍조가 비낀 동실한 딸의 얼굴은 소담하게 피어난 한송이 꽃이었다.

(이 애가 이젠 다 자랐구나.)

성준은 딸이 이젠 다 컸다고 생각하니 불현듯 자기의 속을 털어놓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수령님께서 손수 산닭을 달아보셨다누나. 하루 사이에 200그람이나 감소되었으니 며칠 있으면 뼈만 남을게 아닌가고 가슴아파하셨다질 않니. 가끔 목장들에 빨리 가공설비를 만들어보낼 대책도 취해주셨다누나. 난 수령님께 죄를 지었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종단 말이나.》

성준은 앉은자리에서 풍덩 꺼져들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딸은 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더 말을 못했다. 성준은 가슴이 찌르르해나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마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애는 성준이의 친딸이 아니라 대성산목장에 있던 오리작업반 반장의 딸이었다. 목장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성준이가 그를 알게 된것은 열성이 높고 늘 손에서 오리사육책을 놓지 않기에 마음에 들었던 젊음이였기때문이었다.

어느날 주변농장으로 먹이를 실으러 갔던 성준은 새벽에야 목장에 도착했다. 고대하던 먹이가 왔다고 소리를 치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오리우리결에 있는 경비실이 활활 불이 붙고있는게 아닌가.

성준은 눈이 뒤집혀지는것 같았다. 그 경비실에서 비행기로 실어온 귀한 오리알을 깨우고있었던 것이다.

숨이 차서 황황히 달려갔을 땐 그 반장이 불붙는 서까래를 받쳐든채였고 녀인들이 마지막알을 치마폭으로 꺼내오는 참이었다. 그래도 다행이구나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반장이 피투성이된 몸을 더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것이였다. 그는 반동놈이 던진 칼에 맞아 마지막숨을 쉬면서도 끝까

지 서까래를 버리고있었던것이였다. 준엄한 시기였다. 새로 돌아오르는 연약한 오리라는 짝을 악착스레 짓밟아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반동놈들은 새벽을 타서 알깨우기를 하는 경비실에 불을 지른것이다. 아마 그 반장이 아니었다면 알은 한알도 건져내지 못했을것이다.

오리작업반이 분가하는 날 반장이 목숨으로 구해낸 알에서 깨운 오리들이 폐목에 실릴 때 성준은 꽃뭉음을 들고 반장의 묘를 찾았었다. 그의 마음까지 합쳐 기어이 오리를 잘 기를 다짐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야무진 처녀애의 울음소리가 강가를 뒤흔들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거야. 아버지거야.》

발버둥치면서 울어대는 그 애는 희생된 오리작업반 반장의 딸이었다. 박박거리는 오리울음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던 강변은 영악을 떠는 그 애의 울음소리로 금시 얼어들었다. 폭격에 엄마도 잃고 아버지까지 잃은 아이.

성준은 돌멩이 구르듯 비탈길을 내려왔다.

강푹한 무명치마말의 맨발바람으로 폐목우에 실리는 오리를 가리키는 그 애의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다. 찬서리를 맞아 떨어지는 들꽃잎처럼 애처로운 정상이였다.

성준은 목이 꺾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얼른 아이를 안아일으켰다.

《우리거야, 우리거.》

그 애가 흑흑 흐느껴울면서 폐목에 실리는 오리들을 가리키였다.

《그래, 우리거다, 우리거구 말구.》 성준은 처녀애에게 서슴없이 말했다.

《자, 우리걸 신고가자, 우리 새 집에 가자.》

《새 집?》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꼭꼭 팔국질을 하며 쳐다보았다. 성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이고 더우기 이런 문제는 안해와 토의하여야 할 심중한 일이였지만 더 망설이지 않고 성큼 발자국을 뗐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아이를 안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다. 그때부터 그 애는 성준이네 집 딸로 자라게 되었다.

...

생각에서 깨어난 성준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아버지때문에... 수령님께서 인민들앞에 신용을 잃었다고 말씀하셨다누나.》

《아버지, 자 어서 옷부터 입으라요.》

딸이 단추를 다 단 옷을 내밀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기운을 내세요. 난 이제부터 오리고기

가공실을 지었으면 해요.》

《가공실?》

성준은 눈이 둥그래서 되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리고기가공설비를 빨리 만
들라고 하셨는지요? 그러니 로동자아저씨들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설비를 행랭그렇한 마당에
설치하겠어요?》

《그렇구나, 참 넌 어찌면. 지배인은 내가 아니
라 너인것 같구나.》

성준은 큰숨을 몰아쉬었다. 딸은 대학생이 되더
니 생각하는게 달랐다.

《그래, 우리 다시는 수령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게 일하자.》

성준은 움쭉 자리를 일었다.

5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성준이네가 한창 가공작장을 새로 꾸리던 그해
8월에는 또 큰물피해를 입게 되었던것이다.

전례없는 폭우가 며칠째 계속 쏟아지고있었다.
지대가 낮은 섬인 두단은 망망대해에 뜬 하나의 쪽
배같은 처지에 빠지고말았다. 그런데도 폭우는 멎
을줄 모르고 쏟아지고 시시각각으로 물이 불어났
다. 오리우리에게까지 물이 차기 시작하자 성준은 모
든 종업원들을 대피시켰다.

시간이 갈수록 비줄기는 심술이라도 부리는듯 더
세차졌다. 대동강물은 점점 불어났다. 목장은 물속
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한마리, 두마리...
오리들이 물에 뜨기 시작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대동강쪽이 터지지 않겠
는지.

주변은 온통 물천지인데 가슴은 초들초들 말라들
었다. 이미 갑문과 뚝에는 인민군부대들이 출동하
였고 부대장이 직접 갑문운전대를 쥐고있다고 한
다. 만약 대동강쪽이 터질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갑문을 열 잡도리인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인명피
해는 없지만 오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성준은 자기 살점과도 같은 오리들때문에 온몸에
서 피가 마르는것 같았다.

오리우리창문까지 물이 차올랐다. 사나운 물소
리, 박박거리는 오리소리, 사람들의 고함소리. 성
준은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벌써 시계를 몇번
이나 보았는지 모른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
야 하는가.

관리공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던 오리들을 한마리
라도 건지겠다고 물속에서 절벌덕거리고있었다. 그

심정은 성준이와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물이 자꾸
자꾸 불어나는 조건에서 더 지체할수 없었다. 성준
은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강다짐으로
배에 태워 원암등성으로 대피시키고 홍수피해대책
위원회 성원들만 남게 했다.

쏟아지는 비소리로 귀가 멍멍했다. 가슴이 한
줄만 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있는데 갑자
기 승용차 한대가 물살을 헤치며 들어섰다. 성준
은 눈이 둥그래서 맞받아달려나갔다. 뜻밖에도 차
에서는 물참봉이 된 리인배총국장이 내리는게 아
닌가.

성준은 깜짝 놀랐다.

총국장이 숨가쁘게 소리쳤다.

《물이 얼마만큼 찼소?》

《오리우리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준이도 목이 터지게 대답했다. 소연한 물소리
로 웬간한 말은 들리지도 않았다.

《수령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소.》

갑자기 푹 가라앉은듯 한 리인배의 목소리였다.

《수령님께서요?》 성준은 목이 꺾 메여와 그
자리에 굳어졌다. 또다시 수령님께 걱정을 드렸
구나.

성준은 리인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눈물속에서
한마디한마디 새겨들었다.

...

수령님께서서는 내각회의에 참가한 리인배에게 두
단오리목장의 실태를 물어보시였다고 한다. 예상밖
의 물으심이였다. 시의 닭공장들은 다 알아보고 직
접 나가보기도 했지만 대동강안에 박힌 두단만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이윽해서야 리인배는 사실대로 지금 물이 차고
비가 계속 오는 조건에서 통신이 차단되어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있다고 말씀드릴수밖에 없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침중한 어조로 《섬안에 있는 목
장이니 물에 잠겼겠구만.》 하시며 비가 쏟아지는
밖을 잠시 내다보시다가 총국장은 회의에 참가하
지 말고 어서 목장에 나가보라고 하시였다는것이
였다.

리인배는 허둥지둥 회의실을 나왔다. 그때는 이
미 대동교가 물에 잠겨 찰랑거리고있을 때였다. 하
지만 어물거릴 사이가 없이 비속을 뚫고 차를 달
리였다. 인차 토성다리에 이르렀다. 10여미터의 개
울을 가로건너지른 목조다리앞에는 차들이 주런이
서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서서 떠들썩거리고
있었다.

리인배는 차며 사람들을 단속하고있는 교통안전

원(당시)에게 빨리 다리를 건너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원은 들을념도 하지 않았다.

《안됩니다. 건너갈수 없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하고 다리위로 밀려오는 강물을 가리켰다. 리인배는 그의 팔을 붙잡고 사정했다. 그러나 애꿎어보이는 안전원은 통하지 않았다.

리인배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 성을 벌컥 내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지금 어느분의 령을 받고 가는지 알기나 해? 수령님께서 지금 저 두단의 오리목장을 두고 걱정하고계시오. 난 물속에 빠져두 죽지 않고 살아서 기어이 수령님께 목장실태를 보고올려야 할 임무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옷을 입은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딱딱하던 안전원은 물론 거기 서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 수령님께서 두단의 오리들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신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서.》 화닥닥 놀란 안전원이 차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거기 서있던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차에 달라붙어 허양 들어 다리를 건네워놓아 이렇게 올수 있었다는것이였다.

사연을 다 말하고나서 흠뻑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리인배의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화기가 어리였다. 오리목장이 비록 섬안에 있지만 인명피해도 없고 아직은 오리도 일없다니 안도의 숨이 나간다고 덧붙이며 무선기를 꺼내었다. 그가 목장의 실태를 그대로 보고올리었다.

성준은 씩씩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는 리인배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했다.

아,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의 얼굴로는 비물, 눈물이 함께 흘러 온통 물범벽이 되였다.

성준이네는 수령님께서 긴급대책을 세워주시어 대홍수를 넘길수 있었다.

가공직장건설은 계속 추진되였다. 그해 11월 마침내 성준이네는 가공직장에 아버지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최성준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수령님께 설명해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가공직장에 설치된 감전기, 열수기, 털뽑기공정들을 일일이 보고 또 보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지배인이 가공직장을 아담하면서 도 쓸모있게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목장이

구색을 다 갖추었다고 기뻐하시였다.

성준은 수령님은덕으로 큰물피해를 제때에 가졌기에 이렇게 인차 일어설수 있었다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물바다속에서 당황하기만 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때 좀 피해를 본 오리들도 식당에서 처리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어 하나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린 국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육오리들이 놀이장마다에 가득 널렸습니다.》

성준은 그러며 새끼오리들이 가득 널린 놀이장으로 수령님을 안내해드렸다. 최성준의 곁에서 가까이 걸으시던 수령님께서 불쑥 이렇게 물으시였다.

《지배인동무의 안사람이 아주 다심한것 같구만. 옷차림이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관심해주는것 같단 말이요.》

《수령님, 우리 로친은 제 옷 생각은 하지두 못합니다. 장난꾸러기들 시중만으로도 험험합니다. 저, 제 옷차림은 우리 딸이 해줍니다.》

성준은 오늘 아침에도 새 목달개를 달아주고 새 손수건을 넣어준 딸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딸?》 수령님께서서 관심을 가지시며 그를 바라보시였다.

《언제인가 보통강에 딸을 데리고나온적이 있었지?》

《예?》

최성준은 뿔뿔해지였다. 딸과 함께 보통강에 나간적은 부지기수였다.

《그때 난 동무들이 골뱅이를 잡는걸 보고 참 기뻐했소.》

순간 섬광같이 뇌리를 치는 생각!

우리가 한참 골뱅이를 잡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신적이 있었다고 했지?

《수령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성준은 목이 메여올라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딸이 따라나왔지. 그 애 이름이...》

《예. 수령님께서 친히 제 딸의 이름까지 물어주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웬일인지 최성준은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 주춤했다.

《그 딸이 커서 아버지 시중까지 들어준다니 얼마나 좋소. 참 복딸이요.》

수령님께서서는 기쁘시여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수령님…》

성준은 수령님께서 하도 기뻐하시자 자기가 거짓 말을 한것 같아 더는 그대로 있을수가 없었다.

《수령님, 사실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친딸이 아니라구?》 저으기 놀라신듯, 무엇인가 기대를 하시는듯 한 수령님의 눈길이었다.

성준은 대성산목장에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오리알을 깨울 때에 있는 일과 그 오리알을 깨우면서 목숨을 바친 반장이야기를 자초지종 말씀드리었다.

《이렇게 그 애는 저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없는 설움이 생길가봐 제 성을 달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알만 하다는듯 수령님께서 안도의 숨을 내쉬시었다.

《그랬겠군. 총국장동무한테서 오리작업반 반장의 딸소식을 듣고 찾았겠소. 애육원에서도 찾고 또…》

그제야 수령님께서 길옥이를 찾으시었다는것을 알게 된 최성준은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그런것도 모르고 딸의 이름을 묻는 부판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려 견딜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그 애를 찾으시는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름을 물으시는것도 모르고… 수령님,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떨구는 최성준을 보시며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좋은 일ियो, 좋은 일. 우리 나라에 심봉사가 젓동냥을 해서 딸을 키웠더니 후에 아버지를 룡궁에 모셨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그게 혈육의 정이지. 친척네가 데려갔다고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게 동무였됐구만. 그 애가 동무의 딸이 됐구만. 성준동무, 고맙소.》

《수령님!》 그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터지려는 오열을 가까스로 막았다.

수령님께서 한동안 말씀이 없이 어깨를 떠는 성준이 주위를 천천히 거니시었다. 스러져가는 옅은 해빛이 호듯호듯 내리쬐이는 놀이장에서 술한새끼오리들이 발발거리고있었다.

참으로 평화복기 그지없는 모습이였다. 이윽도록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안광엔 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저 야외우리에서도 오리들이 놀고있구만.》

《예, 이달까지 야외우리사육을 할수 있습니다. 올핸 큰물때문에 생산을 많이 내지 못했지만 명년엔 문제없습니다. 생산을 부쩍 올리겠습니다.》

《좋소, 야외우리도 지었지, 저렇게 애국폴도 많지, 또 가공직장도 꾸렸으니 부쩍 생산을 올리라구.》

수령님께서서는 그루만 남은 애국폴을 한동안 바라보시었다. 지금같은 계절에 저렇게 그루를 남겨놓으면 겨우내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는 또 푸르싱싱히 자라서 좋은 먹이가 된다. 살림살이를 잘하는 주부마냥 자기 할일을 미리미리 예견성있게 해나가는 알뜰한 주인의 숨씨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앞에 보이는 놀이장과 야외우리에서는 오리떼가 흐른다. 오리우리사이로 난 구내길로는 오리를 실은 차들이 가공직장으로 실려오고 정문으로는 식료차들이 빠져나가고있다. 오리목장에서만 볼수 있는 호뜻한 풍경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더없이 만족하시었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그전날 손님이 오면 죽술에 물 한바가지를 더 부어야 했던 인민들이 아니다. 오리고기도 더 맛있게 가공하고 알도 가려가며 먹을 때가 되었다.

오리훈제, 오리고기볶음, 오리불고기…

수도의 거리에 풍겨날 구수한 냄새가 벌써 서려드는것 같으시었다.

《우리 인민은 아직 오리가공을 잘할줄 모르거던. 그 옛날 지지리도 못살아서 오리고기를 먹어봤어야지. 오히려 오리고기를 먹으면 나쁘다느니, 너자들이 오리고기를 먹으면 오리발 달린 아이를 낳는다느니 하는 말을 끝이듣고 있어두 먹을 생각을 못했거던. 나쁜 놈들이 우리 인민이 그냥 몽매하게 살기를 바래서 그런 악선전을 하는줄도 모르고 말ियो. 이젠 오리고기도 알도 다 잘 가공해서 자기 구미에 맞게 먹을 때가 됐소.》

수령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최성준은 얼핏 절군 오리알을 먹어보던 때가 생각났다.

언제인가 협의회가 있던 때인데 점심시간이 되여 식당에 가니 매 사람앞에 절군 오리알 한알씩 담은 접시가 놓여있었다. 성준은 늘 보아온 오리알을 이렇게 절이니 참 별맛이구나 하고 별생각없이 한입 베물었는데 그 오리알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것이라니 하마트면 오리알을 떨어뜨릴번 했다.

목장에 오신 수령님께서 반갑게 오리알을 받으시길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 그길로 댁에 가지여 손수 오리알을 절이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 오리알을 받으시며 마침이라고 하신것은 이미부터 절군오리알 생각을 하시였던게 아닌가.

우리 인민의 식탁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정치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여줄수 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상대되는 인물의 격을 낮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형상하여야 수령의 권위를 보장할수 있다. 적대적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을 그릴 때에도 그들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어 그것을 라승하는 수령의 위대성이 감명깊게 안겨 오게 하여야 한다.》

양하게 할수 있을가고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서야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텐가.

이제라도 그 오리알을 맛보던 인사를 올려야겠지만 성준은 자꾸만 뜨거운것이 목을 짹 메우는 바람에 종시 입을 열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성준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한번 본때있게 해보시오. 동무네가 계획을 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겠소.》

이듬해 오리목장은 전에 없는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 성준은 노상 오리우리에서 살았다.

오리목장의 실태는 그대로 수령님께 보고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정녕 기쁘시였다. 문득 오리우리마다에서 싱싱하게 자라던 애국풀이 떠올랐다.

축산에서 한몫할 먹이풀이기에 이듬도 《애국풀》이라고 달아주시고 친히 그 뿌리를 목장들에 보내주시였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런데 일군들속에서 한때 바람이 불다가 인차 식어버리는 풍을 버리지 못한탓으로 다른 목장에서는 애국풀이 없어졌다. 하지만 두단에서만은 그 애국풀재배를 여전히 고수했다. 당에서 좋다고 한번 알려주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줄 아는 성준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두단이 달랐다.

《두단령감이 드디어 령마루에 올라섰구만. 그가 결승선테프를 끊었소. 3천톤을 계획했는데 4천톤을 넘쳐했소. 오리를 놓고 그를 따를 사람은 없소. 장하오, 장해. 영웅이요.》

최성준이를 생각하시니 벅글거리는 그의 두툼한 입술이 얼른거렸다. 작은 눈이 감기도록 웃고있는 모습, 금시라도 그의 몸에서 향기가 풍겨나오는것

같았다. 그 향기는 그대로 그자신의 인간미였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때 서슴없이 당의 뜻을 받들어 오리고기생산에 자기의 몸을 바친 사람, 한입이라도 덜어야 하는 때지만 희생된 동지의 딸을 안아키운 그는 진정 온몸에서 진한 향기를 풍기는 참다운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두단땅에 있어 그 땅은 더 더욱 풍성해지는것이다.

(그래, 그 두단령감은 영웅의 자격이 있어.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고... 새 료전기재를 보내주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오리가공법도 보게 하자. 오리를 파는 상점에도 오리고기료리방법을 써붙이고... 우선은 식료부문과 가금부문 일군들로 대표단을 무어 보내자.)

수령님의 사색은 더 높이 나래치고있었다.

하늘도 맑은 가을날이었다. 진회색양복을 짙 붉아입은 건장한 사나이가 평양비행장에 들어서고있었다. 대표단의 단장으로 된 두단오리공장 지배인 최성준이었다.

그는 비행기에 오를념도 앓고 저 멀리 시내쪽을 바라보았다.

오리공장의 지배인으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친히 《두단령감》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수령님.

그 부름은 진정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일생 좌우명으로 삼고계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가장 값높은 칭호였다.

그는 첫걸음을 떼는 아기마냥 자기를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이윽하여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태양이 빛나는 맑고 푸른 하늘로 높이높이 날아올랐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벅찬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속에 들어가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감화력있고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 대중의 심장을 광광 울리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명작폭포를 쏟아내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승리와 비약을 약속하는 새해가 밝아왔다.

씻은듯 청신한 새해의 첫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마음을 가다듬고 신들메를 조이며 달려갈 올해의 주로를 짚어보느라니 지나온 한해가 돌이켜진다.

이 땅에 사는 공민치고 누구라고 다르랴만 지난 2014년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 특히 잇을수 없는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2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보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으며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는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이 전투적구호와 과업은 우리 작가들에 대한 그이의 커다란 믿음이고 기대이다.

그러나 죄스럽게도 우리 작가들은 원수님의 그 높은 믿음과 기대에 웅당한 보답을 못하고있다.

나자신의 경우도 그렇다. 나는 지난해에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싸고 치렬하게 벌어진 조미간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을 창작 완성하여 출판에 넘겼다. 했으나 나로서 송구하고 안타까운것은 내가 창작한 작품이 시대의 명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없는것이다. 있느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이 그 어디에도 비길수없이 크고 숭고한데 비해 작품에 그것을 원만히 형상해내지 못했다는 자격지심과 후회뿐이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벌써 지난해의 추억으로 되었다.

이제 우리는 후회와 죄송함을 덮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새해의 진군로를 달려가야 한다.

올해 나의 계획은 년초부터 체육부문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착실히 하면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도와 업적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을 준비하는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나의 작가적운명을 건 야심작, 명작으로 창작하여 선군조선의 작가된 책임을 다 하겠다.

4. 15문학창작단 작가 박래수

사랑찬 열매의 해로!

이 땅에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의 종소리가 아름다운 수도의 은빛추녀들을 흔들며 은은히 울려퍼진다.

누구나의 가슴에 벅차게, 환희롭게, 희망차게 깃드는 새해 주체104(2015)년!

꿈도 많고 포부도 많은 새해!

새해를 맞고보니 나 또한 생각이 깊어진다.

내 인생주루에 또다시 차려진 한해-365일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그릴것인가.

이해에는 어떤 열매를 가꿀것인가....

지나간 한해의 마음의 문을 닫고보니 가슴다는 추억들이 다시 뒤돌아보게 한다.

지난해에 우리 시인들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을 받들고 명작

~~~~~ 새 해 결 의 ~~~~~

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기 위한 투쟁속에서 지혜와 열정을 바치며 일년 열두달을 거침없이 달려왔건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 당의 의도에 자신들을 따라세우지 못하였다.

우리들이 심한 자책의 고뇌에서 벗어나 청천강 전역주제의 서사시를 비롯한 우수한 시작품들로 새 출발의 힘찬 걸음을 내딛고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가 새로 창작한 소박한 가사 한편에 이처럼 높은 평가를 주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이 일을 우리 작가들이 받아안은 믿음으로 생각하며 저마다 아낌없는 축하와 진심어린 뜨거운 격려의 눈길을 보내줄 때 나는 작가들 누구나의 마음속에 충실한 창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고심하는 진정이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자책감이 클수록 그만큼 분발심과 결심이 커지거마련이다.

열매는 저절로 익지 않는다.

창작의 열매도 다름바 없다.

해빛과 물, 부식으로 그보다도 농사군의 땀과 진정으로 훌륭한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 작가들의 사상과 정신, 노력과 열정이 창작적열매의 기본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 나는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고 명작창작을 위한 투쟁마당에 뛰어들 결심이다.

글을 많이 쓰는것이 작가가 아니라 명작을 내놓는것이 진정한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어느덧 창건 70돐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키운 위대한 어머니당의 탄생일에 나의 깨끗한 량심과 열정, 진정으로 성의껏 엮은 시가의 다발을 정히 드리고싶은 마음, 명작으로 알알이 일매진 열매를 땀땀이 드리고싶은것이 새해를 맞는 나의 결의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 황성하

힘껏 달리자

지나온 한해.

경이적인 사변들로 들끓었던 지난 2014년을 뒤돌아보니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얼굴들이다.

더불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을가... 하는 생각.

무릇 선수들은 경기장의 몇분, 몇초를 위해, 영예의 금메달을 위해 한생을 달리고달린다고 했다. 그럴진대 금메달을 향해 달려온 우승자들의 그 달림길은 과연 얼마이겠는가.

생각이 깊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의 낮과 밤을 지혜와 정열, 신념과의지로 달리고달려 자기를 안아키워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 금메달로 보답의 인사를 드린 우리의 체육인들.

그들이 조국에 드린 금메달.

그것은 우승을 상징하는 뜻만이 아닐것이다.

나라없던 지난 세월에는 우승을 하고서도 다른 나라의 기발을 올려주며 시상대에 올라 망국노의 설움을 짓씹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자주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서서 오늘은 체육강국을 향해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조선속도를 창조하고있는것이다.

금메달은 체육인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정심의 열매이다.

하기에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안아온 그들의 혁혁한 성과를 온 나라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하다면 우리 작가들의 금메달은?...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작품,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폭포이다.

그렇다면 나는 작가로서 그 명작폭포를 위해 얼마나 달렸는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처럼 달리고달렸던가.

죄스럽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세기적인 비약의 조선속도를 창조해가는 시대의 숨결에 호흡하지 못한 자신이...

안타깝기만 하다.

격동적이고 벅찬 오늘의 현실을 작가의 목소리로 소리높이 구가하는 창작적재능이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그러나 자신의 재능만을 한탄하고 무딘 필력을 나무라고있을 때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서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 명작폭포를 바라고계신다.

그 명작폭포에 한줄기 물보라도 보탬을 주지 못한다면 어찌 당의 작가라고 할수 있겠는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기 위해 신념과의지로 달리고달려온 체육인들처럼 작가로서의

금메달—명작폭포를 향해 창작적사색의 낮과 밤을 달리고 또 달리겠다.

배낭을 메고 조선속도가 나래치는 현실로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걸음걸음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짧고 기동성있는 예술산문들을 많이 창작하겠다.

특히 는 우리 문학의 주도적 형상과 제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형상하는 수령형상문학창작을 작가적의무로 심장에 새기고 올해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형상한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며 현재 창작중에 있는 인민생활주제

의 장편소설을 완성하여 우리 작가들의 금메달—명작폭포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아마도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소설가들 모두의 지향이고 의지라고 확신한다.

바로 명작폭포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드는 여기에 작가로서의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작가들이여, 올해에 명작폭포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가 사영철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평론을!

우리 조국청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주체 103(2014)년을 보내고 보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할 새해를 맞는 이 시각 류달리 감회가 깊어진다.

지나온 한해가 돌이켜진다.

얼마나 격동적인 한해였고 얼마나 들끓던 한해였으며 더불어 얼마나 거창한 전변과 비약이 이룩된 한해였던가.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복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로 내 나라, 내 조국은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었고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은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다.

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변혁의 해인 지난해에 나는 평론가로서 무엇을 하였으며 조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수확이 시원치 않다.

격동적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무게있고 권위있는 평론을 쓰자고 제단의 만만한 야심과 욕망으로 가슴 불태웠지만 결과는 시원치 못한것이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올해에 조국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안고 더 빨리 달리고 더욱 비약할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진한 땀을 바치며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길것이다.

이 장엄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자. 영광스러운 이 시대와 뜨겁게 호흡하고 시대의 격류속에서 평론가답게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평론을 쓰자는 것이 새해에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평론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나는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론 창작에 힘을 넣으려고 한다.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철학성이 있으며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시대적인 걸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말그대로 작가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명작평론을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려고 한다.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인민의 목소리가 진실하게 울려나오는 평론, 작가와 작품을 잘 알고 작가의 창작심리와 작품생리에 정통하고 대안까지 찾아주는 평론이라야 작가들의 작품창작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다.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 열풍을 일으키고 모방과 도식, 반복과 류사성을 철저히 없애며 생활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창작을 선도하는 문제평창작에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려고 한다.

그리고 혁명의 년대들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인,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적평론을 내놓으려고 한다. 이해에는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기억하는 조령출, 정서촌에 대한 글을 쓸 결심이다.

욕망이 결코 열매로 되는것은 아니다.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일이며 작품은 열정의 산물이다. 피타는 노력과 완강한 인내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고 해도 그것은 한갓 꿈으로 남는다.

나는 올해에 하루하루를 최대의 마력을 내면서 창작의 강행군을 벌리려고 한다. 내세운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의지로 창작생활을 하고 사색과 탐구에서, 열정과 노력에서, 속도와 활력에서 더더욱 젊어지려고 한다. 하여 당창건 70돐 대축전장에 무게있는 명작평론을 안고 가려는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가 박춘택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안 성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게 될 대축전장으로 잇닿아진 환희로운 새해의 첫 문어구에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발표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은 나라에 사회주의대전설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지고 영화혁명의 포성높이 문학예술부문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주체59(1970)년 1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문학작가들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력사적인 그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연설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전환적계기를 마련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으로 하여 주체문학건설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당시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할데 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영화문학작가들을 만나주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먼저 영화문학작가들의 작품창작실태를 하나하나 분석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써내지 못하고 있으며 써낸 작품도 그 사상에술적수준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근본원인은 작가들의 정치적자각이 부족한데 있으며 중요하게는 그들의 수준이 낮은 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좋은 글을 쓰려면 당정책에 밝고 박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작가들이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좋은 영화문학작품을 더 많이 써내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학습을 강화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면서 작가들이 공부를 많이 하여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책

과 영화도 많이 보며 현실체험도 실속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작가들이 자체수양을 많이 하며 문화성도 높이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할데 대한 문제, 신인작가들을 잘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날에 주신 가르치심은 당시 작가들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창작태도를 바로잡고 작품창작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한 강령적지침이였다. 특히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문학과 생활, 작가와 작품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한 고전적정식화로서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좌우명으로 새겨질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통하여 생활을 더 잘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배우게 되며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가게 된다.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수행하는 문학의 묘사대상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비롯한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령역이 다 포괄되며 한 작품안에서도 생활분야가 국한되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갈래로 복잡하게 얹혀있다. 문학작품은 복잡한 인간생활을 본래의 모습그대로 묘사하여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과 가치는 필연코 작가의 준비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작가는 자기가 사상미학적으로 준비된것만큼,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알고있는것만큼 인간과 생활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그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한다. 작가는 자기의 수준에 맞게 생활의 복잡한 현상 가운데서 전형적이고 본질적이며 교양적의의가 있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맞게 형상해낸다. 자기가 지닌 세계관과 정신도덕적수양정도, 인식제한계를 초월하여 객관세계를 리해할수는 없다.

작품은 작가가 지니고있는 사상과 지식의 직접적

산물이다. 작가들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반영하여 창작하는 문학작품은 현실세계의 단순한 재현이나 복사판이 아니다.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얼마만한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생활을 감수하고 분석하며 예술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창작과정의 성과가 좌우되고 나아가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그날에 창작활동의 새로운 지침을 밝혀주심으로 하여 우리 작가들은 보다 큰 신심과 열정을 안고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45년간은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자라찬 창작실천으로 확증된 뜻깊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정치적안목과 창작적기량, 예술적자질을 높이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타는 열정을 기울여왔다. 인류가 쌓아놓은 정신문화적재부를 자기의것으로 만들고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였으며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숨쉬고 고틱을 같이하면서 생활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나날에 우리 작가들은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와 풍부한 지식, 높은 예술적자질을 갖춘 실력가들로 자라났으며 총서 《불멸의 역사》와 《불멸의 향도》, 《충성의 한길에서》를 비롯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생활의 참된 길동무, 거울이 되어 새로운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 좋은 작품들, 시대의 명작들이 수많이 태어났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의 실천적의의는 오늘에 와서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문명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보다 높은 창작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승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작가, 예술인들앞에 제시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시대와 인민이 요

구하는 명작폭포, 그것은 작가가 비상한 사상정신적각오와 함께 높은 실력을 지니는것으로써만 확고히 담보된다. 실력이 있어야 당의 사상과 의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창작실천에 구현할수 있는 정책적안목을 가질수 있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심오한 철학세계를 창조할수 있는 형상적방도도 탐구할수 있을뿐아니라 도식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상을 대담하게 들고나오는 배짱도 생기고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능란하게 구사할수 있는 묘리도 찾아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은 작가의 사상정신적준비정도와 함께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것으로만 가능하다.

원래 문학창작은 심오한 사상과 뛰어난 지적재능, 높은 열정을 지니고 하는 사업이다. 작가의 세계관, 철학적사색과 창작적열정, 예술적자질이 높을수록 창작사업에서의 성과가 담보되며 력사에 남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여기서 작가의 세계관, 철학적사색과 창작적열정, 예술적자질은 그가 지니고있는 인간과 생활,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인식적내용에 기초하고있다.

오늘날 시대와 생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인식수준과 창조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작품들이 지식의 빈곤, 상식의 빈곤, 철학의 빈곤으로 하여 지성도가 높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틀에 매달리다나니 새맛이 나지 않고 읽을 맛도 없어서 독자들의 버림을 받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과 그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그날에 하신 작가들이 아는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신 교시의 의미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명작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우리 작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있다.

명작폭포를 위한 작가들의 근본열치는 당정책에 밝고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 생활의 박식가가 되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래야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될수 있다.》

작가는 사회생활의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모르는것이 없고 자연현상의 그 어떠한 오묘한 리치도 터득한 생활의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생활의 박식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것으로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대백과전서이다.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오시는 과정에 집필발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명철하고도 완벽한 해명이 밝혀져있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인간생활의 리치와 교훈들이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들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당의 의도, 시대와 인민의 요구와 의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으며 인간과 생활을 당정책적인 안목에서 보고 형상으로 옳게 구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문학예술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근기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에 반영되고있는 생활이나 분야와 관련한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전면적으로 빠짐없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파악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난 시기 작가들속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거기에서 의의있는 사회적문제성을 찾아내고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냄으로써 당의 방침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귀중한 경험들이 적지 않게 창조되었다.

장편소설 《열망》(김문창)은 그러한 좋은 실례로 된다. 작가는 오늘의 자력갱생은 지난 시기때처럼 모든것을 자체로 한다고 하면서 맨손으로 두드려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이 아니라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되여야 한다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새겨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첨단기계체품을 만들어내는 한 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생활의 박식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책을 많이 읽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로부터 책은 말없는 스승이고 생활의 길동무라

고 일러왔다. 책을 통하여 인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기의 창조적인 노력을 총화지어왔으며 책과 더불어 문명한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왔다. 책에는 오랜 세월 인류가 이룩해놓은 정신문화적재부들이 반영되어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무진장한 지식이 담겨져있다. 책속에는 작가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생활에 대한,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와 사실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들어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작품창작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터득할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도 잘 알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신의 정신도덕적수양도 쌓을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연과 사회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 그 어떤 부문의 지식도 전문가 못지 않게 정통한 박식가로 준비해야 한다.

고금동서의 세계적명작들은 물론이고 음악, 무용, 미술, 영화를 비롯한 자매예술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하며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도서들도 읽어야 한다. 세계의 지리나 자연, 세태풍속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법률학, 민속학에 대해서도 자기의 일가견을 가질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흥미본위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지향성있게 책을 읽는것이다. 작가들은 한편의 책을 읽어도 자기의 창작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의 인간적수양에 이바지되도록, 자기의 식견을 높이고 안목을 넓히는데 복종되도록 읽어야 한다. 아무런 목적과 지향이 없이 읽는다면 백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발취하고 정리하며 자기의 독후감 같은것도 써놓을 줄 알아야 한다. 독서계획을 전망성있게,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 다방면적인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데서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그 어디에 가셔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읽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에게는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휴식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있다. 사색하고 집필하는 시간외에는 그 어디에 가셔나, 그 언제나 책을 읽는데 버릇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생활의 박식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해야 한다.

들끓는 현실은 문학의 무궁한 원천이며 작가들의 예술적재능과 함께 창작적안목과 시야를 넓힐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현실은 작가들의 창작에 필요한 많은 소재들과 원형들을 안겨줄뿐아니라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한 보다 새로운 지식을 가르

쳐주고 그 인식을 보다 풍만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속에서 살아 숨쉬는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인민대중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에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생활의 스승이다.

작가들이 약동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해야 조국의 위대한 현실을 똑똑히 느낄수 있고 선군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볼수 있으며 그 과정에 창작실에서는 미처 깨달을수 없었던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배우게 되고 생활의 묘리들과 원리들을 파악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의 안목과 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지난 시기 성과작으로 평가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천세봉), 《시련속에서》(윤세중), 《뜨거운 심장》(변희근), 중편소설 《불꽃》(박찬은), 《세대》(김삼복)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은 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근로하는 평범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에게서 배우고 자기의 안목과 시야를 부단히 넓히면서 창작한것들이다. 최근에만도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정영중), 《래일에 사는 사람들》(김유권), 《행복의 권리》(리준호) 등 현실주체의 많은 작품들이 작가의 적극적이며 깊이있는 현실체험속에서 탐구된 참신하고도 생동한 성격형상과 함께 인간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내용으로 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작가들이 현실에 들어가 생활을 체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겠다는 그리고 생활속에서 한가지라도 더 배우겠다는 관점과 태도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것이다.

작가의 현실체험은 단순히 원형인물에 대한 료해나 사실자료에 대한 확인, 현지생활에 대한 파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작가는 생활을 체험함에 있어서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고 평가하는것과 함께 작품창작을 위하여 현실에서 자기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은 무엇이며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를 명백히 설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작가의 현실체험은 한두번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의 전기간에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훌륭한 작가들의 경험은 생활체험을 많이 할수록 생활에 대한 리해와 인식이 풍부해지고 생활의 그 어떤 구체적인 세부까지도 막히는데가 없는 박식가가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의 붓을 놓게 되는 순간까지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생활을 체험하는것을 체질화

하여야 한다.

생활의 박식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부단히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자기의 지식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고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어제날의 새로운 지식이 지금에 와서는 낡은것으로 되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이 오늘의 정보산업이다. 지난날의 자신의 지식과 실력수준에 만족하여 보다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더 많이 체득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원만히 따라설수 없으며 자기도 모르게 시대의 락오자가 되며 생활의 변두리에 밀려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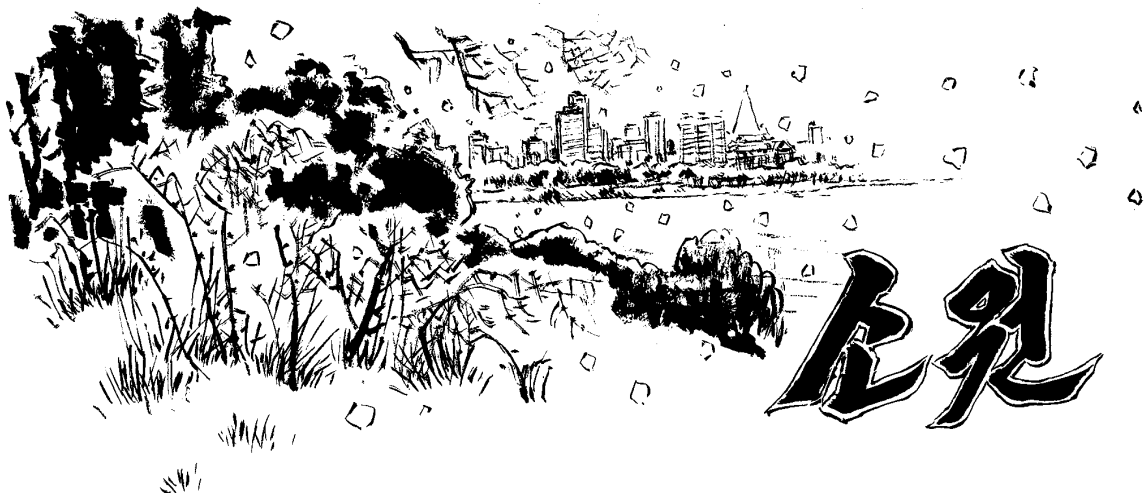
시대와 생활을 선도해야 할 작가의 창작적탐구와 사색은 조금도 멈춤이 없어야 하며 그 시대와 생활을 리해하고 인식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도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한 줄기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현시기 생활의 박식가로 되기 위한 작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보다 힘있게 가해져야 하는것은 첨단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파악하는것과 함께 정보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아는것이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보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든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우리 식의 핵개발기술이 세상을 놀래우고있는 자랑스런 현실은 현대문명의 첨단에 서야 하는 작가들이 도달하여야 할 지식과 능력의 높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나노공학, 정보기술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여야 하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창작활동과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줄 아는데도 웅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의 선도자, 투쟁의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보다 훌륭히 수행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은 그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더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 더 훌륭하고 완성된 능력을 갖춘 생활의 박식가, 실력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선군시대의 명작폭포를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창작활동에서 자신들이 생활의 박식가로 준비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적극 노력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락 속 본

군복입은 미술가인 이정철은 원래 편지를 길게 쓰는 성미가 아니었다. 병사시절에는 더욱 그랬다.

함경남도의 외진 산골에 자리잡고있는 한 자그마한 기계공장에서 직관원으로 일하고있는 그의 아버지는 군사우편엽서에 절반도 채우지 못한 아들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허를 차군 했다.

《무슨 녀석이 이 모양인지, 그래가지구두 무슨 일을 치겠다구...》

그때는 이정철이 부대에서 직관사업을 할데 대한 임무를 받아 수행하면서 장차 이름난 미술가가 될 꿈을 꾸고있던 때였다.

《영웅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며 군대에 나가더니... 군사복무나 착실히 할게지...》

어머니도 편지를 보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해 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게 어느날 그는 밤늦도록 책상을 마주하고있아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우선 편지가 전에 없이 긴데 놀랄것이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대번에 눈들이 커다래질 그런 편지였다.

1

밤이다.

비가 내리고있다. 바람이 불고있다.

대동강기슭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잠시도 안정을 모르고 비바람에 휘휘 마구 뒤채이고있다. 리

정철은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허덕허덕 걷고 있다.

빠스는 집아근에서 멎었지만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있는 불밝은 방안으로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강변으로 나온 그였다. 비를 그을 생각도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끝없이 걷고 또 걷고싶었다. 다들 고이 잠든 한밤중에 조용히 집에 들어가고싶었다.

비는 계속 내린다. 주룩주룩주룩 비방울이 땅을 쉬임없이 두드려대는 소리가 마치도 자기를 질책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부진창작가... 자격...》

초저녁 퇴근하기 전에 상반년창작총화모임에서 창작사사장 한정민이 하던 말, 얼굴이 화끈했었다.

들을수 없었다. 귀가 멍멍해졌다.

뒤이어 수군수군 들려오는 소리...

《전엔 팬찮은 작품을 내놓았는데...》

《우연일수 있지.》

《하긴 전문대학을 못 나왔지.》

《기초가 약할수밖에...》

정철은 후- 하며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말 길을 잘못 든게 아닌가?)

정철은 방향없이 자꾸 걷기만 했다.

또다시 문득 들려오는 소리...

《에그, 이 앤 앞으로 뭐나 되겠는지...》

어머니의 한숨소리, 그것은 정철이가 중학교 2학년때 체육소조에서 미술소조으로 옮겨간 날 밤에 잊은 일이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붙여물며 혀를 끝끝 찼었다.

《다재는 무재라 했는데…》

꿈도 많던 정철이었다.

외진 산골마을의 크지 않은 중학교운동장에서 뿔을 찾지만 마음은 드넓은 세계의 이름난 경기장들을 달리고있었다. 처음엔 축구, 다음엔 룡구 또 다음엔 탁구, 다음엔 속도빙상…

《속도빙상이 좋을것 같소. 한필화선수와 같이 일본에 가서 이름을 낸 내 친구의 체격이 이 애와 비슷해.》

어느날 빙상훈련을 하다가 곤해서 쓰러진 자기의 다리를 뿔으로 재어보며 아버지가 한 말이였다. 아버지는 평양에 갔다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멋있는 스케트를 사다주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에서 진행된 500미터속도빙상경기에서 있는 힘껏 달렸지만 겨우 5등을 하고 돌아왔다.

그때부터 그는 머리를 싸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빙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럼 앞으로 무엇이 될것인가?…

얼마후 그의 생활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체육소조에서 미술소조으로 옮겨간것이다.

아버지는 아연해졌다. 그야말로 극단에서 극단이었다.

세상이 넓다좁다하며 뛰어다니던 애가 한자리에 꼼짝 안하고 앉아 그림을 그리다니…

체육교원과 미술교원사이에 많은 말이 오갔다고 한다.

《미술엔 천성적인 싹이 있어요. 정철학생은 미술을 해야 발전할수 있어요.》

미술시간에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미술교원이 교장선생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미술소조에 간 그는 처음엔 처녀애들이나 좋아할 소조라면서 맞갖지 않게 여기며 자주 뚜꺼먹군 했다.

처녀교원이 안타까이 집에 찾아다니며 요구했지만 아버지도 그닥 마음싸하지 않았다.

《뭐가 되겠는지. 난 앞이 통 보이지 않수다. 글씨 앞으로 나처럼 이 산골에서 직판원은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철이도 날이 감에 따라 미술에 호기심이 동하는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화첩을 남몰래 뒤적거려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다. 아버지가 보니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혹시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으나 이내 도리

머리를 하군 하였다.

아무래도 미술가재목은 못된다고 생각했다.

나자신도 성공하지 못하고 고작 공장직판원에 머물지 않았는가. 그 애마져 이 아버지의 전철을?…

아버지의 속구구를 마치 알기라도 한듯 미술교원은 더욱 정열적으로 찾아다녔다.

《아버님, 걱정마십시오. 꼭 될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그 그림을 자기 방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고개를 기웃거리자 미술교원은 안타까이 말했다.

《정말입니다. 프락프리가 벼단을 가득 실고 농장의 동구길로 연기를 풍풍 올려쬘며 달려가는 모습인데 얼마나 생동한지 몰라요. 확실히 정철이는 아이적 느낌을 생동하게 가지고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가 성공의 비결은 아이적 느낌을 일생 가지고있는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절 믿으세요.》

마침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었고 정철이도 미술소조에 마음을 붙이게 되었다. 일단 미술소조에 정을 붙이게 되자 정철이는 오히려 남보다 더 극성이였다. 붓과 색감, 그림종이, 화판도 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고급한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공장에서 직접 화판받치개를 만들어주면서도 아직은 미타해했다.

(그래도 빙상이 나았었는데…)

어느덧 중학교졸업시기가 닥쳐왔다.

이무렵 중학교졸업생들은 앞을 다투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하고있었다. 정철이도 례외가 아니였다. 오히려 주동이었다.

학교속보판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수호의 영웅이 되자!》라고 쓴 호소적인 글발이 나붙었는데 그 힘있는 서체의 주인공이 바로 정철이였다.

정철이 군복을 입고 떠나는 날 아버지는 정철이 미술공부의 뒤바라지를 하느라 마음쓰던 부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여기 덩석, 저기 덩석 하더니 이젠 제 길에 들어섰다고, 사람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시름을 놓았었다.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더니 1년만에는 뜻밖에도 직관임무를 맡아본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전투영웅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떠나더니…》

리정철의 방향전환의 시발점은 중대정치지도원이 그의 학습장을 보다가 체목글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덧쓴 글씨를 본 때부터였다. 정치지도원은 대뜸 반색을 하며 그에게 전투소보를 써보게 하였고 거기에서 미술적인 재능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에게 중대속보판을 만들게 하였다.

부대에는 조국청사에 새겨진 조국해방전쟁영웅들이 많았다.

강호영, 박원진, 조순옥...

영웅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발휘한 위훈은 오늘 부대전투원들속에서 그대로 계승되고있었다. 정철은 전투정치훈련에서 매일, 매 시각 발현되는 전투원들의 모범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속보와 소보에 담아 소개했다. 그 과정에 미술적재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어느날 쌍방훈련에서 《적장》을 포로한 병사의 위훈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그 모습을 전투소보에 연필로 멋들어지게 그려넣었는데 이것이 중대정치지도원으로부터 크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정철동무는 확실히 미술에 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정치지도원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중대장에게 한 말이었다. 그무렵 인민군적인 미술작품전람회가 조직된다는 통보를 받고 중대정치지도원은 정철에게 말했다.

《중대생활을 그대로 그려 한번 본때를 보이자구. 중대의 명예를 걸고 말이요.》

정철은 흥분했다. 보람찬 병사생활을 정말 마음껏 그려보고싶었던것이다. 정치지도원의 방조속에 정철은 밤을 새워가며 붓을 달렸다. 마침내 《훈련에서 흘린 땀 남해에서 씻으리》, 《우리 부대 영웅들》을 완성하여 전람회에 올려보냈다.

작품을 올려보내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가도 감감무소식이였다. 정철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더니...)

그러던 어느날 땀을 흠뻑 흘리며 훈련을 하고나서 휴식시간에 전투소보를 쓰고있는데 중대정치지도원이 군인들을 전부 교양실에 모이게 했다. 중대정치지도원은 강연뒤끝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리정철이 창작하여 올려보낸 그림 《훈련에서 흘린 땀 남해에서 씻으리》와 《우리 부대 영웅들》이 모두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것이였다. 교양실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정철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동무들은 앞을 다투어 정철의 손을 잡고 제일처럼 기뻐들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후 정철은

부대지휘부로 소환되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모든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지휘부로 소환되어가던 도중 아름답게 단풍든 산천을 보고 버스에서 뛰어내려 화판을 펼치고 붓을 달렸다.

그 그림이 《내 고향의 단풍계절》이었는데 그 작품 역시 다음해에 열린 미술전람회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리정철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리정철이 전문미술창작기판으로 소환되었던것이다.

아!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그때로부터 7년세월이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비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친다. 버드나무가 뒤설레인다.

또 옆에서 수군거리던 동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듯싶다.

그는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짊 쥐었다.

아니, 그럴수 없다!

분발하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그는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다음날부터 새로운 결심을 안고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처럼 심혈을 다해 애써 그린 작품이 이번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지적의 말씀을 받게 될 줄이야.

아...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풍경화를 보고계시였다.

여러차례 현지에 나와 작품들을 지도해주신 그이이시였다.

창작사 책임일군인 한정민이 설명해드리였다.

《미술가 리정철동무가 그린 〈금강산풍경〉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름이 기억에 있으신듯 사장을 돌아보시였다.

《전번 상반년사업총화에서 부진으로 지적되었던 동무가 아닙니까? 부대생활을 하다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로 창작사에 온 동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다가 말씀하시였다.

《이 그림에서는 금강산의 정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처 대답을 못 드리는 한정민.

그만하면 잘 그렸다고 생각해온 그였으니 무슨 말씀을 드릴수 있으랴. 한정민은 저으기 긴장해지었다.

사실 이 작품은 리정철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창작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상반년도창작총화가 있는 후 퍼그나 시일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한정민의 앞에는 리정철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앉아 말하고있었다.

《창작총화모임후에 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총화모임후에도 다른 동무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젊은 동무들은 쟁쟁한 작품들을 내놓고 큰소리를 치는데... 전 확실히 재목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밥만 축발바엔 차라리...》

한정민은 측은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다가 도리머리를 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분발하면 꼭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고 보오. 이번엔 금강산에 나가보오. 그 아름다운 경치를 화판에 옮겨놓으면 좋은 작품이 될수 있다고 보오.》

이렇게 되어 금강산으로 떠났던것이다. 낮에는 직접 풍경을 보며 그리고... 밤에는 밤대로 온갖 정열을 다 바쳐 완성한 풍경화였다.

그런데...

김정은동지께서는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금강산에 대한 관찰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림이 우리 로동당시대의 금강산으로 안겨오지 않습니다.》

한정민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치 좋은 곳마다 인민의 휴양지를 꾸려주시고 마음껏 향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행군때에만 하여도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얼마나 많은 명승지를 훌륭히 꾸려주시였습니까. 금강산은 명실공히 인민의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금강산은 로동당시대의 금강산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신 말씀인가.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리정철은 자신에 대한 환멸로 하여 그날 밤 창작사에서 한밤을 꼬박 새웠다. 눈앞에는 웬일인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다. 무엇인가 미타해하는 그 눈길들...

부도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실망해하실가.

3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침내 작전탁에서 허리를 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적구상을 받들어 만든 새로운 작전안을 최종적으로 검토완성하신것이다. 작전도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배치와 그 움직임을 다시금 짚 훑어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시며 부호자와 색연필을 작전도우에 놓고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날을 따라 가증되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조국앞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만일에 적들이 무분별한 도발로 이 땅에 불꽃 한점이라도 튀긴다면 적들의 군사기지는 물론 그 본거지까지 무자비하게 즉탄처버리고야말것이다. 문득 며칠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조선인민군 각 군종, 병종 사령관들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 성원들에게 새로운 작전방안을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환히 안겨오신다.

《만약 놈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조국통일의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날 인민군대의 전반적인 싸움준비정형을 다시금 재확인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주신 파업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하늘땅이 다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이 다시금 안겨오며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만시름을 놓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을 때마다 저절로 눈굽이 뜨거워오르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언제나 태양처럼 밝게 웃으시는 장군님을 뵈고만싶은 심정이지였다.

그럴 때마다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날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오르는것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고싶으신 충동을 강렬하게 체험하곤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 울렁거려지는 그 흥분을 또다시 감득하시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여시였다. 방안가득 밀려드는 정원의 청신한 새벽공기를 한껏 호흡하시며 별많은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하고계실가. 어제 최전연에서 돌아오시었는데... 내각중심체제제를 놓고 협의

회를 조직하시었는데 그 문제때문에 밤을 밝히지 않는지. ...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계시다가 다시 집무탁으로 다가가시었다. 따로 정히 보관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들을 꺼내 한상한상 생각깊이 여겨보시었다. 모두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게 웃으시는 사진문헌들이었다.

(이 사진문헌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보실 때 찍은 사진이지. 그때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재간둥이들은 다 여기에 모인것 같다고 하시며 웃으시였지. 이 사진문헌은 우리 군수공업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땅크를 보아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새로 일떠세운 강계닭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이다. ...)

정말 보고 또 보고싶으신 귀중한 사진문헌들을 한상한상 뜨거운 눈길로 보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은 한정민이네 미술창작사에 꼭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었다. 현지에 나갔던 미술가들이 그림을 완성하여가지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었던 것이다. 그들속에는 리정철이도 있었다.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로 창작사에 올라온 동무여서 더욱 관심이 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으시었다. 어떻게 하나 그를 잘 키워주고싶으시었다. 그래서 자신께서 구상하시는 그 성스러운 사업에도 꼭 참가시키고싶으시었다. 문득 열려진 창가로 은은한 선물이 새벽공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울리는 시계종소리였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선물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문헌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자리를 일으키시었다.

4

김정은동지께서는 벽면을 따라 전시된 풍경화들을 한점한점 주의깊게 보아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명산들인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의 자연풍경을 형상한 그림들이었다.

창작사사장이 그림에 대하여 **김정은**동지께 설명해드리었다. 풍경화들은 모두 훌륭히 형상되어있었다. 금강산의 가을풍치를 형상한 풍경화에 대하여 해설을 들으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그림이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 때뻑이를 했다고 기뻐하시며 지금 정철동무가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창작실에서 창작중에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됐다고 하시며 우리끼리 그림을 감상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이때를 기다린듯 사장이 제 소견을 말씀드리었다.

《이번에 이 동무가 형상한 작품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혁신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좋아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 사장의 말을 긍정해주시었다.

《지난번에 이 작품의 부족점을 지적하시고 그 수정방향을 밝혀주신대로 완성하였습니다.》

《결함을 말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족점을 창작가가 어떻게 접수하고 퇴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작품의 부족점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완성하는 능력이 창작가의 실력입니다. 이 작품을 보니 정철동무의 재능이 느껴집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림가까이로 다가가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보시오. 이제는 이 풍경화에 금강산의 약동하는 정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풍경화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작품에서 금강산의 약동하는 풍만한 정서가 느껴진다고 한 말은 풍경화가 순수 자연풍치에서 벗어나 로동당시대의 우리 인민이 창조한 행복상이 느껴지게 형상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여기 원경으로 처리한 금강산관광등산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금강산자연이 이루어놓은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여 인공적인 등산로정이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창조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가 화폭에 스며들게 형상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향유하여가는 인민의 량만적인 행복상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 풍경화는 순수 자연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량만적인 정서가 여운을 남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인상에 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풍경화는 아무리 훌륭한 자연경치라 해도 허기진 배를 안고서는 그 진미를 감득할수 없다는데로 부터 생겨난 〈금강산신후경〉이란 경구를 새롭게 음미해보게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풍경화에 대하여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며 자연을 즐기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잘 느껴진다고 평가하시고나서 그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도시풍경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시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이 그림도 정철동무가 그렸습니다.》

《그림이 정말 환합니다. 거리가 너무도 환하여 마치도 그앞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듯 합니다. 거리가 이렇게 환하니 평양이 온통 환하게 안겨오는듯 합니다. 평양이 환해지면 우리 인민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을 환히 밝게 볼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이처럼 환하고 필치가 거침없이 펄펄 나는듯 한가고 감탄할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서적느낌이 미술작품이 주는 매력일것입니다.

기백이 넘칩니다. 이 동무의 그림은 필치가 확터져서 좋습니다. 기교를 부리거나 인위적인데가 없어 더욱 매력있습니다.

그림을 시원하게 그려서 사람들이 이 그림앞에서면 저 불밝은 창문앞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보는듯 한 느낌을 받을것입니다.

거리풍경은 바로 이 동무처럼 형상해야 합니다. 이 동무가 전에 창작한 〈선군조선 누리에 빛난다〉에서 느낀 감흥을 오늘 되찾은듯 한 심정입니다.》

이날 창작사사업을 지도하고 떠나시기에 앞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정철을 부르시였다. 감격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리정철을 믿음과 사랑이 어린 눈길로 보시며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림감상을 잘했습니다. 때뱃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물화를 창작하시오. 동무는 인물화를 해야 합니다.》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인물화를 창작할데 대한 파업을 직접 받아안은 한정민사장과 리정철은 곧 전선동부에 위치하고있는 부대로 내려갔다. 리정철이 복무하던 부대였다.

부대정치위원은 리정철이 병사생활을 할 때 중대정치지도원을 하던 라문철이였다. 라문철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동생을 만난듯 거수경례를 하는 정철의 손을 잡아내리며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그는 정철이네를 긴 앞상으로 끌어다앉히고 흥분해서 말했다.

《정철동문 중대를 떠난지 몇년만인가. 그래 10년이 켜 넘었구만, 10년이 넘었어. 내 그렇지 않아도 동무를 찾으려했는데 마침 잘 왔소.》 하고는 제잡담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한달전의 일이였소. ...》

...미체침략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날을 따라 긴장해지던 어느 날이였다.

이날 집무실에서 격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최전연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새롭게 정립해주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임참가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라문철을 따로 부르시였다.

《하나 묻겠습니다. 정치위원동무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있을 때 전투소보원이였던 리정철이 생각납니까? 창작사미술가로 소환되어간 동무 말입니다.》

《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김정은**동지와와의 대화는 퍼그나 길었다.

그이께서는 미술창작사를 지도하는 과정에 그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리정철이 장군님의 은정속에 창작가로 된 후 부진상태에 빠져 고민이 컸다는것, 금강산풍경화를 보시고 부족점을 지적해주는 과정에 그의 미술적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 훌륭한 미술가로 키울 결심으로 그의 개별창작카드를 료해하시였다는것, 그 과정에 《선군조선 누리에 빛난다》가 미술전람회에서 영예의 금메달까지 수여받은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그 작품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작품은 중심에 선군령장이신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정중히 모시고 뒤배경에는 태양의 찬란한 해발을, 제일 앞단에는 만첩으로 편 **김정일**화를 형상함으로써 태양의 빛발이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화폭이였다.

《그 작품은 종자가 명백합니다.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화가가 무엇을 참고로 했는지 정치위원동무는 알고있습니까.》

《그 작품이 금메달을 받았다것을 알고 축하해주려고 갔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작품을 창작할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말을 좀 해보았는데 별로 참고한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영상을 화폭에 모시였습니까?》

《그는 원수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영상과 **김정일**화는 머리속에 사진처럼 새기고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김정은**동지, 그는 훈련하는 동무들의 모습을 그릴 때도 어떻게 생동하게 그려내군하는지 마치 훈련할 때 사진기로 찍어두군 하는것 같았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에겐 확실히 놀라운것이 있습니다.》

《?…》

《그것이 천성입니다. 사진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있단 말입니다. 이런 동무를 잘 이끌어주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동지.》

《고맙다는 말은 내가 정치위원동무에게 할 말입니다.》…

한정민은 정치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불붙는듯 화끈거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한정민이 그가 부진상태에 빠져있을 때 기껏해서 했다는 말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분발하면 꼭 좋은 작품을 낼수 있다.》 이것이 고작이 아니었던가.

(나는 어찌하여 그와 오래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그의 특기, 그의 미술가의 천부적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나는 그의 개별창작카드에 기록되어있는 《선군조선 누리에 빛난다》를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는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제 밤에도 몸소 전화로 나를 찾아 창작사동무들이 인물화창작을 위해 여기로 떠난다고 하시면서 부대에 도착하면 창작조건을 잘 보장해주라고 당부하시었소. 특히 우리 부대에 깃들어있는 장군님의 사적내용을 잘 알려주라고 강조하시었소.》

《부대에 깃든 장군님사적이요?》

한정민이도 리정철이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치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감개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몇해전 가을날에 있는 일이었소.》

…가을하늘은 높고도 푸르렀다.

푸르다못해 청자빛으로 채색되고있었다.

그 하늘아래 무연하게 펼쳐진 논벌에는 무겁게 고개를 숙인 누런 벼이삭들이 가을바람에 설레이고있었다.

봄철의 씨불임과 한여름의 꾸준한 성장을 거쳐 마침내 풍요한 결실을 이룩한 황금이삭들이 푸르디 푸른 하늘을 향하여 오늘 선군시대,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협동마을의 행복상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는듯싶었다.

바로 이 풍만한 수확의 계절에 부대에서는 주변협동농장에 나가 농장원들의 가을걷이를 돕고있었다.

라문철정치위원은 직접 프락포르운전대를 잡고 벼단운반을 하고있었다. 한낫무렵 군인들이 정성다해 가을한 벼단들을 프락포르에 가득 싣고 탈곡장으로 달려가던 그는 문득 차를 세웠다. 앞에서 군

인들과 농장원들이 길가로 뛰쳐나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고있기때문이었다. 그제서야 사태를 알아차린 정치위원은 프락포르에서 화다닥 뛰어내렸다. 걸어들었던 팔소매와 바지가랭이를 급히 내리우고 정신없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다가 황황히 달려와 인사를 드리는 라문철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정치위원이 프락포르를 다 모누만. 요즈음 정치위원동무가 농장벌에 나가산다더니, 논판에서 정치위원을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그저… 인민을 도우라는 장군님의 뜻을…》

라문철이 하는 말뜻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돕는다는것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위원처럼 행동으로 하는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행동이 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사업입니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당의 전략적무기가 아닙니까. 군민일치는 일심단결의 초석입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벼가울을 하다가 저마다 달려나오며 환호성을 터치는 군인들, 농장원들…

김정일장군 만세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내의바람으로 장군님을 우러러 환호성을 터치는 군인들을 향하여 손을 저어주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라문철정치위원은 넋을 잃고 우러르고있었다.

언제나 예지로 빛나는 안광이며 천지풍파에도 드눌지 않는 억센 기상과 력사의 광풍을 단매에 길들일 담력과 배짱으로 세계를 줌안에 넣고 굽어보시는 령장의 모습이 이 시각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정만을 베풀어주시는 만민의 태양으로 눈부시게 안겨와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순간도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만세소리는 여전히 먼 하늘가로 오래오래 울려가고있었다.…”

《난 그때의 그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거요. 영원히 말이요.》

그날부터 리정철은 창작전투에 달라붙었다.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기여이 보답하려는 그 각오는 잠도 휴식도 다 미루게 했다. 리정철이 드디어 군민대단결에 대한 인물화를 그려가지고 부대를 떠날 때 라문철정치위원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절절히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정철동무, 사장동무, 우리 부대장병들은 그날

의 장군님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소. 그 인자하고 태양처럼 환히 빛나던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소.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것이 나의 소원이자 우리 부대 전체 장병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요.»

6

《150일전투는 앞으로 12일 남았다.》라는 글발이 얼핏 차창밖으로 흘러지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12일.》 하고 조용히 뇌여 보시였다.

150일전투가 이제 결속단계에 들어선것이였다.

무엇인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것이 있었다.

《150일전투!》

지난해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퍼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의 호소에 전국의 근로자들이 떨쳐일어나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또다시 150일전투를 선포하시여 천만군민을 총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인 2012년까지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시고 자신께서 몸소 이 총돌격전의 앞장에 서시였다.

2012년을 향한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

이 2012년에는...

가슴이 자신도 모르게 뿔뿔해지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심중에서 무르익고있는 그 구상을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목표로 정하시였다. 그래서 오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또다시 한정민이네 창작사로 향하신것이다. 더는 미룰수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이제 그곳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 자신께서 구상하여오신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 성스러운 사업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시니 저절로 흥분됨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한정민이네 창작사에는 확실히 능력이 있었다. 그 성스러운 사업을 맡아할만 한 역량에 있었다. 문득 눈앞에는 한 미술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리정철!

그를 잘만 도와주면 이 사업에 참가시킬수 있을것이다.

승용차는 어느덧 창작사 정문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창작사에서 새로 형상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윽하여 리정철이가 창작한 인물화 《단풍계절에 꽃피난 군민일치》앞에 서시였다.

역시 믿던바대로 가을걷이에 펼쳐나선 군인들의

모습을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정철을 부르라고 하시고는 만족하신 눈길로 그림을 보시다가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인물형상은 저렇게 얼굴을 매력있게, 한마디로 눈맛이 나게 그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조형적으로 형상된 얼굴의 매력은 인간의 내적미와 외적미가 개성적으로 부각되었을 때 안겨옵니다.》

말씀을 멈추셨던 **김정은**동지께서는 달려와 인사드리는 리정철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얼굴형상에서는 작중인물의 심리, 성미와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적인 세부를 섬세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림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시여 인물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여기 군인들이 옷동을 벗어놓고 벼단을 운반하는 모습과 벼단을 실은 트랙포트에 앉아 조향륜을 잡은 군인을 보시오. 논둑에 옷과 모자를 질서있게 정리해놓은 세부는 절도있는 병사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군인을 보시오. 옷동을 벗고앉았지만 모자는 쓰고 흐뭇이 미소를 짓고있습니다. 모자에는 금줄이 보입니다. 분명 장령의 모습인데 아마 창작가가 그날에 만나본 정치위원을 형상한것 같습니다. 부대 정치위원이 농장의 벼단을 실은 트랙포트를 몰고가는 장면은 우리 인민군대가 인민을 돕는 일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는 화폭입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동무는 인물화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 한발자국 물러서서 이윽도록 그림을 보시다가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림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고나서 《군민대단결, 일심단결의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상은 우리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하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그림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다가 가르치심을 감격해서 적고있는 리정철을 돌아보시였다.

《이번 전연부대에 나가 창작하는 과정에 느낀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현실에 나가 참으로 느낀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것은 우리 군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였습니다. 정치위원 라문철동지는 부대에 찾

아오시여 것처럼 만족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장병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는 장군님의 것처럼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아니라 부대전체 장병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올리는 리정철의 눈에는 간절한 소망을 알리는 맑고 투명한것이 소리없이 고여올랐다.

《음.》

김정은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더욱더욱 정철을 보시다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다독이시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리정철은 긴장해서 그이의 뒤를 따랐다. 새로 창작한 작품들을 다 돌아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정민을 비롯한 창작사일군들과 창작가들앞에서 약간 젖은듯 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방금전에 정철동무가 옛 부대의 정치위원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고싶다고 하였던면서 그것은 부대 모든 장병들의 하나같은 소원이라고 했다는데 옳습니다. 이제에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나 군대와 인민들은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모습을 가까이 모시고싶어합니다. 그것이 전인민적인 념원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시기별로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는데 이제에는 우리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잘 형상하여 모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새롭게 형상하여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 언제부터 무르익혀오던 생각인데 나의 결심은… 2012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모시도록 하자는것입니다.》

《2012년까지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한정민이도 리정철이도 너무도 크나큰 걱정애 숨이 꺾 막히는것만 같았다.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태양처럼 환히 안겨왔다.

정녕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나 숭고한 뜻을 지니고계시는가. 온 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선군태양의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 마냥 부풀어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커다란 걱정애 휩싸여 가슴들을 들먹이는 정철이네를 보시며 믿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그 영예로운 과업을 바로 동무네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

한정민이도 정철이도 다른 사람들도 너무도 크나큰 영광애 숨을 훑 들이그으며 놀란 눈길로 서로 마주보았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싶었다.

《그럼 우리가 장군님의 태양상을…》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렇습니다. 동무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어기 정철동무도 이제 기량이 부쩍 늘었는데… 어떻게 습니까? 할수 있지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리정철은 것처럼 크나큰 믿음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겨우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헉— 하며 흐느낌소리를 냈다. 눈물이 저절로 왈칵 쏟아져나왔다. 그러면서도 그이께서 왜 자기를 그토록 관심해주시는지 그 깊은 뜻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리정철을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정말 잘 형상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처음 뵈었을 때 모두 울었는데 그것은 태양과 같이 환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잘 형상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내가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을 지금껏 품을 놓고 찾아보았는데 인차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실 준비를 해오신것이 아닌가.

리정철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시는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벽에 모신 병사들속에 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그럼 토론을 좀 해봅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어떻게 형상하면 좋겠는지…》

한정민이 리정철을 돌아보더니 얼른 한결을 나눴다.

김정은동지께서 리정철의 작품을 보고 치하하신일이 생각났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했으면 합니다. 천만대적도 벌벌 떨게 하시는 희세의 령장으로서 장군님의 위인상이 나타나게 하였으면 합니다.…》

모여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바로 올해 4월 인공지구위성 《광

명성-2》호의 발사를 앞두고 조성되었던 첩예한 정세가 떠올랐다.

미제와 일본놈들, 남조선피뢰들은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자 큰변이라도 생기듯 후닥닥 놀라면서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면 요격을 하겠다고 떠들었다. 일본놈들은 요격을 국책으로 선포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이 만일에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한다면 강력한 군사적대응을 취하겠다는것을 선포하게 하시었다.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다.

장군님의 이 배짱과 담력에 적들은 기를 잃고말았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요격하겠다고 조선동해와 공해상에 몰켜들었던 미제와 일본것들, 남조선 피뢰들의 함선들이 슬금슬금 꿈무늬를 빼고말았다. 그 통쾌한 일들을 가슴벅차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은 누구나 다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것이 웅당한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동무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습니까?》

《예?!》

한정민도 리정철이도 어안이 병병하여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 언제인가 리정철이 그런 그림을 보시며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다. 실지 그 누가 장군님께서 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뵈온적이 있단 말인가. **김정은**동지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언제한번 그런 옷을 입어보신적이 없습니다.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새겨져있는 모습은 잠바를 입으신 모습입니다. 장군님의 태양상은 그렇게 친근한감이 나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하는데서 원칙적으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나서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하고 모시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인 동시에 우리 전사들의 숭고한 의무입니다. 물론 태양상을 창작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2012년 4월 15일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초상화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 잘

해봅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정철의 손을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는 우리 장군님의 은정속에 미술가로 된 사람입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에 꼭 보답합시다.》

아! 이 사랑, 이 믿음... 정철은 목이 짝 메여올라 아무 말씀도 드릴수가 없었다.

×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하는 이 세상 가장 영예로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무엇을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축구요 탁구요 또 스케트요 하다가 그 모든것을 집어던지고 미술로 돌아앉았지만 나중엔 그마저 단념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영웅이 되겠다고 덤벼치던 산골군의 철부지소년이 오늘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아시는 당당한 미술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하는 이 세상 가장 영예로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큰 행운,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주 시간을 내시여 창작사에 친히 나오시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곤 하신답니다.

우리가 올린 형상안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잠바깃에 나타난 바느질자리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완전무결하게 완성시키려고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이렇게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완성되자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먼저 모시도록 하여주시었습니다. 지금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을 찾는 참관자들속에서는 정말 반향이 대단합니다. 참관자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앞에서 좀처럼 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아 강사들이 애를 먹을 때가 많답니다. 지난 2월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나오시여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것 보시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태양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습니다.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태양상을 늘 가슴속에 안고살고

청 산 리 !

위 명 철

이제는 정들어 너무 정들어
청산리를 우리는
우리 청산리라 부르고
고향집뜨락같은 포전을
우리 작업반포전이라 부른다

우리는 기계를 다루는 기양사람들
그네들은 땅을 다루는 청산별 농장원
우리 맺은 인연 하도 오래고 깊어
아버지세대들은 태를 묻은 고향인듯
우리의 세대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듯

우리가 왔다 청산별아 취득별아
넓으나넓은 별이 공장구내인듯
새해 우리들의 첫 상봉의 인사 받아다오
포전으로 나가며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는
그네들에게 보내는 전투적인사

노래만을 안고왔으랴
보아라 차판마다 가득 실고온것은
우리가 품들여 만든 영농기구
벌써 봄벌에 모내며 달리는듯
새것처럼 수리해온 모내는기계며 양수기들

눈덮인 농장벌에 솟는 거름더민
울가울에 포전에 솟을 로적가리인듯
산더미같은 거름더미우에 솟은
직장과 작업반의 표식을 보니
농장벌은 쇠물쫄는 공장의 구내인듯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제도 오늘도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
나라의 쌀독에 쌀이 넘쳐야
배심도 국력도 든든해지거니

우리 수령님 몸소 가꾸시던 시험포전인듯
수없이 찾아주시고
농장원이 되신듯 보름동안 농장에 계시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력사의 땅 수령님의 청산리!

대지는 눈속에 봄꿈을 꾸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엔 벌써 봄!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만풍을 안아올수 있다고 하신
전변의 땅 청산리!

아, 대원수님들 그리도 사랑하신 땅이어서
청산리뫼으로 기계를 더 생산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항시 우리 마음 닿아있는 청산리는
우리의 청산리 온 나라의 청산리거니

오, 청산리의 봄은 온 나라의 봄
청산리의 풍년은 온 나라의 풍년
1월의 청산별은 원수님 모신 10월의 광장인듯
점심참이라 로동자들과 농장원들
드넓은 벌에 흥겨운 춤판을 펼쳤구나

오! 청산리

싫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을 외면하면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 15일까지 위대한 수령님 태양상 초상화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꼭 모시도록 하자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풀릴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

속에 미술가가 된 이 아들을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 창작가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 삶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그분께 최대의 인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더욱 힘껏 일해주시시오.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기 위해 오늘도 초강도강행군길을 가고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환히 웃으실수 있게 일을 더 잘해나가자요.

2011년 9월...

아들 리정철 올림.

원수님의 리상

변 희 철

천만군민이 하나같이 뭉치고
천만군민이 한가정되어 화목하여라
로인들은 무병장수를 노래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젊은이들은 더 활기에 넘쳐
생활이 그대로 노래며 춤인 세상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나라의 국력은 백배천배 해
일터엔 행복의 노래
전야엔 오곡백과
바다엔 풍어의 노래 넘치여
일할수록 살기 좋고 풍요해지는 살림으로
어디 가나 울리는 로동당의 만세소리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철벽의 요새
높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아래
한손엔 낫과 마치
다른 손엔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천만대적도 눈아래 굽어보며
배심든든한 인민의 존엄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일떠서는 거리는 멋쟁이거리
새로 짓는 공장들은 공원속의 궁전
계절을 모르는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달려가는 스키장...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산은 산마다 푸른 산 들은 들마다 황금벌
땅속의 금은보화 땅위에 무지개 펼치고
땅우엔 어디 가나 황홀하고 눈부신 선군절경
대원수님들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조국
목숨처럼 안고사는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내가는 **김정일**애국주의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둘로 된 조국 하나가 되고
7천만 우리 겨레 몸과 마음 하나되어
동해와 서해를 날개마냥 펼치고
백두의 기상으로 세계를 향해 달리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이 행성에 우뚝 솟아 무궁번영할

아,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

눈내리는 저녁 창밖을 내다보며

리 성 애

언제나 눈내리는 저녁은
마음 흥겹더라
장식등의 불빛 밝게 빛나는 거리를
황홀하게 단장하며
눈내리는 저녁은 정서도 깊어라

천진한 소녀처럼 마음이 들떠
끝없이 끝없이 걷고만싶은 이 저녁
창가에 서서 밝은 거리 내다보니
내 마음 눈발너머 저 멀리
동북땅 항일의 전구로 달려가노라

눈앞에 선한 1939년 1월

항일의 대오를 이끄시고
조국을 향해 해방의 그날을 향해
우리 수령님 진두에서 헤쳐가신
고난의 행군길이 눈앞에 어려와라

눈뿌리 아득한 백설광야
해도 달도 눈속에서 솟고지는듯
백설광야에 내리는 눈은
왜 그리도 크고 무거웠던지...
추억의 자욱자욱 밝는 투사들의 모습이어

가도가도 끝이 없는 눈바다
중중첩첩 포위속을 뚫고

하루에도 수백리 눈길을 헤치며
천변만화하는 전술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신 그 나날

흔히 시인들은 풀뿌리를 씹으며... 라고
표현을 하여도
풀뿌리조차 키를 넘는 눈속에 묻혀버린
흑한속의 식량은 밀립을 덮은 생논이거니

굶주림... 추위... 피로...
때로는 얼어터진 나무에 기대여
선채로 희생된 투사들도 있었더라
자옥자옥 피가 고이는 행군길
자옥자옥 해방의 봄을 앞당기는 조국진군길이어

아, 따뜻한 창가에 눈이 내리고
사람들 포근한 정서에 잠길 때
생각해보시라 그 기쁨의 눈송이밑에
어떤 피어린 자옥이 있는지를
잠시라도 잊은적은 없는가

우리 수령님 백두의 눈보라우에서
천만고생으로 찾아주신 이 땅
피로써 마련된 이 행복
목숨바쳐 지키라 숨엄한 자각을 안겨주며

내 가슴에도 뜨겁게 내려앉는
눈송이 1월의 눈송이어!

1월에 부르는 노래

박 성 일

새해의 뜻깊은 1월
겨울철야영의 첫 기발을 올린
송도원기슭에서 우리 그러봅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자하신 모습과 함께
가슴가득 안겨오는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지금 이 시각 그 어디에 계실까
얼음 서걱이는 최전연의 바다길을
찬바람 맞받아 헤치십니까
북방의 바람세찬 공장구내길
아니면 그 어느 건설장을 걸으십니까

그 어디에 계시어도
아이들의 웃음 넘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줄 우리는 압니다

조국의 밝은 미래 펼쳐주시려
낮도 밤도 없이
고난도 시련도
달게 여기시며 헤쳐가시는줄
순간순간을 한해두해처럼 체험하며
심장에 새긴 우리들입니다

무더위 한창인 그날에도 또 오시여
개건된 그날엔
해쫂는 아침부터 축포 터지는 저녁까지
온 하루 아이들과 함께 계신 원수님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에게 신심과 락관을 주고
적들에겐 공포와 전율을 준다고
아이들의 웃음에서 큰 힘을 얻는다고 하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하신 그 말씀

원수님의 사색과 발걸음
혁명시간의 순간순간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시는
미래사랑의 시간입니다

창공에 날리는 야영기발을 바라보아도
흰파도 달려오는 바다를 보아도
흰눈 떠인 숲숲을 거닐어도
가슴에 넘쳐나는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

송도원기슭의 그리움은
온 나라 인민의 그리움
그 그리움은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
불타는 충정의 맹세가 되어
해쫂는 바다처럼 끓어번지나니

아, 경애하는 원수님 우러러
흰눈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아침처럼 싱싱한 마음으로
경건히 웃길 여미고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며 삼가 인사드리는
새해의 뜻깊은 1월입니다

태양의 별들이 사는 집

김 형 준

불수록 희한하여
만져보는 백가지
불수록 황홀하여
바라보는 천가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

부모없던 설음이
부모가 되었어도 그들로 남을세라
한생을 두고 그늘없을
친부모도 주지 못할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누가 부모없는 아이들이라 하라
하나같은 앵두불 반짝이는 별빛은
받아안은 사랑 누리는 행복이 타고난듯
늘어나는 응석 세차지는 장난에
보육원 교양원들의 웃는 눈물이어

폭신한 요람에서 꾸는 꿈도
하늘의 별도 골라잡는 꿈을 꾸라고
하늘천정에 반짝이는 엄마등 애기등
걸어도 활개치며 걸으라고
마당에도 잔디처럼 폭신한 주단

거울같은 자전거주로는
한생 가는 길에 꼭절없을 직선길
실내와 야외의 물놀이장은
물속엔 마른 돌이 없듯
한생을 행복에 젖어 살 사랑의 바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부모없는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월도 아이들을 위해 흐르게 하신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다 합쳐
원수님 안겨주신 원아들의 궁전이어

터전도 둘도 없는 명당자리
사계절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
바다속 통궁인듯 하늘의 별궁인듯
부모는 자식의 곁을 낳는다 하지만
여기선 아이들의 속마음도 다 보이는 집

낳은 정도 끝이 있고
키운 정도 끝이 있건만
한생을 안아 보살피며 키워줄 품은
시작도 끝도 아낌도 바람도 없는
원수님사랑의 품이거니

한량없는 사랑의 품을 두고
이 나라 인민들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어버이란 말과 글의 참뜻을
내가 온 세상을 향해 다 말해주었구나
평양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된
어제와 오늘의 력사가 빛발치는 집은
대원수님들의 천만고생이 피운 락의 꽃
원수님의 천만사랑이 피운 행복의 꽃
해빛도 골라 피운 태양의 화원이거니

아, 터전도 태양 가까운 명당자리
사회주의를 초석으로 후대사랑을 기둥으로 세운
높은 처마아래 미래도 깃들인 집은
원수님 하늘의 별도 골라 안겨주신
태양의 별들이 사는 집이여라

가 사

백두의 폭풍

최 주 원

천만산악 날아넘으며 백두에 폭풍치니
백만대적을 쓸어눕히던 빨찌산총성 울린다
백두의 폭풍이여 조선의 기상이어
나래쳐라 잠들줄 모르는 혁명의 숨결로

만리창공 치솟아오른 산정에 번개치니
사회주의를 결사보위한 선군의 우뢰 터진다

백두의 폭풍이여 조선의 기상이어
몰아쳐라 백승을 떨치는 조선의 정신으로

온 세상에 존엄 떨치는 백두산강대국에
천출명장의 발걸음소리 하늘땅 메아리친다
백두의 폭풍이여 조선의 기상이어
노도쳐라 세기를 이끌고 광활한 미래로

사과바다에서 끝없이 파도쳐오는 서정의 격랑

권선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몸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실지생활이 비껴있고 친숙한 생활감정이 담겨질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만리대양에도 그끝을 알리는 기슭이 있다. 아무리 기세찬 멀기에도 찾음이 있고 노호하는 바다의 격랑도 장쾌한 힘과 기상을 스스로없이 기슭에 맡기고 잠자기 마련이다.

그러나 쉽게 잠재울수 없는 충격과 흥분을 낳고 일렁이는 기쁨과 열정에 또 다른 걱정 of 멀기를 더해주는 바다가 있으니 이는 고산땅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이다. 철령이라는 지명이 안겨주는 심오한 사색에 사과라는 어휘가 주는 의미적느낌을 심어 류다른 바다의 거창한 화폭을 불러낸 여기에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비상한 감화력이 있다.

말하는 바다, 춤추는 바다, 노래하는 바다가 불러일으켜주는 심장의 언어는 끝없는 서정의 격랑으로 독자들의 가슴속에 파도쳐온다

형상적의미속에 새겨진 철학적발견

대상이나 현상에는 하나하나의 어휘가 내는 논리적의미외에 표상, 상상, 련상으로 감득되는 형상적의미가 있다. 때문에 논리적의미에 대한 감수가 대상현상에 대한 행철하면서도 정확한 인식을 준다면 형상적의미에 대한 감수는 그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불러내는 추억과 풍부한 상상력에 따른 정서적느낌을 강렬하게 해준다.

신비할 정도의 감화력을 분출시키면서 순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들어잡았고 노래의 사상 정서세계를 온넛으로 새겨안게 하는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가사형상은 시대의 숨결을 력사의 진리로 밝힌 좋은 본보기로 된다.

시대정신을 인민의 감정정서로 진실하게 구현한 노래는 비상한 견인력과 함께 선군조선의 위대한 현실,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래일에 대한 긍지로운 레찬으로서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다.

가사는 철령과 사과바다라는 평범한 말마디가 안고있는 논리적의미를 형상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에 의미깊은 정서적주장, 철학적발견을 낳았다. 우리 인민의 실생활과 력사적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확신된 진리가 담겨있어 스스로없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는것이다.

노래는 제목에서부터 철학적의미와 예술적형상의 감명깊은 사색을 풍만하게 안고있다.

철령과 사과바다.

두 언어, 두 대상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너무나도 커다란 정서적감동을 낳았다. 어휘가 안고있는 논리적의미로써가 아니라 어휘가 내는 형상적맛이 불러주는 풍부하고도 눈물겨운, 뜨겁고도 절절한 정서적느낌으로써 선군의 위력으로 나날이 풍요해지는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후련하게 펼쳐놓은 노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피어린 선군의 력사와 부흥하는 내 조국의 오늘이라는 심오한 철학세계는 바로 철령과 사과바다라는 소박한 어휘에서부터 거대한 력사적진폭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제목에서 벌써 노래의 사상적알맹이를 예상해주는 가사는 1절에서부터 철령아래 파수바다의 첫 기슭에 대한 예술적해명으로 전선지대 무릉도원이라는 웅심깊은 철학세계를 이끌어냈다.

고산이라 철령아래 출렁이는 파수바다
아름다운 백리파원 눈뿌리도 아득해라
가지마다 알알이도 구슬같이 맺힌 열매
전선지대 무릉도원 전선지대 무릉도원
그림같이 황홀하오

이는 하나하나의 어휘에 대한 논리적의미가 아니라 그 어휘에서 싹트고 깊어지고 절절해지는 력사의 순간순간에 대한 정서깊은 화폭의 되새김이며 끝없이 물결치는 추억과 회고의 가슴뜨거운 련상이다.

철령은 선군의 상징이다. 선군장정의 멀고 험한 길에 대한 추억의 갈피에서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철령이며 바로 그 선군길에서 철령에 철쭉꽃이 피는 봄이 왔고 철령졸업증이라는 시대어가 탄생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서 헤쳐가신 그 길로 억세게 따라선 인민이고 오늘도 잊을수 없어 되새기며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끝없이 오르고 또 오르는 마음의 철령이다. 그래서 노래도 많고 전설도 많은 철령이 사과바다와 어울려 선군승리라는 력사의 진리를 전선지대 무릉도원이라는 철학적발견으로 밝혔다.

생활속에 친숙해진 어휘, 론리가 아니라 형상으로 감득된 진리가 사상정서적감흥의 세계를 칠령과도 같이 높고 아아하게, 바다와도 같이 깊고 심원하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박아세웠고 펼쳐놓았다.

고산과수농장의 절경은 선군13경으로 조국청사에 눈부시게 기록되어있다.

칠령기슭에 펼쳐진 청춘과원이야말로 위대한 선군정치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이고 선군승리의 장쾌한 현실을 담은 산화폭이며 선군위업의 계승에 대한 역사적선언이기도 하다.

인민이 누리는 행복의 뿌리와 열매에 대한 노래이며 그 뿌리를 가꾸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며 행복의 열매를 익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격정이다.

그림같이 황홀하다는 경탄속에 깊어진 전선지대 무릉도원에 대한 철학적발견은 매 절가들마다에서 깊어지는 형상세계를 통해 그 정서적의미가 더욱 심오해진다. 매 절가가 안고있는 뜻이 깊고 절절한 정서적덩어리들을 하나로 짝 이어놓으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꽃핀 행복의 절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위업의 길에 나날이 새로와질 눈부신 황홀경을 오늘과 래일이라는 시공간의 뜨거운 격정의 세계로 펼쳐보인것은 절가들마다에서 반복형상되는 칠령과 사파바다라는 형상적의미의 위력이다.

2절에서는 《칠쫓꽃 핀 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천만송이 사파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이라는 의미깊은 형상으로 사파바다의 봄, 행복의 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심오한 문제를 해명해주고있다.

3절에서는 사파바다의 처녀들을 《사파바다 물결위에 춤을 추는 갈매기》로 형상하면서 《천지개벽 노래하는 선군세월 새 풍경》이라는 시어속에 역시 칠령과 사파바다라는 거창한 시대적의미를 깔아주고있다. 매 절가마다에서 반복형상된 칠령은 이렇게 그 하나만의 어휘가 지닌 의미로써가 아니라 선군이라는 가슴벅찬 역사적화폭에 대한 추억과 련상, 끝없는 상념의 세계로 독자들의 심장에 안겨들며 생활로써 인민이 체득한 진리, 생활속에 깊어진 철학적주장으로 밝혀지고있다.

4절에서도 칠령은 형상의 핵을 이루면서 그를 안받침한 사상정서적바탕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사전반에 줄기찬 정서적흐름을 더해주는 사상적알맹이로서 형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칠령아래 과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처와 목이 메네》의 전반구를 통해 오늘의 행복속에 사무쳐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의 행복으로 만대에 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

으로 승화시킨 4절에서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형상적주장으로 내세우고있다.

고산땅의 눈부신 전변속에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었고 칠령아래 사파바다의 절경속에 날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담아냈다.

시대정신과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이 노래의 구절구절에서 뜻깊은 사색과 풍만한 정서를 떠올린다.

선군이 펼친 절경에 대한 례찬, 선군승리의 오늘에 대한 당당한 긍지, 래일에 대한 희망넘친 확신이 바로 칠령과 사파바다라는 시어속에서 끝없는 서정의 격랑을 낳고있다.

형상적화폭속에 구현된 생활의 진리

생동하고 방불한 그림은 더없이 아름답다.

그래서 황홀경의 극치를 그림에 비기고 생동함의 경지를 또한 그림에 대비한다.

그림처럼 황홀한 사파바다가 그림처럼 생동한 시어를 통해 하나의 명화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자리잡고있다.

칠령과 사파바다라는 대상속에서 높고높은 선군의 령봉과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행복의 무릉도원이라는 철학적발견을 낳은것이 노래 《칠령아래 사파바다》의 특징의 하나이라면 또 다른 특징은 생활의 진리, 사상적알맹이가 구체적이며 생동한 화폭, 정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직관적화폭을 통해 예술적으로 해명되었다는것이다.

구체성과 생동성은 문학의 생명이다. 더우기 시문학은 풍부한 서정을 생명으로 하며 그 서정의 향기속에 생활과 감정이 습배고 사상과 정서가 흠뻑 풍겨나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려보임으로써 생동성을 보장하고 간결하게 함축함으로써 정교함을 가져야 하는것이 시문학의 일반적특성인 동시에 가사형상의 중요한 요구이다.

하나의 시적표현이 열마디, 백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하나하나의 절가들에 풍만한 생활이 흐르고 정서가 넘치며 심오한 사상이 깃들게 할 때만이 당정책적요구,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명작창작에서 전형화, 일반화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하나의 표현으로 선군장정의 장장 수만리길에 대한 심오한 사색을 불러내고 선군의 어چه와 오늘, 래일이라는 거대한 시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이어주며 하나의 화폭을 통해 약동하는 내 조국의 숨결뿐아니라 눈부신 발전과 비약을 안아보게 한다는데 가사의 혁신적성과가 있고 가사창작의 훌륭한 묘기가 있다.

1절에서만도 《출렁이는 파수바다》, 《눈뿌리도 아득해라》와 같이 생동하면서도 감각적인 표현으로 정서흐름의 물동을 보장하고있으며 《가지마다 알알이도 구슬같이 맺힌 열매》라는 표현으로 금시 맑은 이슬 머금은 생생한 사과알을 눈에 보는 듯 한 방불함을 주고있다. 《구슬같이》 맺히고 《그림처럼》 황홀하다고 함으로써 직접비유의 감각적특성이 잘 살아나게 하고있는것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감각적이며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형상의 생동성을 주는것과 함께 비유되는 어휘가 내는 감정정서적빛깔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상의 맛을 감미롭게 살리고있다. 《가지마다 알알이도 구슬같이 맺힌 열매》라는 표현은 사과나무를 직접 보듯이 보여줌과 동시에 《구슬같이 맺혔》다는 표현속에 습배인 가장 고귀하고 헌신적이며 성스러운 선군장정의 길이 안아온 행복의 열매라는 또 다른 형상적의미도 안겨주고있다.

《파수바다》와 《출렁임》, 《고산땅이 꺼지도록》 그리고 《사무치는 은덕에 목이 메네》와 같은 표현들에 환희와 약동하는 기운, 절절한 감정정서가 한껏 습배여 진실감이 충분하며 그 표현적효과가 비상이 높은것으로 해서 진짜 사과바다의 출렁임이 들려오고 고산땅이 꺼지도록 주렁진 과일대풍의 전변이 보여오며 이 절경을 펼친 은덕에 목이 메어 눈굽젓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뜨거움이 그대로 안겨온다.

2절에서도 《철쭉꽃 핀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천만송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철령아래에서부터 사과꽃향기가 막 풍겨나는듯 한 느낌을 강렬하게 해주고있다.

《사과바다 물결우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사과파는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이라는 형상적표현으로 천지개벽을 노래하는 선군의 새 풍경을 그대로 펼쳐보인 3절의 가사형상은 사과바다물결과 갈매기라는 상징적대비를 통해 사과바다의 이채로운 정서를 한껏 흥취나게 돋우고있다. 또한 《한들한들》과 같은 의성의태어를 리용한 표현적효과를 춤추는 갈매기와 바람에 날리는 꽃수건과의 대비적형상을 통해 더욱 높여줌으로써 선군의 새 풍경의 환희롭고 물동적인 정서를 더해주고있다.

또한 철령아래에 과일향기가 차고넘쳐 목이 메는것이 아니라 선군시대의 파수바다라는 절경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이 사무쳐와 목이 멘다고 노래함으로써 선군장정의 길에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한 애국의 세계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선군위업계승의 충정과 인민사랑의 전설로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절가마다에 흘러넘치는 생동하고 감동깊은 생활

정서는 구체적이며 섬세한 표현과 감각적인 정서로 충만한 시어형상이 주는 응답한 감화력이며 알기 쉽고 친근한 어휘의 감미로운 맛을 가사의 종자해명에 철저히 복종시킨 예술적형상력이다. 때문에 가사의 형상세계는 다양하고 풍만한 서정, 뜨겁고 열렬한 정서로 충만되어있다. 흥겹고 유쾌한 랑만의 정서도 있고 환희롭고 기쁨넘친 감정도 있으며 절절하고 격동적인 서정의 세계도 있는것으로 해서 가사의 정서는 다양하고 독특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삶의 터전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행복의 씨앗이 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만복의 열매로 주렁진 오늘의 내 조국의 눈부신 현실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가사의 사상정서는 이렇듯 환희롭고 뜨거우며 희망찬것이다.

사과바다에 대한 형상, 사과파는 환희와 기쁨에 대한 반영, 선군이 펼친 새 풍경에 대한 걱정의로가 한데 어울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전선길을 보여주고있으며 우리의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길의 자옥자옥을 안아보게 하고있는데 가사의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것이다.

격정을 안은 기쁨, 눈물속에 받아안는 환희를 생동하고 정서적인 화폭속에 훌륭히 구현하였다.

가사에서는 시가창작의 일반적요구인 기승전결의 원칙이 형상에 그대로 구현되어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의 서정미를 풍만하게 살려주고있다.

눈뿌리 아득한 파수바다에 대한 제시(1절)로부터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움터난 사과꽃(2절)에 대한 형상, 열매로 익은 사과를 따들이는 기쁨과 랑만의 정서(3절)로부터 고마운 이 은덕을 사무치게 절감하며 희망찬 태일을 확신(4절)하는 형상에 이르기까지 시적계기와 서정의 발전, 절정, 해결이 원만하다.

사과나무를 심어가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향기를 풍기기까지의 생물학적법칙, 자연의 순리에 인간의 사상정서를 체현시켜 출렁이는 파수바다가 불러주는 선군승리의 장쾌한 울림을 노래로 엮어냈다.

매 절가마다에서 《전선지대 무릉도원》, 《원수님의 은정속에》, 《고산땅이 꺼지도록》, 《에가 바로 부흥하는》과 같은 표현들을 반복강조해줌으로써 매 절가가 품고있는 정서적충격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가사의 사상에술적감화력을 더욱 우렁찬 메아리로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민족장단과 선물의 고유한 맛을 잘 살려 민족의 향취 또한 진한 노래의 구절구절이 우리 심장에 일으키는 세찬 격량은 무엇인가.

고산파수농장에 오시여 이 눈부신 전변은 머지않아 펼쳐질 강성국가의 휘황찬란한 태일을 확고히 예고해준다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교시를 되새

추억의 등판에서

송 명 근

첫눈이 내린다 송이송이
세포등판에 눈이 내린다
아득히 펼쳐진 기름진 풀판
새로 지은 집승우리
고기가공공장 젓가공공장과 새 역사의 지붕에
흰눈이 내리어 덮인다

언제더나
돌격대의 기발을 앞세우고 달려온 날
우리를 맞아주며 내리던 눈
오늘도 송이송이 내리어 덮은
세포등판의 흰눈세계
허나 덮을수 없는 우리의 추억이여

사회주의수호전투장의 낮과 밤
우리는 애초에 어깨에
삽과 곡괭이만을 메고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허공에 번쩍이는 삽날과 곡괭이는
서슬푸른 총창인듯
우리가 파낸것은 돌과 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우들이 묻은 폭탄이며 지뢰...

한치의 땅을 넓히기 위해
땀만이 아니라 피도 바쳤고

등판의 풀판에 니탄과 씨앗과 함께
한껏 풍성해질 래일을 심었거니
나는 듣는다
구름처럼 흐르는 젖소떼 양떼 염소떼의 울음
소리
산촌의 새 음악을

한눈에 다 담아볼수 없구나
말우에 앉아 풀피리 부는
방목공처녀의 아름다운 모습
우유며 고기 가득 싣고 등판을 내릴 탕동차들
농악소리 흥겨운 새집들이 경사

아, 세포등판
화쪽에도 다 담을수 없는 이 풍경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리상이 펼쳐지는
또 한쪽의 선군시대의 명화중 명화

오라 완공의 날이여
우리 흰눈의 백포자락 열어제끼리라
그러면 애국충정의 이 언덕
굵실굵실 물결쳐간 풀판과 풀판은
인민의 기쁨 실은 파도가 되어
넘실넘실 파도쳐오리라

기는 인민의 고마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

눈뿌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
며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야라고 하
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
희속에 비껴오는 강성국가의 눈부신 모습, 약동하
는 조국의 숨결을 취하도록 안아보는 인민의 긍지
이고 량만이며 희열이다.

철령에 시원을 둔 사과바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
지 않을 파수의 바다...

끝없이 잇달아지는 상념,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
과 열정을 섬세하고 감각적이며 생동하고 직관적인
화쪽으로 그림처럼 방불하게 펼쳐주는 가요 《철령
아래 사과바다》는 형상적화폭이 안겨주는 생활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새겨주며 이
나라 강산에 올려가고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에 기슭이란 없다.

고산에서 원흥으로, 북청에서 룡전으로 끝없이
잇대여지는 파수의 바다가 온 나라에 끝간데없이
펼쳐져 기쁨의 파도, 행복의 파도를 일구게 될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온다.

그 바다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행복의 물결기를
심장으로 맞으며 그렇게 파도쳐오는 행복을 서정
의 격랑으로 일으켜야 하는 우리 작가들의 붓이 아
닌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산을 이루고 대지우엔 금나
락이 파도쳐 설레고 철령아래선 사과바다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져 어딜 가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산
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천지개벽의 선군세월...

철령아래 사과바다에 기슭이 없듯이 행복한 우리
시대, 우리 생활의 바다에 흠뻑 적신 우리의 붓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것이다.



리 희 찬

책상에 마주앉아 이 감상문을 쓰고있는 내 나이에 말하면 욕심을 펴 넘어 머지않아 칠십고개라 인생의 가을철에 사는 로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나이에 감상문을 쓰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것은 한편의 가요에서 받아안은 큰 감명때문이었습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

이렇게 시작된 새로 나온 그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꼭 나를 두고 지은 노래같습니다.

...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우리 원수님께서 내 나라의 늙은이들모두가 마음 편하게 쉼어사는것이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그 노래를 들으시고 명가사에 명곡이라 그리도 만족해하시였을가 하는 생각에 이 늙은이의 가슴은 한량없이 후터웠습니다.

사실로 말하면야 노래의 첫줄에도 있다싶이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계절에 사는 로인들이 분명할진대 이같이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불품없는 락엽으로 날리어 고달픈 여생을 보내고있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옛 사람들이 늙음을 두고 《록음방초 좋은 계절도 락엽이면 불품없노라》하는 구슬픈 풍월마저 남기었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새 교장에게 방을 넘겨주고 정은 교정을 떠나던 날 바다가를 혼자 걸으며 이제 나머지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생

각을 하던 끝에 사회적인간으로서 모든것이 끝난듯한 허무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출퇴근도 따로없이 온종일 집에 들어앉아서 하루 세끼 머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머느리를 맞아들일때 한사코 반대했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무조건 그를 머느리로 삼아야겠다며 손을 잡아 우리 집 문턱을 기어코 넘겨온 마누라는 먼저 가고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내가 혼자 남아서 이제는 그 머느리의 손에서 여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고달파지는 마음이 생기는것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

나의 아들과 딸도 제 아버지의 이 심정을 벌써 짐작하고있었던가봅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벌써 얻어들었는지 우리 딸이 지령원을 하는 제 오빠를 찾아 무역항으로 달려갔답니다.

무선통신기를 들고 한창 입항지휘에 분주한 제 오빠를 불러내어 직광 들이댔던것 같습니다.

《오빠, 아버지를 이제부터는 내가 모실래요.》
《뭐?》

우리 아들 성길이는 보통때에는 늘 우스개소리도 잘하고 성품도 펴 유한편인데 그대신 어쩌다 한번 울뚝하기만 하면 무서운데가 있었습니다.

《너 정신있어? 네 시집살이나 잘하라.》

우리 딸 성숙이는 제 오빠와 달라서 비교적 조용한편이였지만 좀 고집스러운데가 있습니다.

《오빠, 나는 아버지가 눈치밥을 잡술가봐 그래요.》

《아니, 눈치밥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갈지 않은 소리야?》

《나는 뭐 모르는줄 알아요? 형님을 맞아들일 때 어머니는 찬성했구 아버지는 반대했다는걸...》

《너 지금 어느 고당년때 소리를 꺼내구있어?》

제 오빠가 또 한번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성숙이는 계속 종알거렸답니다.

《말은 안해두 형님인들 가슴에 안 땀혔었어요? 이젠 집에 들어와서 그 며느리의 손에 밥을 잡숫자니...》

《이게 정말... 너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는것처럼 하면서 이 오래비를 머저리루 보는게 아니야?》

《에이구, 오빠는 뒤에서나 큰소리를 쳤지 형님을 쥐진 못해요. 그 켜 형님을...》

《흥, 네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아버지를 조금이라두 푸대접했다가야 일이 나지, 일이 나...》

《어마나, 꽤나 일이 나겠다...》

《야!》 하며 제 오빠 성길이가 끝내 발끈했습니다.

《너 그따위 쓸데없는 걱정이나 들구다니겠으면 내앞에 나타나지두 말아! 집에두 오지 말구... 가라!》

《가겠어요. 가긴 가겠는데 아버지가 조금이라두 불편해하시는 날은 내가 모셔가는 날이라는걸 오빠두 미리 알구는 계시라요.》

후에 그들 남매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오누이의 사이에 그런 다툼질까지 했다니 자식들의 그 고마움과 기특함이야 어데 이틀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도 한가지만은 미처 모르고 사는바가 있었습니다.

딸의 잔정이 아무리 아기자기하고 아들의 효성이 아무리 극진하다 해도 그것만으로써야 이 아버지의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값높은 자격을 마지막까지 빛내주지는 못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같이 좋은 세상을 만나는 그 하나의 행운밖에는 다른 방도란 있을수 없을것이요, 자식들도 또한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부모들에게 아무리 효도를 하고파도 참다운 효도를 할수도 없을것입니다.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땅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

이 구절이 우리 늙은이들의 가슴을 그토록 찌릿하게 해준것도 바로 그때문인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 말의 참의미를 미리 다 알고 집

으로 들어왔던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리치를 다 알기까지에는 일을 놓고 집에 들어온 후에 아직 여러 날이 더 걸려야 했습니다.

×

고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첫날이 나에게서는 도리어 그렇게도 복잡하고 분주한 날로 될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성길이기도 그날은 집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을 나를 걱정해서 출근길에 나서기를 무척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빠끔히 열려진 문틈으로 아래방을 내다보니 우리 아들이 출근차림을 한채 내 밥상에 띄워놓은 밥보자기를 슬그머니 들춰보고있습니다. 우편통신원을 하는 우리 며느리가 내 밥상을 차려놓고 새벽에 벌써 신문배포하러 나갔거던요. 제 처가 오늘부터 시아버지에 대한 대접이 혹 달라지지 않나 몰래 엿보는거지요.

밥상에는 노랑게 구운 참가재미접시가 놓여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창난젓보시기도 있었습니다.

성길은 밥보자기를 도로 띄워놓고 또 무엇이 안심치 않은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벌써 이부자리를 걸었습니까?》

그리고는 이불장에서 베개를 도로 꺼내놓습니다.

《천천히 아침밥을 드시구 허리두 아픈데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편히 좀 쉬십시오. 이제부터는 점심에 혼자서라두 반주랑 꼭꼭 하시구...》

《오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출근해라. 늦겠다...》

아버지를 위하는 이만한 관심이면 자식으로서 제 할바는 다 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도무지 허리를 펴고 누워있을새나 있더라구요.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누군가의 찾는 소리에 얼른 베개를 이불장에 도로 얹어놓고 문을 열었더니 동사무장이였습니다. 우리 해안초급중학교 후원위원회 한 성원인지라 잘 아는 사이지요.

《아니, 사무장동무가 우리 집을 어떻게?...》

나는 서둘러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새 교장에게 학교를 인계하구 이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새 참수고가 꽤 많았습니다.》

동사무장은 가방에서 무슨 문서장을 꺼내더니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로보장금 수속을 해야했기에... 이제부터는 교장선생님의 생활비가 우리 동에서 나갑니다.》

아, 공로보장금이라!

집에 들어와서도 나라의 보살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그 고마운 혜택이 마지막까지 나를 품어 주고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곱이 축축히 젖어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장을 바래운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동진료소에서 호담당의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년로보장자로 다시 등록하고 건강관리를 보살피게 되었다면서 새로 병력서를 작성한다, 청진기로 진찰을 한다, 혈압을 두세번이나 다시 재어본다... 아마 한시간은 잘 걸린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우애가 150, 밀애가 100입니다.》

《고맙습니다. 내 나이로서는 정상이군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혈압도 좀 높아지기 마련이라는건 낡은 의학상식입니다. 이젠 우리 장군님과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이가 많은 로인분들두 120에 80으로 고정되도록 혈압관리를 잘해야 한다구 간곡히 타이르시였답니다.》

《그런 말씀두 계시오?》

나는 아직 모르는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또 종합식당 급양부원이라는 풍채좋은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갈매기식당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 첫날 개관식 식사에 전쟁로병들과 공로보장자들, 년로보장로인님들을 먼저 모시기루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초청장같은걸 한장 주고갔는데 워낙 교단에 오래 섰던 사람들은 될수록 식당출입을 삼가하는편이라 나는 그 초청장을 들여다보며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식탁번호가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안 오시면 한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귀에 쟁쟁한 이 말만 아니였어도 나는 가지 않았을수가 있었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 또한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점이 한두가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조선년로자보호령맹중앙위원회가 있고 우리 항구도시에도 그 산하의 기구들이 갖추어져있으며 《년로자보호법》에 따라 늙은이들의 편의와 사회활동을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는것을 내가 언제 들어나 보았겠습니까.

대접도 대접이려니와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는 점대원들과 로리사들이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서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는 이 옛 선생을 위해서도 한곡 눈물나게 불러주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속에 추억은 많아도
학창시절 선생님을 잊을수 없어라
은혜론 당의 참된 아들딸로
우리를 키워준 선생님 아 선생님
...

그날 나는 그 처녀들과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그냥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

집에 돌아오니 우리 며느리가 혼자 앉아서 만두를 빚고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식사가 좀 늦었습니다. 제 얼른...》

《아니, 아니... 내 오늘 새로 생긴 갈매기식당에 초청을 받아 잤댔다. 식당두 잘 지었구 대접두 잘해주더라.》

《그래요?》

며느리는 얼른 일어나더니 내앞에 끈이 달린 긴 주머니를 가져다놓았습니다.

《아버님, 제 이걸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게 뭘데?》

《꺼내보세요.》

차크를 열어보았더니 한발만 한 점철식납시대였습니다. 내가 언제 납시대라는걸 만져나 보았겠습니까.

거기에 단추같은것이 하나 달려있길래 엄지손가락으로 그걸 한번 슬쩍 눌렀더니 쉼— 하고 1단, 2단, 3단까지 단숨에 쭉 뻗어나가서 납시대끝이 벽에 척 닿는것이었습니다.

《어마나...》

우리 며느리가 아이때 송구를 좀 했다는지 날래게 몸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납시대가 제 며느리를 찌르는 불상사가 생길번 했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나를 쳐다보며 우리 며느리는 좋다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루 삼을 때부터 실통해하시더니 끝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내시자는게 아니예요?》

《하하, 정말 납시대 활촉으루 제 며느리를 찔렀다는 소문을 널번 했구나....》

나는 즐겁게 웃는 속에서도 저 며늘애가 제 가슴에 맺힌 그 아픈 사연을 제가 먼저 저렇게 룡삼아 우스개소리로 꺼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우스개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황차 이제는 일을 놓고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떠주는 밥그릇을 받기만 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가 지나간 그 일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할가봐 원심쓰는 가뜰한 심정을 담은 우스개소리라고 생각하니 나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일근해서 들어오기도 했겠다...

《창식 에미야, 내 한가지 묻자꾸나....》

《네? 어서 말씀하세요.》

《너를 머느리루 삼켰다구 기를 쓰던 로친네는 먼저 가고 한사코 반대하던 이 시아버지만 남았구나. 이자 네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하는 소린데 아직 두 그 고까운 생각이야 없어지지 않았겠지...》

그랬더니 글썽 이 머느리가 금시 새파래집니다. 정말 뜻밖이었지요.

《아버님, 그때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했던 말이지...》

《제가 다니던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케케묵은 학적부까지 싹 다 뒤져봤다는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였다.》

《거기에 저를 절대루 머느리루 삼지 말라구 씌여있더냐요?》

《허, 학적부라는게 뭐 그런걸 쓰는거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4점짜리가 수두룩하더구나...》

그 순간 우리 머느리가 참지 못하고 킁— 하더니 무릎을 치며 웃어댔습니다. 그렇게 또 능청스러운 데도 있는 우리 머느리랍니다.

《아버님, 아이때 저는 정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 꼴이 됐구요.》

《지금이 어째서? 체신소에서 학습강사까지 한다면...》

《호호, 아버님! 저는 그때 그 소리를 하는 우리 본가집 부모님앞에서두 오히려 아버님을 두둔했습니다. 아무렴 교육자의 집안에서 나같이 학교때 성적이 낮구 머리가 나쁜 머느리를 맞자구 할가... 하구 말이에요.》

나도 허허... 따라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더냐?》

《네가 그 집에 벌써 빠져두 단단히 빠졌구나. 허지만 고까운 생각을 안구 그 집에 들어가는것보다 이자 네가 말한것처럼 그런 리해를 안구 들어간다면 시집살이에서 랑패는 없을거다... 이러두만요.》

《그러니 그때 벌써 나를 리해했던 말이지...》

《그럼요. 그때는 그저 리해를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두 아버님하구 똑같은 생각이예요.》

《똑같은 생각이라니?》

《저두 이제 우리 창식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공부랑 한담에 머느리감을 고를 때는 아버님처럼 꼭 학교에 찾아가서 학적부를 뒤져보겠어요. 아마 3점짜리가 하나만 있어두 저한테서는 통과 못될거예요.》

나는 끝내 하하... 소리를 내어 웃고말았습니다.

우리 머느리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구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일부러 끄집어냈다는것이 이제사 분명해지더군요.

우리 머느리도 마음이 무척 가벼워진듯 한 눈치였습니다. 그는 낚시대를 다시 접어서 내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아버님, 그새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만시름을 놓구 도래굽이같은데 가서 척 앉아계십시오.》

《그래, 그래... 이 낚시대에는 물고기가 저절루 물릴것 같구나!》

《아버님두 부지런히 낚시질을 배우세요.》

《아무렴, 배우면 하는거지! 어려운 학문두 배울라니 낚시질 하나 배우지 못하겠니? 이제부터 생선국거리는 내가 다 말자.》

《호호, 그럼 저는 수산물상점에 당대 안 가두 되겠네.》

《그렇구말구...》

참말로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란한 낚시대가 나를 난생처음으로 거짓말시키는 물건작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내 낚시대에는 천상 고기가 물려야 말이지요. 옆에 낚시질꾼들이 빨리 채라고 해서 얼른 잡아채면 지내 빨랐다, 좀 침착하게 잡아채면 지내 늦었다... 이거야 어디 통 가늠할수가 있어야지요.

하루이틀은 그럭저럭 일없었는데 그것도 한주일 가까이나 빈 낚시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자니 우리 머느리가 꼭 내 손을 바라보는것 같은게 이것 또한 새로운 마음고생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산물상점앞을 지나오다가 예라, 나두 오늘 난생처음으로 거짓말이라는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그물구럭에 물고기 한 대어섯마리를 사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점에 글썽 나를 아는 판매원이 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원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될수록 상점에 들어가는것도 꺼리게 되는가 봅니다.

이 판매원이 나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골라주는 것까지는 고마운 일인데 눈이 둥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물고기상점에까지...》

《선생님은 뭐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단가. 허허, 사실은 내 오늘 물고기를 좀 먹구싶은데 우리 머느리는 시간을 내기가 꽤 힘든 일을 하네...》

판매원에게도 이렇게 적당한 거짓말로 넘기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구럭을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머느리는 너무 좋아서 손뼉까지 쳤습니다.

《어마나! 사람이 배워서 안되는 일이 없다고 말

쏟하시더니 끝내... 아버님, 그러고보면 낚시질이라는 것두 결국 이 머리겠지요?》

《그, 글썄...》

이쯤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물 구렁의 물고기를 버치에 담으며 계속 묻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데 가서 낚시질을 하셨나요?》

《어데긴 어데겠니? 늘 나가곤 하던 그 바다가 도래곶이에 가서 낚시질을 했지...》

《그런데 이 두마리는 민물고기인데...》

《음? 참, 오늘은 도래곶이에 안 가고 그 수천 강 다리목에 갔던가. 거기에 민물고기가 잘 물린 다구 해서...》

《그렇다면 아버님, 이 세마리는 바다물고기인데요.》

《음?...》

거짓말이 거짓말을 새끼친다더니 아무리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댔잖아 내 보기에도 내 말이 점점 더 아귀가 맞지 않아진다는 것이 험등히 알려 더란 말입니다.

내가 좀 바빠하는 눈치를 챘던지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는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긴 아버님, 물고기들이라구 서로 교류하지 않겠어요. 바다물고기가 강으루두 가구 강물고기가 바다루두 헤엄쳐가구...》

《됐구나. 바다물고기든 민물고기든 물고기야 물고기겠지 무슨 그걸 가지구 꼬치꼬치...》

그제야 우리 며느리도 입을 다물기는 했는데 수도가에서 물고기손질을 하면서 혼자 몰래 웃더니 물고기아가미를 들여다보고서는 또 혼자 웃습니다.

아가미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낚시에 찢기운 자리가 있을리 만무니까요.

거짓말이 등장난것만은 틀림없는데 이젠 그쯤하고 나도 이 고비를 씹쓰레 넘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성숙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고비를 그냥 넘기게 놔둬니까?

큼직한 물고기구렁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수도가에 척 놓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숫구싶어할 때마다 회두 친구 국두 끓이구... 오늘부터 물고기는 내가 펴구지 않겠어요.》

꼴이 어데서 좀 생겼겠는지 꼴병을 들고 우리 집으로 오다가 그 물고기상점 판매원을 또 만났던구만요. 제 초창때 동창생이었다는지...

《애, 성숙아! 너 뭐야? 교장을 하던 아버지의 손에 물고기구렁을 들리구...》

《아니, 그건 무슨 소리가?》

《방금전에 우리 상점에 와서 물고기를 사가지구 가셨단다.》

《뭐,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숫구싶은데 너의 형님은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에 다닌다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딸애의 입에서는 뻤뻤해진 소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란한 직장이다. 구역체신소에서 우편 통신원... 흥, 어쩌면 우리 아버지를...》

이쯤 되었으니 마당에 들어서자부터 말투가 고왔을리 있습니까?

《형님이 시간이 없어서 물고기상점에두 갈새 없다면 내가 다 말아요.》

우리 며느리는 눈을 끔쩍거리며 제 시누이의 옆구리를 꼭 찔렀습니다.

《원, 누이가 걱정하지 않은들... 이제부터 물고기는 아버님이 전적으루 도맡아서 보장해. 보라구! 오늘두 낚시질을 해서 이렇게...》

《흥...》

우리 딸은 여전히 앵돌아져서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그래 낚시질을 해서 잡은 물고기예요?》

《그렇지 않은문...》

《형님, 나는 수산전문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 내가 민물고기하구 바다물고기를 가려보지 못할것 같아서요? 글썄 요새 물고기들은 바다하구 강을 서로 왔다갔다 마을돌이를 하는지는 몰라두...》

이거야 어디 옆에서 보기가 아짜아짜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나도 한마디 참견을 했습니다.

《애, 성숙아! 민물고기면 어땡구 바다물고기면 어땡구 그거나 자꾸 캐서는 뭘하니? 국을 끓여먹든 된장에 지저먹든 물고기야 같은 물고기겠지...》

《아버지, 내가 모를줄 알아요? 아버지가 글썄 이제는 구렁지를 들구 수산물상점출입까지...》

우리 딸이 저는 뭐 목이 메어 합디다만 나는 벌컥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진땀을 흘리며 겨우 숨기고있는 이 《낚시질거짓말》을 끝내 뺄개놓고야맽니다.

그통에 나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갔지요.

《야, 너의 형님은 그걸 몰라서 속는것처럼 하구 저렇게 기뻐하는줄 아니?》

《네?》

우리 며느리도 아쉬운듯 주먹을 들어 제 시누이의 잔등을 가볍게 툅 쳤습니다.

《누인 뭐야? 아버님이 어쩌다가 집안에 재미나는 일감을 하나 말곤걸 깨어버리면서...》

그 소리에 우리 딸이 영문을 알아차리고 기가 좀 꺾이는지 얼굴전사를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바빠하는 눈치였습니다.

《야, 형님! 형님이 일부러 속는척 한걸 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런 때 보면 내가 좀 야한데

가 있지?》

나는 별치도 않은 일에 마음고생을 한것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 웃고말았습니다.

《사실은 먼저 큰소리를 쳐놓고 매일 빈 낚시대를 들구 들어오기가 내 좀 쑥스러워서 아이들처럼 한번 거짓말을 해본건데 무슨 큰 비밀이나 알아낸 것처럼 벅작...》

우리 딸이 이제는 변명하는데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빈 손으루 집에 들어설 때마다 혹시 형님의 눈치를 보는가 해서 가슴아파 그랬어요. 형님, 용서하세요.》

이상한건 우리 며느리가 또 이 소리에 맞장구를 치는겁니다.

《누이야 그럴수 있지 뭐. 내가 아무리 아버님을 잘 모신다 한들 누이의 마음만큼이야 하겠어요?》

나는 또 한번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애, 창식 에미야! 너두 시동생들교양에서 말은 바른대루 해야 한다. 잘못된건 꼭 짚어서 타일러두 주구. 출가한 딸이 며느리보다 제 아버지를 더 잘 모신다는게 뭘법이나 하는 말이니? 이 집만 봐두 그렇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너두 우리 집 식구였지 여전히 본가집 식구루 남아있는 건 아니였겠지? 우리 저 성숙이라구 다들바가 있겠니? 그래서 나는 잘해주나 못해주나 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구 살았지 제 딸의 손에서 찬밥 한 그릇 얻어먹은것두 없어. 성숙아! 너두 어쩌다 이 꼴병같은거나 하나 들구와서 제 형님에게 혼시질이나 할 생각을 하지 말구 네 시집살이나 착실히 하는게 좋겠다. ...》

우리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없이 우는듯 하였습니다.

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딸년들이야 어쩌다 본가집에 와서는 축새질이나 하다가 돌아갔지 이 집안의 크구작은 일을 혼자 다 맡아가지구 고생하는거야 형님밖에 ...》

낚시질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짓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잠시잠간 복잡했던 이 일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데서는 없었던것보다 오히려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그후 내가 책상에 마주앉기 시작한것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또 한차례 좀 다사스러운 일이 벌여졌었습니다.

직장에 나갔던 우리 며느리가 집에 잠간 들어왔다가 책상에 마주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눈이 둥그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님, 오늘은 날씨두 좋은데 왜 낚시질을 안

나가지구...》

나는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머느리앞에 낚시대를 내놓았습니다.

《창식 에미가 품들여 장만한 낚시대인데 잘 간수했다가 이담에 창식 에미에게 물려주어라.》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우리 머느리가 몹시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낚시질에 취미를 붙이면 시간가는줄두 모르구 또 그 이상 재미가 없다던데...》

《그래서 하는 소리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공부에 취미를 붙이기 힘든것처럼 나두 온종일 빈 낚시대를 들구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이거야 오금이 저려와서 어디 견디겠더냐. 창식 에미의 성의에 이거 안되긴 했다마는...》

우리 머느리는 웃음이 나는걸 겨우 참는 인상으로 능청스럽게 한마디 더 합니다.

《왜요? 아버님! 배워서 안되는 일은 없다구 하시더니...》

《이번에 나를 보니 안되는 일두 있더라. 물론 낚시질루 1등을 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로인들두 있구 장기를 잘 두어서 상을 타는 로인들두 있지. ...사람들마다 취미가 서로 다르구 소질두 제가꿈이니까. 헌데 나는 이렇게 책상에 척 마주앉아야 머리두 맑아지구 휴식두 되거던. ...》

《하긴 아버님, 저두 어느 책을 보니까 거기에 로화를 막는데서 운동중에 좋은 운동이 뇌수운동이라구 써여있었어요.》

우리 머느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원고지에 눈길을 떨구더니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야참 아버님, 제목부터가 정말 좋군요. <중등 일반교육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심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육형태>, 얼마나 질실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것의 하나가 칭찬을 받을 때 아이가 되는 그 기분인것 같습니다.

《그래, 창식 에미의 생각에두 내가 의의있는 문제를 잡은것 같으냐?》

《어마나! 이번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두 우리 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였는지 아버님, 제 한번 외워보랍니까?》

《어디 한번...》

그러자 우리 머느리는 두눈을 지그시 감기까지 하더니 단숨에 외워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대학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나는 입을 딱 벌리고 머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너 학습강사를 한다더니 그새 굉장히 발전했구나! 전문을 아예 통달까지 다 하구...》

《호호... 아버님, 제 해군군관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따라다니느라구 이 학교, 저 학교 전학을 너무 해서 그랬지 머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하... 그 말이 맞겠다, 그 말이...》

그날 나는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언제부터 한번 써보고싶어서 펼쳐놓은 원고였는데 뜻밖에도 머느리의 지지까지 받고보니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자료가 필요되는것이 있으면 인차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도서관이건 자료봉사소건 그어데 찾아가서라도 제가 꼭 물어오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또 머느리를 옥박지르며 집안을 부산스럽게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집에 들어왔으면 될수록 편히 쉬게 할것이지 무슨 자료까지 수집해다가 제공하면서 되지도 않을 무모한 일에 힘을 뽐게 하는가 하는 트집을 걸면서 말입니다.

그러던차에 어느날 새벽에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한가지 언질을 잡히는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이야 이것도 나때문에 생긴 사달이었지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가 한창 새벽산보를 하고있는데 우리 머느리가 신문통구리를 메고 어느 아파트 현관앞으로 총총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어찌나 급한 걸음을 걸었는지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까지 맺혔더군요.

《창식 에미!》 하고 나는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그 무거운걸 통채루 메구 20층이나 되는 아파트 꼭대기까지?... 그 현관에 나누어줄것만 들구 올라가려무나. 다른 현관에 나누어줄건 여기에 놓구...》

《그랬다가 혹 아이들이 다치기래두 하면...》

《내가 봐주지 않으리...》

머느리가 좀 홀가분해진 몸으로 현관에 들어서서 걸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듯 하더군요.

이때 내앞으로 출근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다가오더니 통신원이 어데 갔는가고 묻습니다. 그래 방금 이 현관에 신문배포하러 올라갔다고 했더니 시계를 내려다보며 몹시 초조해하였습니다.

《한참 걸리겠구만. 아버님! 제 저쪽현관 5층 3호에서 사는데 우리 집걸 먼저 하나 가지구 출근하면 안되겠습니까?》

《가만, 이자 5층 3호라구 했지요?》

《예, 2현관 5층 3호... 적어두십시오.》

《기억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아 들고 돌아서기도 바쁘게 또 두세명의 출근차림들이 내앞에 와서 사정합니다. 뒤편리를 도모해서 나뉘어져 있겠습니까.

헌데 출근길에 나섰던 우리 아들이 마침 먼발치에서 이걸 봤구만요.

《여! 아버지가 이젠 집에 들어왔다고 신문배포까지 시켜먹어? 예나 지금이나 교장은 교장이란 말이야. 돼먹지 않게...》

이쯤 격해졌으니 아무리 설명을 했댔자 어디 먹어들어갑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밥두 잘 안 먹구 제 색시와 말두 잘 안하면서 잔뜩 독을 쓰는판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내가 글을 쓰다가 머리힘도 좀 하는겸 소풍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책상우에 펼쳐놓은 그 원고를 보고는 또 한바탕 제 처를 몰아댔습니다.

《여보, 내 벌써 몇번째나 말했소? 아버지가 이제는 이런 괜한데 정력을 소모하지 말구 그저 편안하게 쉬도록 옆에서 잘 좀 보살펴드리라구 내 그만큼 말했는데두...》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잘 몰라?》

《어떤 로인들은 신문을 1면부터 6면까지 한자두 빼지 않구 마지막까지 천천히 다 읽을 때가 제일 머리가 거뜬해지구 휴식이 되더라구들 말해요. 우리 아버지두 책상에 마주앉아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보!》 하며 우리 아들이 끝내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자료, 저런 자료들을 잔뜩 메다가 아버지한테 안겨놓소?》

《그럼 여보, 이렇게 하자요...》

하는수없이 우리 머느리도 그날은 끝내 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논문원고를 우리가 영 치워버리자요.》

머느리는 어느새 벌써 책상우에 있는 나의 두툼한 원고를 옷장속에 깊숙이 감추어버렸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오히려 우리 아들이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여보,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서 찾을 때엔?...》

《어찌겠어요. 아버지를 꼭 쉬게 하자면 우리가 거짓말을 좀 꾸미는 수밖에...》

《어떻게 꾸며댄다? 하나 하면 둘 하는 우리 아버지인데...》

《좀 생각해보자요.》

하지만 저네들이 미처 생각할 새도 없이 내가 이때 《어험.》하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을

미처 꾸며내지 못한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나도 역시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원고가 어디 갔니?》

내 물음에 우리 아들의 눈길은 행방없이 허공에서 갈광질광하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담은 좀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좀 육먹을짓을 했습니다.》

《음?》

《도교육일군학교에 다니는 우리 본가집 남동생 말이에요. ...》

《거기 과학연구부에서 일하는?...》

《네, 아까 잠깐 들렀다가 그 원고를 보더니 손에서 놓아야 어찌지요? 가지구가서 마저 보구싶다구 어찌나 사정하는지...》

《마저 보구싶다구?》

그 소리를 들으니 꼭 선생님에게서 칭찬받았을 때의 아이적 기분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그 논문이 읽히워지긴 하던 모양이지?》

《읽히워지다뿐이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잡았다구 하면서 이 논문의 주제를 자기한테 넘겨주었으면 하는 비위까지 막...》

《당장 넘겨줘라!》

나는 단마디로 패히 승낙해버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의있는 문제라면 빨리 나가서 우리 젊은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혼자 좀 굵적거려본거지 내 이제 요란한 학자를 꿈꾸었겠니...》

큰 숨을 내쉬것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정탐영화로 말하면 위기일발의 순간을 넘기는 아찔아찔한 장면이라고 할지. 그 위기를 넘긴 주인공—우리 아들은 너무 기뻐서 내 손까지 잡습니다.

《아버지! 그게 좋겠습니다. 젊은 후비를 키우는 의미에서두 그렇구...》

속히우는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나는 또 나대로 좋았습니다. 그새 내가 헛공사는 하지 았았됐구나 하는 그런 긍지였다고 할지.

우리 아들도 아마 속으로는 제 처의 립기응변에 무척 감탄했을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우리 아들한테 하는수없이 지는척 했을뿐이지 이기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에 대한 말도 이 순간 불쑥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하고있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나의 그 원고를 가지고 제 남동생을 찾아가서 넘겨주기까지 하였지요. 무슨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넘겨주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고나서 교육일군학교 교장은 그때 교원들과 과학연구부 일군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했다는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장선생이 말아나서 집에 들어가서까지 걱정하고 있었습시다. 그리구 논문이 우리 교육실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생동한 레증들로 가득히 차있소? 우리가 제자로서의 도리를 봐서두 잘 도와드립니다. 선생의 생일에 술병을 들구 찾아가는것도 꼭 잊지 말아야 하지만 옛 선생의 인생말년을 빛내드리는데도 우리 제자들이 더구나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소. ...》

그로부터 얼마후에 나는 가슴 한복판에서 심장이 툭 튀어나올듯 한 뜻밖의 편지를 한장 받았습시다.

그것은 우리 며느리의 남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그것이 우리 새 세대 교원들에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논문으로 높이 평가되었다는것을 통지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우리 누님의 부탁을 받고 선생님의 논문에 손을 좀 대서 발표하려 했었는데 글 한자 보태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배우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논문을 선생님의 이름그대로 출판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

보십시오. 다들 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뿐이지 감상문에 이야기된 사람들치고 어느 한사람 나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나를 잠시라도 노엽힌 사람들 있습니까. 좋은 세상만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들조차도 좋은 세상을 만났으니 부모를 늘그막에 더 호사시키자는 마음에서 그런 우스운 오해도 생기는것이요, 얼굴을 붉히며 티가닥거리는 일도 생기는것이지 고달픈 세상에서야 일부러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싶은들 어찌 만들어낼수가 있겠습니까.

하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의 학위를 축하하는 제자들과 가족들의 모임에서 한마디 뜻있는 소리를 하긴 합니다.

《나나 내 녀동생의 효성만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말년을 이렇게 빛내드리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와서까지 학위칭호를 받을수 있던것도, 세월은 가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노상 젊어계시는것도 우리 자식들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할래야 할

삼지연의 맑은 물 외 2편

조 광 원

물이 사람을 울리기도 하는가
항일의 피어린 혈전장을 헤쳐온 투사들
아름다운 삼지연못가에 앉아
한웅큼 맑은 물에 흐느끼나니

꿈에라도 밟고싶던 이 땅
쓰러지면 났이라도 오겠다면 조국이어서
두볼을 적시는 눈물 오늘도 뜨거운가
군상으로 굳어진 투사들
두손에 고인것은 물이 아니라 눈물인듯

이 땅의 한웅큼 저 물을 위해
투사들이 흘린 피 얼마이더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아니구나, 투사들의 가슴속엔
조국의 한모금 맑은 물이
목숨보다 피보다 더 귀중했구나

이 땅의 흙 한줌 품고 싸운 투사들처럼
한모금 너의 물에 목메이며
내 그렇게 사랑해본적 있었던가
어머니 나의 조국을

나도 한모금 정히 마시니
생각깊은 이 가슴에
투사들의 삶은 별처럼 자리잡고
불굴의 그 신념은 뿌리되어 내리나니

조국의 귀중함을
이랑이랑 물결치며 전하는 삼지연아
내 인생의 먼길에 안고가려니
약해지는 의지는 너의 물로 버리고
티없는 마음은 너의 물로 씻으며
백두의 행군길 정보로 가리라

삶에 대한 생각

참다운 인생의 교과서처럼
내 읽어가는 구호나무들
한그루 또 한그루...
허나 어디에도 없구나
이 글을 남기고간 선렬들의 이름은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청춘도 가정도 다 바치고
그 어느 나무밑에 또 바위밑에
남모르게 묻혀있을 그 고귀한 생들
어찌하여 이름마저 남기지 않았는가

사람은 죽어 이름이 남기에
한편의 작은 글씨에도
이름은 적혀지고
세월의 이끼에 묻혀가는

자그마한 유물에도 이름은 남아있는데

후대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안고살
혁명의 만년재보를 이 땅에 남기고도
항일의 투사들
이름석자 남길 자리만은
누구도 찾지 않았으니

정녕 삶이란 무엇이던가
저 하나의 이름을 남기자고 산 생은
력사의 락엽밑에 묻혀버려도
태양의 존함만을 심장에 새기고 산
그대들의 생은
혁명선렬들이라는 고귀한 부름으로
영원히 빛나는구나

백두여 그대가 나를 세웠다

백두산, 백두산아!
내가 왔노라
쫓 쫓 밟구르며 오르고싶던
혁명의 성산아

침상을 박차고 이 마음
열백번도 더 내려쳐오르던 산정
틀어진 붓대를 천지의 물에 적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더치고싶었노라

집문턱을 한번 나서도
이 몸을 부축해온 벗들아
오늘은 비켜서다오
폭풍이 불고 우박이 날리는 이 산정에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서려다

여기선 나를 휘감던 그 모든 병마도
세찬 바람에 산산이 부서져 날려가고
딘고선 이름없는 바위조차도
두번다시 설수 없다던 이 몸을
산악같이 일으켜세우나니

생눈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백두의 행군길을 옷으며 헤쳐온
투사들의 불굴의 그 정신
오늘도 우리앞에 력력한 그 자욱자욱이
이 몸을 억척같이 받들어주는 혁명의 성산

보여주고싶구나
병사시절의 전우들에게
백두산에 오른 나의 모습
이 가슴에 차오르는 불사조의 정신
다시 일어서는 억세인 나의 새삶을

고마워라
선렬의 자욱 새겨져있고
수령님과 장군님 한생의 땀이 어려있어
한덩이 부석조차 가볍게 들수 없는 이 산정
폭풍속에 이 몸을 안아 세워준 은혜로운 품이여

내 오늘 여기에 올랐다고

그대의 아들이라 쉽게는 말하지 않으리
흐르는 세월속에 강산은 변해도
흰눈을 떠이고 변함없는 그대처럼
한모습으로 살기 전에는

내 한생을 산다면
그대 키워내는 신념의 천만산악
그 하나의 메부리가 되리라
당중앙을 받드는 마음 언제나 억척같이

순간을 산대도
백두의 번개가 되리
온갖 불의와 변심을 쳐갈기며
주저없이 내려쬐히는 서슬푸른 칼날이 되게

더 세차게 불어다오 폭풍아
한계절의 따뜻한 봄바람은
순간의 기쁨을 싣고 온다 해도
내 한생 안고살 백두산의 폭풍은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주거니

살리라
원수님 따르는 나의 평범한 삶에도
백두의 높이가 그대로 비끼게
원수님 받드는 나의 충정에도
티없이 푸르른 천지의 맑음이 그대로 어리게

내 한생 언제나
백두의 폭풍을 안고살려니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성산이여
오, 그대가 나를 일으켜세웠다!

가 사

더 높이 내려치자 조선속도로

리 권

백두의 붉은기 나래로 펴고
조선은 폭풍쳐간다
이 땅에 새겨진 원수님자욱
내 조국 진군길이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내려치자
조선속도로

그이가 가리키신 부흥강국이
내 조국 진군목표다
위대한 헌신의 힘찬 걸음이
내 조국 진군속도다

천하를 울리는 우뢰와 같이
세계를 놀래며 비약하자
조선속도로

위대한 령장의 선군길은
승리의 직선주로다
만복이 꽃피는 백두강국이
빛나는 우리 문패다
어둠을 밝히는 해빛과 같이
세계가 부럽게 솟구치자
조선속도로

터밭에 대한 생각

공 광 철

이 글은 지난해 가을 희한한 위성과학자주택 지구의 류다른 하나의 풍경에서 충동을 받은 것이다.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의 환희가 훈훈한 가을바람결에 아직도 떠도는듯싶은 10월의 어느날 나는 공원의자에 앉아 사색을 정리하고있었다.

《무슨 사색을 그리 하는가? 혹시 아직 완성못한 글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요?》

한 낮익은 로과학자가 퇴근길인지 나를 보며 웃고 서있다.

나는 그무렵 과학환상주제의 소설창작이 별로 진척이 없어 애를 먹고있던중이었다.

그는 내가 국가과학원에 현실체험 나와있는 두달 기간에 친숙해진 집적회로분야의 권위있는 과학자였는데 지내보니 얼마나 박식하고 정서적이며 부지런한지 몰랐다.

탐구자의 고뇌의 흔적인양 엮은 잔주름들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듯 한 칼칼하면서도 정열적인 눈매로 해서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같아보이지만 웬걸, 한두번의 생활상이야기로 대번에 친해진 고지식하고 후더분한 과학자였다.

최근 미소전자공학의 세계적추세로부터 국내과학기술발전실태, 우리 문학과 영화는 물론 농업상식에 대한 견해가 매우 깊었고 점심시간에는 젊은이들과 탁구도 치고 바쁜 연구사업하는 속에서도 두툼한 소설책을 볼 때가 적지 않은데 그중 하루 일과에서 드리지 않는 공정은 자기 집앞의 터밭가꾸기였다.

이른새벽이나 늦은 저녁, 휴식날의 여가시간에 자기 터밭에서 일할 때 보면 그야말로 부지런한 농사꾼같아보인다. 계절에 따라 마늘, 감자, 도마도, 오이, 고추, 가지, 배추, 무우, 파, 부루, 쪽갓들을 한치의 빈땅도 없이 차곡차곡 심었다가 먹고싶을 때마다 신선한 그대로 즉시 따먹기도 하고 뽑아먹기도 하는 그 맛이란 참... 비록 몇포기는 안되지만 강냉이도 심고 수박이나 참외, 해바라기도 심어가꾸다가 한여름철엔 온 가족이 모여앉아 뜻강

냉이도 즐겨먹고 귀여운 손주애들이 잔뜩 입에 게발린 상태로 다 익은 수박, 참외를 통채로 들고먹는 희한한 광경도 구경하게 해주는 터밭이다.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도 제격 풍성한 식탁을 차릴수도 있고 한해 김장남새는 조금도 걱정 안해도 되며 오히려 남아 이웃들에게 인심쓰기도 한다니 터밭은 얼마나 좋은가. 게다가 머리로 월급 운동삼아 일하니 건강에도 좋고 또 남새부산물로 여러마리의 토끼, 닭, 모르모트를 기를뿐아니라 남새밭판리의 기본인 터밭거름보장을 고리형순환체계로 해결해놓았다니 이 터밭이야말로 가정의 든든한 건강회복장소, 후방원로기지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헌데 이 애뜻한 가정후방기지와 헤어지게 되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이라는 세계를 놀래우는 거창한 전변이 일어났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력한 건설력량이 일곱달도 안되는 짧은 시기에 그야말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현대적인 과학도시를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현대적인 아파트들과 봉사시설, 공원사이에 넓게 차지한 잔디밭을 형성한 커다란 대형주택지구조감도를 보면서 로과학자는 생각했다.

(큰것을 위해 작은것이 좀 희생되는거야 당연하지.)

정들은 터밭과 헤어지게 된다는 약간의 섭섭한 마음은 있었으나 사실 그것은 희한한 주택지구에서 살게 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먼지날리는 건설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반적도시건설형편을 료해하시다가 살림집지구에 꼭 터밭들과 온실도 꾸려주라는 일군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 이튿날 매 세대당 20m²의 터밭이 차례지게 다시 그려진 조감도앞에서 뜨거운 걱정을 삼키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바로 그래서 현대적인 과학자주택지구에 세상에 없는 터밭이 생겨나게 되었다.

헤가 잘 들고 반듯하고 깨끗한 살림집마당에 시험포전마냥 규모있게 펼쳐진 류다른 터밭풍경!

입사하자마자 호미며 삽, 남새종자봉지를 들고 깨끗하고 반듯한 자기 터밭들로 모두 달려나와 뜨거움에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

《허, 그 작은 터밭이 그렇게 큰 터밭으로 될 줄이야...》

벌써 다음해 봄에 싹들 마늘종자를 다 박고 푸르싱싱 자라기 시작한 김장배추들을 바라보며 로과학자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속에는 편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작은 터밭이 큰 터밭으로 되었던 말이지요.》

《그렇잖구. 우리 과학자들의 그 작은 생활상심정까지 다 헤아리시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어린 터밭인데 어찌 작다고 할수 있겠나 말일세.》

내가 흥분되기 시작한 눈으로 로과학자를 바라보는데 그는 혼연스레 계속했다.

《작가선생도 알겠지만 이 덩실한 호화주택에 비하면야 이 작은 터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뭐라오? 오히려 현대주택설계에서는 이런 남새터밭 같은것은 애초에 상정조차 안되고있지 않소. 그런데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생활의 여가에 심심풀이로 관리하는 우리 과학자들의 이 작은 터밭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지대정리하기 전에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이런 말씀을 주셨겠소.》

두눈을 습벅이며 조용히 뇌이는 로과학자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자연히 깊어졌다.

새 거리와 함께 없어질번 했던 작은 터밭, 섭섭한감은 있었으나 그것을 당연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터밭,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으로 더 좋은 살림집양지쪽에 일매지게 꾸려진 터밭.

결국 하나의 작은 문제도 어떤 관점과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과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은 물론 마음속의 자그마한 섭섭한 생각도 다 풀어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한량없고 다심한 이 사랑, 이 은정!

새집으로 이사가는 기쁨 하나에 들떠있을 때 옛집의 애뜻한 가정생활정서에게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그토록 넘려하고계실줄 우리 어찌 알았으랴.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의 세계는 얼마나 뜨거웁고 무한대한것인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버섯연구소와 잔디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기술연구기지들,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그렇다, 맹렬한 과학탐구전이 벌어지는 과학자주택지구에 생겨난 작은 터밭, 그것은 정녕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은 물론 레사로운 하루일과와 취미, 가정생활정서도 세심히 알고계실뿐아니라 그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결정체이다.

바로 이런 위대하고 친근한 령도자를 아버지로, 스승으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과학자들은 신심과 용기에 넘쳐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사회주의조국은 조선속도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며 과학기술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치솟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부지중 로과학자의 두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런가, 나도 고맙네.》

로과학자는 이 작은 터밭을 소재로 해서 우리 과학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꼭 세상에 소리높이 전해달라고, 이것이 자기뿐아니라 전체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정색하여 말했다.

나는 뜨겁게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며 아름답게 펼쳐진 주택지구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알른거리리는 창문들의 멋쟁이아빠트들, 연해연방 웃음소리, 노래소리 흘러나오는 맑은 창가, 이채로운 원림록 화풍치를 보여주는 공원속의 작은 터밭들.

작은 터밭 아니, 저 큰 터밭에서 이제 얼마나 세상을 놀래울 과학기술성파의 알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것인가. 또 저 큰 터밭들이 펼쳐진 들판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확이 나며 저 터밭열매가 온 나라에 퍼지면 과학기술의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 내 조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강대할것인가.

나는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한 희열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야외라는것도 잊고 맨땅에 그대로 주저앉아 부지런히 창작의 붓을 달리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이 세상 가장 큰 과학연구사업과 생활의 터밭을 가지게 된 우리 과학자들의 행복과 긍지 그리고 강대한 조국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하여...

강선의 마음

김 학 룰

강선의 마음은
언제나 강철을 안고사는 마음
강철을 안고사는 마음은
언제나 1만톤의 강재를 더 없고사는 마음

강선땅 여기에선
상봉의 반가움도 강철로 더 기뻐지고
작별의 아쉬움도 강철로 더 살뜰해
강선과 강철 강철과 강선은 하나의 의미

강철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우리 수령님 해방년의 10월 9일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셨으랴

우리 수령님 전쟁의 포화는 밟았어도
화약내 풍기는 무너진 벽체에 앉으시여
재가루 날리는 강선의 마음에
강철기둥을 세워주신 땅이 아니더냐

강철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1만톤의 강재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줄 있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수령님

그 믿음으로 하여 강선은 언제나
1만톤의 강재를 목숨우에 얹고살아

심장의 박동도 《1만톤을 더!》라고 웨치고
시계의 초침도 《1만톤을 더!》신고 뛰고

계획을 훨씬 넘쳐한 자랑우에
1만톤의 강재를 더 없어 만족 모르고
계획을 못한 퇴근길의 발걸음은
량심의 빔되어 1만톤 강재의 무게로 무겁거니

1만톤의 강재를 가슴에 품고살면
총포탄도 뚫지 못하는 신념의 강자가 되고
1만톤의 강재를 스스로 짊어진 걸음은
천리길도 한걸음마냥 웃으며 가거니

수령님의 믿음 1만톤의 강재를
보답과 의리의 무게로 받아안은 가슴들이
하루에 천리도 지척인듯 달리고달려
천리마의 고향으로 된 강선이여!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을 혁명의 길에
한그람도 떨어서는 안될 수령님의 1만톤은
원수님 따르는 혁명의 길에
대를 이어 넘겨줄 강선의 바통이거니

오! 강선의 마음은
수령님의 믿음 1만톤의 강재를
이 세상 억대재부와도 아니 바꿀
신념의 산악으로 안고사는 마음이어라!

포구의 밤에

함 영 주

포구의 처녀야
이밤 새기 전에 더 빨리 퍼내여다오
배머리가 폭 숙어지게
어창가득 잡아온 물고기

쉬라니 웬말이나
네가 사랑하는 《바다만풍가》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네 동해엔

눈내리는 1월도 풍성한 가을
한초가 새로운 수확의 계절 아니냐

듣느냐 기동선동대의 저 나팔소리를
출격을 앞둔 함선에 포탄을 싣듯
연유도 가득 그물도 빈틈없이
우리는 또다시 출항준비를 갖추다

밤바다의 물결도
어서 가자 처절씩
이 가슴을 두드리는듯
이랑이랑 배전을 쳐서인가

금시 새날의 려명이 동트는듯
어장으로 어장으로 향한 마음
끼룩끼룩 잠든 갈매기무리 날리며
배고동소리높이 파도를 누벼가려니

《단풍》호의 통장훈에
보란듯이 화답했던 우리가 아니냐
가공은 넘려말라던
갈마식료공장 녀인들의 목소리
이밤도 배전에 뜨겁게 실려온다

콘베아여 기운차게 돌아라

날뽕기 전에 어장을 타고앉아
펄펄 뛰는 물고기 한기망 더 퍼올리련다
한초라도 시간을 앞당겨다오
당창건 70돐 승리의 축전장에
풍어기 날리며 들어설 우리 아니냐

아, 명사십리 저너머
수평선우엔 어둠이 드리웠어도
원수님의 신년사 구절구절 새겨안은
동해의 어부 우리의 가슴속엔
10월의 그 아침만이 자리잡았거니

저기 장덕섬등대도
승리의 축포 터져오를
환희의 그날에로 우리를 부른다
포구의 처녀야 만선의 이 기쁨
어서 빨리 퍼내어다오!

나의 소원

리 명 학

소원이란 무엇일까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소원일까

열일곱나이에 혁명의 군복 입고
손에 총을 잡은지도 어언 수십년
이제는 제대될 날이 다가오건만
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최전연구분대들과 섬초소까지 찾으시여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마다
더없이 간절해지고 그리워지는 이 마음

언제면 나도 그런 행복 지닐까
잠 못드는 밤들에 돌이켜보면
나의 한생에도 몇번이나 있었더라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찍을 영광의 순간들이

허나 후방일군이었던탓에
언제나 부대와 멀리에 있었더라
병사들의 병실을 덥혀주고

병사들의 식탁을 풍성히 차려주려고
출장길에 부업지에 있었나니

내 얼마나 부러웠던가
위대한 령장들을 만나뵈온 병사들이
엇그제 입대한 신입병사까지도
아득히 돋보이던
잊지 못할 날들이여

아, 세월이 흐를수록
소원은 커만 가고
어깨우에 별이 무거워질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속에
자나깨나 불타는 소원으로
세차게 고동치는 나의 심장

꿈에도 나는 듣노라 뜨거운 그 속삭임소리
소원이란 소원이란 바라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뜻으로
심장을 다 바쳐 살며 일할 때
꽃피고 열매를 맺을것이라고



돌배 향기

김 성 희

창성이깅들이 아름답리로 짝 들어찬 산판으로 갱목을 실러오는 대형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 차들을 맞는 최명룡감독원의 갱핏하면서도 곱살한 녀성적인 얼굴엔 푸른 숲을 키워낸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최감독원동지, 오늘은 백립방입니다. 문제없을테지요?》

운전칸에서 닝큼 뛰어내리며 흐뭇해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주성이었다. 어데선가 돌배향기가 짙게 풍겨왔다.

일부러스럽게 코를 벌름거리며 참기가 힘들다는 인상을 해보이는 옛날 조사의 응석기쉬인 너스레에 최명룡은 건뚝 손을 들어보였다. 백립방도 문제없으며 폭 익은 돌배도 다 있다는 자신있는 태도였다.

문득 그들의 눈앞으로는 20여년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1

《아니, 최동지! 삐죽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제 뭐예요? 이제 두탕만 제끼면 분기갱목끝기계획이 다 끝나겠는데…》

담당림에 대한 이동작업이 제기되었을 때 최명룡이 제격 응해버리자 조사인 주성이 어이없어 해대는 소리였다.

《뭘 그래? 우리가 맡은 산림인데 한번쯤은 땀을 좀 바쳐야 하지 않을까? 갱목끝기계획이야 거기 갔다와서도 능히 앞서나갈수가…》

《헐, 내 최동지숙을 모를줄 알구요. 시내 처녀들은 거들떠두 안 보구… 한사코 운흥리처녀를 마

음에 두구 부득부득… 단념하랴요. 알아보니 그 산림감독원령감이 홀아비래요.》

《홀아비?… 그건 그렇구 운전사를 하다가 왜 산림감독원으로 갔다는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숲이 번대머리가 되는데 싫다면서 자원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뭘, 뭘?》

최명룡은 꿈쩍 놀래였다. 그사이 주성이는 운흥리처녀의 내막을 어지간히 알아둔 모양이었다. 운흥리처녀란 운행길에서 짐을 맡아 실어준 인연으로 우연히 알게 된 처녀였다.

차를 몰고 담당림으로 가는 동안 주성은 산림감독원에 대한 말만 늘어놓았다. 리도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리도령》으로 통하는령감이 운흥리산판에 불자부터 산림이 푸르러지기 시작했다는것,령감은 홀아비로 지내면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얼마나 영특한지 산림을 지키는데선 한몫한다는것,최근에는 체신소에서 일하던 딸까지 데려다가 자기후임으로 세웠는데 아무래도 산판일이 녀자한테 맞지 않아 다른 대상을 물색한다는 등… 끝없이 늘어놓는 주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명룡은 자기도 모르게 낄숨을 길게 내불었다.

아바이두 참, 산판일이 뭐 그리 중요해서 자동차를 내놓고 산림감독원이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읍기관에서 일하던 딸까지 끌어들일건 뭐구?

《아니, 한숨은 웬 한숨이에요? 그 처녀와 인연이 깊어진것도 아닌데…》

최명룡은 그저 입을 다셨다. 주성이는 왜 그 처녀만을 마음에 두고 그러는가 하는 질책인데 누이동생이나 어머니는 운흥리에 나무를 심으러 갔다와서는 꼭 그 처녀와 락착되길 바라는것이였다. 뭘

너자는 녀자들이 잘 안다면서 덮어놓고 꼭 만나보라고 성화를 먹였다. 최명룡은 때마침 제기된 운흥리담당립에 대한 이동작업에 군말없이 나섰다. 뽕도 따고 님도 불썬이었다. 최명룡의 이런 속궁리를 모르는 주성이 때아닌 이동작업에 두덜댄 것이었다.

차가 운흥리산판 검정골어구에 들어섰을 때 개짓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어데서 나타났는지 꼭 늑대같이 생긴 큰 개가 길길이 뛰어오르며 울창한 산판의 위세를 부쩍 돋구었다. 이어 무슨 일을 하겠는지 온몸에 흠칠을 한 아바이가 꺼꺼부정해서 나타났다. 늑수그레한 아바이는 손세를 쳐서 개를 순하게 만들었다.

《조용해, 〈번개〉! 음… 내 입자네 사업소에다 통질했었어. 빨리 산불막이선을 쳐야 해. 이 봄바람이 불안하더니까. 그동안은 불편한대로 막에 같이 있자구. 마침 딸은 출장중이니까.》

늘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무런 허두도 없이 제 말만 늘어놓는 아바이가 몹시 데설곳고 뻑뻑해보였다. 아바이는 차까지 끌고 나타난 두사람의 출현이 못내 만족스러운지 몸을 들썩거렸다.

《18호라? 사업소차겠지?》

《그러문요.》

최명룡은 아바이도 한때는 운전사였다는것을 상기하며 막이라고 한 거처지를 살펴보았다. 하르르한 창가림천이 한쪽으로 밀리운 피창을 통해 재굴 재굴한 봄별이 새노란 꽃무늬바닥을 윤기나게 내리비쳤다. 가구라고는 별로 띄우지 않는 방안에는 소나무웃초리를 잘라 맵시있게 손질한 옷걸이가 걸려있어 산촌의 특이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말이 막이지 듭쭙 몸을 담고싶도록 아늑하고도 깨끗한 살림방을 대하는 순간 그 처녀의 얼굴이 피끗 지나쳤다.

《출장은 어데 갔습니까? 딸 말입니다.》

최명룡은 간막이를 해서 부엌으로 쓰는 다음방을 휘둘러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산림연구소에… 산림개조설계를 비준받자구. 아마 대엿새 걸릴거야.》

아바이의 어조에는 은근한 자랑기가 스며있었다.

《대엿새요?》

최명룡은 놀래었다. 산림에도 개조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그 일로 처녀를 보지 못한다는 공교로움이 그의 곱살한 얼굴에 어리었다.

《일이 바쁠 땐 집에까지 갈것없이 여기서 지낸 다네. 차는 저기다 세워두게.》

공지를 가리키던 아바이는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투박한 손으로 자꾸만 어루췄었다.

《자네들 룡마를 탄것 같겠군. 23호도 무사고주행을 하나?》

《그럼요. 차가 낡긴 했지만 관리하기에 달렸지요. 아직도 몇해는 문제없을겁니다.》

《그으래?》

흥미진진한 눈길로 차주위를 돌아가던 아바이가 갑자기 멈칫했다.

《원, 저런… 여태 저걸 못 보다니…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아바이가 허리춤에 찻던 손도끼를 뽑아든채 걸음발을 빨리했다. 이깎나무를 타고 오르는 머루덩굴을 발견한것이였다. 가차없이 손도끼를 휘둘러대는데다 대고 주성이가 바쁜 소리를 내질렀다.

《아, 그건 머루덩굴이 아닙니까?》

《이건 꽃발에 난 독초나 같은걸세. 저걸 보라구.》

아바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머루덩굴이 얼마나 거센 힘으로 이깎의 웃초리를 잡아당겼는지 우듬지가 활동마냥 휘여있었다.

《그래두 놔두면 머루가 주렁질텐데요?》

《원, 머루라구? 여긴 갱목을 키우는데야. 갱목은 굳고 곧은게 특징이 아닌가!》

최명룡과 주성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민출하게 솟아오르는 이깎숲속을 더듬었다. 단정하고도 수려한 모양으로 승벽내기로 솟아오르는 이깎나무들을 흠족하게 둘러보던 아바이가 부지중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한 20년전에만 서들렀다면 입자네들이 양덕이나 신앙으로 갱목을 실러다니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건데… 제 산은 놀리고 사람도 차도 고생이 아닌가. 산을 미리 가꾸었다면 앓은장훈이를 힘껏 쳐보는건데…》

《한데 이 산림신세는 언제 지게 됩니까?》

최명룡이 마른침을 삼키며 물었다.

《인차 속음베기를 하러 탄부들이 온다네. 3년전에 팔뚝만큼 굵은것들을 속음베기해서 소공구감으로 보냈었어. 10년생이 된 이것들은 울리굴동발로선 딱 적합한거네. 새 탄발이 자꾸 늘어나 동발목수요는 높아가는데… 참, 입자네들한테 내 좋은 걸 맛보이지.》

갑자기 생각키운듯 아바이는 제잡담 즐거워하며 막안에 들어가 웅배기를 들고나왔다.

《야, 이게… 만두가 아닙니까?》

주성이가 환성을 울리며 입맛을 다셨다.

《만두래도… 별특한걸세. 맛보게.》

아바이는 왜서인지 웃기부터 하더니 말을 이

었다.

《이들전에 소낙비가 되게 내렸지. 봄비치고는 큰비였어. 번개를 치며 억수로 쏟아졌는데 벼락이 돌배나무를 쳤거던. 나무에서 비를 굶던 메세들이 땅바닥에 한벌 쪽 깔렸대네. 아마 임자네들이 온다는걸 안 모양이야. 그걸루 고기만두를 만들었는데… 먹을 때 허건사를 잘하라우.》

아바이는 노릿노릿하게 구워진 만두옹배기를 앞으로 쑥 밀어놓았다. 속이 출출하던데다 생각지 않던 특식이어서 둘은 떡합지를 마주한듯 너푼 주저 않았다.

《새고기만두야 보기 드문 특식이지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소하고도 달큰한 고기만두가 입안의 침을 말짱 말리는상싶었다. 연방 입에 가져가던 주성이가 별안간 입을 싸끈채 이마살을 좁혔다.

《허를 깨물었나?》

최명룡이 묻는데도 주성은 병싯한 입만 우물거릴뿐이었다. 뒤따라 최명룡이도 주성이모양을 하고말았다. 입안을 찌르는 잔뼈의 침질을 세계 당한것이었다.

《내장만 빼고 탕친거니 그럴수 있어. 새고기만두야 그런 맛에 먹는거지.》

허건사를 잘하라는 아바이의 말을 단순한 의미로만 들었던 최명룡은 조심조심 입을 놀려 잔뼈를 골라내는데 주성은 찌뵈한 인상으로 아예 물러앉고말았다. 그러기를 기다렸다는듯 아바이가 한걸음 다가앉았다.

《자, 임자네들… 그럼 이젠 나를 도와줘야겠네. 저기 개바닥흙을 한차 실어다주게나. 눈석이물에 나무뿌리가 다 드러났는데…》

《안됩니다. 우린 그럴새가 없습니다. 우린 담당림의 산불막이선부터 해제껴야 합니다.》

주성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은 이동작업인데다 고기만두때의 불쾌함과 자기들의 의사는 물을넘 앓고 무작정 내리먹이려 드는 아바이가 못마땅해서 거절하는 말을 황급히 골랐다.

《됐어… 빨리 발동이나 걸라구.》

최명룡이 제때에 주성이의 옆구리를 찔러 주의를 주었다. 주성은 자기 운전사를 언짢게 보느라싶더니 곧장 차로로 다가갔다.

리도영아바이는 거연히 서서 차를 내려였다.

부식질이 팬찮아보이는 개바닥옆에 차를 세웠을 때 주성은 불평을 쏟으며 불그락푸르락거렸다.

《최동지, 우리야 산불막이선이나 끝내면 퇴장인데… 첫날부터 아바이장단에 춤추잔 말이예요? 형, 그 잘난 새고기만두에 제 일을 다 잊었군요.》

《뭘그래? 이렇게 산판에 들어왔을 때 한가지라도 제끼면 좋지 않아. 여기서 차신세지기도 힘들텐데…》

《형, 아바이가 말하는걸 들었지요. 우리가 뭐제 수하의 사람들이라구 이래라, 저래라… 이제 밥까지 해서 섬기라고 할거예요.》

주성은 어이가 없다는듯 또 한번 코김을 세계 내 불었다.

적재함에 무둑하게 실은 개바닥흙을 부리려고 가니 아바이는 반나마 뜯어낸 큰 바위를 타고앉아 줄줄이 흐르는 땀을 훔치며 신발을 꺾매고있었다. 반뽕짜리 돛바늘을 꼭꼭 틀어박는 모양이 퍼그나 익숙된 솜씨같았다.

한옆에는 함마로 까낸 크고작은 돌들이 산을 이루었다. 최명룡은 돌산을 여겨보며 물었다.

《아바이, 이젠 뭘 할겁니까?》

《저게 보이질 않나. 벼락을 맞았다는게 바로 저나무일세.…》

리도영은 앞쪽을 가리켜보였다. 수십년의 나이를 헤아리게 하는 돌배나무가 비탈을 의지해 서있었는데 한켠으로 뿌리를 다 드러내고있었다. 그옆에는 잘리운 우듬지가 덩굴었는데 몽실몽실한 꽃몽오리들이 오종종하니 매달린채로였다.

《아바이, 신발이 해졌군요. 바꿔신읍시다.》

최명룡이 아바이곁에 성큼 다가앉으며 운동화를 벗어들었다. 리도영이 덴갑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만두게. 산판에선 그저 이 로동화가 젤일세.》

그리고는 변명조로 한마디 뇌이였다.

《이제 며칠후면 새것이 생길거야. 우리 딸이 그냥 오지 않을테니까…》

아바이가 딱 자르는 바람에 최명룡은 운동화를 도로 신으며 먼구스러움을 털썩으로 돌배나무가지에 오종종한 꽃몽오리에 시선을 보냈다. 주성이라도 그의 눈길을 쫓아 돌배나무가지를 여겨보다가 시들해서 건넸다.

《열매는 보잘나위없는데… 꽃은 호합지게 멋있군요.》

최명룡은 두덜거리는 주성의 말을 흘리며 아바이의 일을 가늠해보았다. 아바이는 뿌리가 드러난 나무에다 흙을 채우고 그밑으로 돌담을 둘러자는 의도같았다.

최명룡은 깊이 더갈라진채로 탈리위울라 우툴두툴하게 거칠게만 보이는 돌배나무와 제 혼자서 큰 일판을 벌려놓은 아바이를 아연한 눈길로 보았다. 촌촌하게 심어져 민촌하게 솟아오르는 잣나무, 이

깎나무에 대조가 되는 돌배나무는 신통히도 아바이를 런상케 했다.

《아바이, 이젠 무슨 나뭇나무니까?》

최명룡이 새삼스레 묻는것은 돌배나무가 뭐 그리 귀한 나무여서 그렇게 큰 품을 들이겠는가 하는 소리였다.

그 힐난을 아바이가 모를리 없었다.

《이제 무슨 나무든 내 관할구역에 서있질 않나. 이 자연림이 인공림으로 개조될 때까지 아무 일 없어야 해.》

아바이는 최명룡의 힐난이 노여운듯 툭 씩붙이고는 두사람을 돌아보았다.

《자, 임자네들은 담당림에 가보게.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으면 내게다 맡겨놓으라구!》

아바이는 움쭉 몸을 일으켜 손바닥을 내밀고 엉거주춤 다가왔다.

《우리가 주의하겠습니다, 아바이!》

최명룡이 가만히 여쭙었다. 이쯤하면 철회할줄 알았는데 리도영은 《이건 누구도 어길수 없는거네. 백번 잘하다가도 아차 실수하면 망가지는것이 산림일세.》 하고 덧붙이며 한본새로 부득부득 다가들었다.

주성이는 사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보이는 아바이를 빼주름히 지켜보다가 웃주머니의 라이터를 아바이의 손바닥에 팽개치듯 놓아주었다. 최명룡이도 꺼내놓았다. 아바이는 나무뿌리를 런상시키는 투박한 손에 두개의 라이터를 움켜쥔채 잇대었다.

《명심할건 맨바닥이 드러나게 잔풀까지… 묵은 잔풀까지 굵어내는거네. 마른 풀 몇오래기가 불심지로 될수 있거던. 알겠나?》

《예- 예, 뽁 뽁 굵어버리겠습니다. 묵은 잔풀까지요.》

주성이가 말마디에 힘을 주며 역증스레 되받았다.

《올라가기 전에 막에 들러 싸온것을 먹고 가게나. 라이터 막에 놓겠네.》

아바이는 다시 일손을 잡으며 늘 보고 대하는 집안사람들에게 이르듯 뒤에 대고 한마디했다. 그 바람에 최명룡은 점심식사를 같이하자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때늦은 생각에 발판으로 오르려던 발길을 멈추었다. 주성이가 어깨를 떨며 막아섰다.

《으음, 번덕쟁이령감… 됐어요! 우리끼리 가자요!》

주성의 서술에 최명룡은 움쭉 돌아섰다.

그의 말처럼 산불막이선이나 끝내고는 철수할판인데 뽁뽁하고 데설곳은 아바이의 비위를 맞추자

고 애쓸진 뭔가.

꺾- 켕!

까투리를 부르는 장끼의 거세면서도 호기찬 울음소리가 문득 온 산판에 메아리쳐갔다. 그 소리는 산판의 유정함과 청신함을 한껏 북돋아주었으나 둘은 봄계절의 류다른 정취를 감상할 겨를이 없었다.

최명룡은 주성의 말에 동의하듯 운전칸에 훌쩍 뛰어올랐다.

주성의 불평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기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인사말 한마디없이 산림규정만 따지는 저런 투박한령감한테서 어떻게 백자기같은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홀아비로 늙어오는 저런 왕고집쟁이를 섬기자니 딸인들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저런령감은 될수록 맞서지 말고 멀찍이 거리를 뒤편야 한다, 그리고 최동지는 그 딸한테 한끄트머리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곱씹었다. 최명룡은 씹쓸히 조향륜을 움직일뿐이었다.

시창앞에는작년 마가울에 보았던 처녀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2

…처녀의 짐이래서 보파리 몇개로 생각했었는데 스무개가 넘는 마대에 꼴깍 담긴 이깎나무송아리들이었다. 잘잘한 울감자같은 이깎송치들이 새하얀 마대들에 터지도록 담겨있었다.

처녀는 산골에서 보기 드문 백자기같은 용모에 정결함이 넘치는 깨끗한 자태였다. 최명룡은 황홀경에 빠져 처녀를 마주보다가 틀지게 물었다.

《이건 뭘 할거요?》

이런 이깎송치를 덕천까지 날라가야 한다니… 장송이라면 몰라도… 어처구니없게만 여겨졌다.

《뭘하다니요? 종자로 쓰지요 뭐.》

뭘 모를게 있느냐는듯 한 처녀의 어조는 명랑하고 쾌활했다.

《종자? 그럼 이게 이깎나무종자란 말이요?》

어이없어 되묻는 운전사를 처녀는 오히려 재미있다는듯이 여겨보았다.

종자라면 난알이나 남새와만 련결시켜온 최명룡으로선 마대에 담겨진 송치들이 이깎나무의 종자라는 소리가 생소하게만 들렸다.

《그래요. 저 아름답리나무들도 근본은 이런 씨앗인걸요 뭐.》

처녀는 주변의 이깎나무들을 쭉 가리켜보았다.

《하, 요게 언제 저렇게 된다는거요? 우리가 다 늙은 다음에?》

《왜 늙은 다음이겠어요. 이깁이 얼마나 빨리 자란다구요. 20년만 자래우면...》

《20년?!... 헛참...》

최명룡은 후유— 날숨을 내뿜었다. 20년을 래일이나 모래처럼 아는 처녀가 철부지같아보였다.

처녀는 최명룡의 투박스런 통에 깔끔한 눈길을 보내었다. 그 눈길은 마치도 오래 걸리는 일이라구 손을 대기 저어하다니요? 그만큼도 안 걸리구야 수수천년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을 캐낼 갱목이 되나요 뭐 하고 말하는듯싶었다.

최명룡은 본의아니게 면박을 준것이 미안쩍어 인차 화제를 돌렸다.

《한데... 우리 덕천엔 이런 이깁송치도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여기처럼 많지 못해요. 몇송아리 따보았는데 발아를도 높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힘든대로 이렇게 다른 지방의걸 택해요.》

처녀는 자기의 잘못을 말하듯 송구해하며 머뭇머뭇 대답하는것이였다. 보기와는 달리 순진하고 온후한 처녀라는 생각에 마음이 확 풀렸다.

《한데... 이걸 송아리채 심지 말구 씨를 뱃터라면 한보집에 싸일게 아니겠소?》

최명룡이 깨우치듯 한마디하자 처녀는 그러는 운전사가 제견에서 우스운지 생긋 웃어보이더니 손수건에 싼 돌배 몇알을 내밀었다. 노오란 빛이 감도는데다 주근깨 박힌듯 까만 점이 생긴한 돌배를 보는 순간 입안에선 벌써 군침이 내돌았다. 다음순간 독특하고 그윽한 향기에 폐장이 다 움썰대는것 같았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뭐. 이깁종자받이는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뜨거운 포장도로에서 햇빛에 기껏 내굴리워야 씨가 쪽쪽 빠져나와요. 자, 심는건 제혼자 실을테니 좀 쉬세요.》

처녀는 활기롭게 걸음을 내짚어 적재함문짝을 따내고는 마대들을 올리신기 시작했다. 주성이가 일손을 맞잡았다.

최명룡은 슬금슬금 그들쪽에다 눈길을 준채 말곤한 돌배 한알을 입에 넣었다. 함실히게 물크리짐과 동시에 새큰하고 달짝지근한 진액이 입안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순간 답답하고 킬킬하던 가슴이 활열리는 상쾌함에 정신이 다 버쩍 들었다.

최명룡은 연거퍼 집어먹다가 문득 주성이가 생각키워 아쉬운대로 손을 거두었다.

《하, 돌배라길래 별참아했더니... 그 향기 정말 죽여주는데...》

《돌배는 보잘나위없는 산과실이지만 향기에선 모든 과실들중에서 으뜸일거예요.》

아, 그 돌배! 처녀의 세심성으로 물뤄진것이여서 그렇게 향기가 진했던가... 그때 인연만 아니였대도 주성이 말처럼 분기갱목끌기계획이나 맞추려고 서둘러대는건데... 하긴 어머니나 누이동생의 입심이야 말로 막는 일이 아니지. 이동작업이 한주동안의 일이니 닷새후에 처녀가 온다 해도 하루, 이를 얼굴을 익히며 의논에 붙여 설혹 성사가 된다 해도 인정사정은 꼬물도 없이 뻑뻑하게 규정만 따지는 변덕쟁이 산림감독원이 가시아버지로 되는데는 마음이 썩 당기지 않았다.

그사이 낮을 익힌 《번개》는 담당림으로 오르는 두사람의 거동을 멀쩡잡치에서 지켜볼뿐이였다.

막상 일을 시작하니 산불막이선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속새와 잡관목이 엉켜진 긴 구간을 생땅이 드러나게 한주일동안에 끝낸다는건 어렵도 없어보였다. 최명룡은 한대 붙여물며 일의 요령을 터득하려고 버릇처럼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다가 아바이한테 라이터를 바쳤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꼭자배기령감! 그렇게 찻찻해가지구야 누군들 좋아하랴?

그 순간에는 주성이의 불만에 궁정이 갔다.

이때였다.

《아, 이게 뭐예요? 히야, 이거 썰렁지가 아니예요? 최동지, 빨리요! 이자 어미썰이 내 낫날을 맞고서 달아났지요 뭐.》

중이 나면 보리방아 더 잘 썰는다고 썩썩대며 저만치 앞서나가던 주성이쪽에서 별안간 환성이 터져올랐다. 최명룡이 뛰여가보니 아닌게아니라 파르끼레한 새초색과 어울리는 썰알들이 한모습 잘되게 놓여있었다. 손을 대보니 따스한 느낌까지 들었다.

《몇알이야?》

《열알, 열알쯤 될것 같애요.》

주성이가 숨가쁜 기쁨을 누르며 성급히 대답했다.

《여덟알이구나, 세알씩이면 한알이 모자라겠구...》

최명룡이 눈어름으로 썸세기를 하고 잇대는데 주성이 불부은 소리를 했다.

《헹, 번덕쟁이령감까지 썸하는군요. 아, 우리끼리면 네알씩인데... 썰알은 보약제뿐아니라 회충구제에서 으뜸이에요.》

《그래서?》

주성이는 갑자기 낮아진 운전사의 다긋는 소리에 주눅이 든채로 중얼거렸다.

《그 아바이야 물리도록 했을텐데요 뭐. 이 산판

에 흔한게 평알이 아니겠어요...》

《그래두 아바이똥은 남겨야 해.》

《예, 예. 그렇시지요.》

주성은 게면쩍은지 한눈을 종긋한채 건성 대꾸했다. 들이는 담배생각이 나던데다 생각지 않게 횡재까지 한터여서 일찌감치 숙소로 돌아왔다. 주성은 막에 들어서는 길로 점심에 남겼던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담고 평알을 정성스레 술안에 안쳤다. 아궁에다 불쏘시개를 넣고 불을 지피려고 라이터를 찾았다. 라이터는 막안 문설주위에 어김없이 놓여 있었다.

《령감이 끈끈한데요. 형편없이 끈끈이서방이 예요.》

찾아낸 라이터를 절걱대며 주성이가 흡족해서 한 마디했다.

그 순간 막문이 열렸다.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고 활짝 열린 막문에는 아바이가 서있었다.

《임, 임자네들... 호 혹시 평알을 얻지 않았나?》

아바이는 급하게 뛰어온듯 어깨를 세게 들먹이며 후- 단숨을 내그었다.

최명룡과 주성은 얼떠름한채 곳곳해진 눈길을 서로 마주쳤다. 무척 급해하는 아바이의 모습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예감으로 들은 잔뜩 긴장되어있었다. 뒤미처 막안에 뛰여든 아바이가 무작정 술뚜껑을 열어제겼다. 술안에 든 평알을 띄여보는 아바이의 입에서는 처음과는 다른 긴 숨이 새어나왔다.

《다행일세. 호음-》

짧게 뇌이며 술안의 평알을 건어내는 아바이의 손은 눈에 알리게 후들거렸다.

《내 임자네들한테 라이터만 채근했지 주의사항을 채 일러주지 못했댜어. 다 내 잘못일세.》

자못 정색해서 자기비판을 하는 아바이를 흘끔치켜보며 주성이 어리둥한채 대들었다.

《아니, 주의사항은 또 뭐니까? 그럼 평알을 보구두 그대로 놔둬야 한단 말입니까?》

아바이는 도전기가 확연한 주성의 말에 대담대신 마른기침을 세게 깃었다. 격해난 심정을 가까스로 달래는듯싶었다.

《오늘 자네들은 두가지를 잘못했네. 한가지는 방화선을 잘못한거구 다음 한가지는 산림자원에 손을 댄거네.》

《뭐라구요? 우리가 산림자원요? 우린 평알을 치웠을뿐인데... 산림자원은 또 뭐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바이에게 의견이 쌓여있던 주성은 얼굴이 새빨개서 대바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산림의 자원은 다 내가 책임지네. 임자가 말하는 평알은 물론이고 바위에 돌은 이끼까지도 다 내가 맡은 산림의 자원일세.》

주성의 불만을 타내지 않고 아바이가 침착하게 말을 받았다. 그리고는 피로운 목소리로 다시 이었다.

《봄별엔 뭐나 다 잘되여서 새끼평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겠는걸...》

주성은 그만에야 코방귀를 내뿔었다. 자기들이 얻은건 분명 평알인데 불쑥 퐁퐁 뛰여다니는 새끼평으로 말하는 아바이가 어처구니없었던것이다. 그러는 주성을 여겨보며 아바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임자들을 보니 오늘은 비록 두가지를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열가지, 스무가지를 잘못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뭐라구요? 우리가 열가지, 스무가지를 잘못할수도 있다가요? 좋습니다. 래일중으로 새끼평이든 평알이든 가져다놓겠으니 더 옥박지르지 마십시오.》

주성이가 발끈한채로 아바이와 맞대꾸질하는것을 최명룡은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뭔가 둔중한것으로 뒤머리를 맞은것처럼 어리벙벙해졌다.

《좋네. 오늘 일한것두 전부 다시 하게!》

아바이는 뺨 몸을 돌려버렸다. 그런데 막을 나서려는 아바이앞을 께질러 주성이가 먼저 막문을 후려닫고 썩 하니 사라졌다.

줄지에 홀로 남은 최명룡은 우두커니 선채 처음부터 있던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바이가 너무하다는것이였다.

얼마후 발동이 걸린 차소리가 부르릉 울렸다. 최명룡이 급히 달려나왔을 때 자동차는 전조등을 비치며 멀어지고있었다.

《저, 저너석이... 어찌자는거야?》

아바이가 당황해하는것을 최명룡은 흘끔 돌아보았다.

최명룡은 어깨숨을 후- 쏙고말았다. 파격하게 외뿔으로 몰아간 아바이에 대한 항거이기도 했다. 문득 삐죽소리 한마디없이 이동작업에 응했다고 두덜거리던 주성의 말이 귀가에 쟁쟁했다.

최명룡은 낮가락을 잡은 손에 침을 발라가며 일손을 다그쳤다. 묵은 속새풀과 떨기나무를 밀그루까지 베여내고 밀둥이 굵은 잡관목을 손도끼로 찍어내는 일은 손에 익지 않아 썩 더디였다. 손바닥

에 잡혔던 물질이 터졌는지 아리기까지 했다.

불현듯 아바이의 말이 또 한번 귀전을 스쳤다.

《내 임자네들을 보니 오늘은 비록 두가지를 잘못했지만...》

아바이의 말을 음미할수록 속이 썩어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결국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할수 없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최명룡은 군사복무때나 지금이나 한번도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의 애국심을 의심해본적도 없었다. 혁신자라는 명예속에 애국자라는 칭호가 있다고 자부해왔다. 한겨울에도 한밤중에도 수송이 제기되면 잠자리를 건너차고 일어났다. 10년전 운행길에서 뜻밖의 일로 잘못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전사가 된 그날부터 차판리와 운행에서 남다른 열성을 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남들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앞에서는 땀을 흘리기가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쉽게 인정하였고 그만큼 내세워주었다.

그러나 아바이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수 있는 자신감은 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새벽에 있는 일이었다. 군잠에 들었던 최명룡은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부딪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첫 순간 숲의 고요한 정적이 느껴졌고 산불막이선때문에 담담함에 와서 보낸 하루가 생각키웠다. 뒤따라 큰소리를 치며 뺑소리를 친 주성의 소행이 꽤 씁쓸하게 떠올랐고 주성이를 그 길로 몰아간 아바이의 처사 또한 못내 원망스러웠다.

최명룡이 잠자리에 누운채로 궁싯대는데 아바이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최명룡은 잠자코 아바이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새벽어스름이 갓든 희뿌연 방안에서 아바이는 소리를 죽여가며 주먹밥을 싸서는 소나무옷걸이에 걸렸던 가방을 내리었다. 최명룡이 먹을 아침식사를 머리맡에 놓아두고는 밥이 든 가방을 한쪽어깨에 걸쳐 댔다.

막문이 소리없이 닫졌을 때 최명룡은 텅기듯 일어났다. 이 새벽에 밥까지 싸들고 어디로 가는걸까. 《번개》도 따라나섰는지 앞마당은 조용했다.

최명룡은 더 생각해볼 사이없이 아바이의 뒤를 따랐다. 지척대며 멀어지는 모습이 희뵤한 새벽대기속에 검은 점으로 얼쩡거렸다. 검은 점은 잣나무들이 촘촘한 검정굴을 지나 이깔나무들이 늘어선 반각산으로 오르는 길에 들어섰다.

최명룡은 자던 몸이 갑자기 으시시해나자 돌파서

고싶은 생각에 몸을 돌렸다.

다음순간 이른새벽에 주먹밥을 싸들고나선 아바이의 행색에 더럭 의심이 생기며 그 까닭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싶은 강한 충동이 머리를 때렸다.

반각산경사길에 이르자 아바이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최명룡은 새벽이슬에 아래도리가 척척해났으나 뻑뻑한 이깔틈새기로 사라진 검은 형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거친 숨을 토폴며 반달음을 놓았다.

반각산정수리에 올라서니 뜻밖에도 드넓은 양묘장이 펼쳐져있었다.

희뵤한 새벽공기속에 농촌의 벌판에서 흔히 보아온 벼모판을 련상시키는 나무모판들이 취넨 돌들로 울담을 친 속에 규칙적으로 놓여있었다. 아바이는 그 나무모판들의 한복판에서 서성거렸는데 《번개》가 최명룡을 먼저 알아보고 반가운듯 쿵쿵 짖어댔다.

《왜, 더 자지 않구. 젊었을 땐 새벽잠이 꼴맛이던데...》

아바이는 모판들에 쑥대로 걸은 해빛가리개를 엮어주었다.

《모가 어려 직사광선에 꼼짝 못한다네. 산상의 봄별은 떠서부터 따거우니까... 그야말로 갓난애기처럼 돌봐야 해!》

모판들에는 새의 깃털과도 같은 애기이깔들이 다보록이 돌아나있었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촘촘한지 마치도 고급주단을 펴놓은듯 했다. 채 뽐히지 않은 나무그루터기들이 웅기중기 박혀있는것으로 해서 산상이라는것을 크게 강조해주었다.

최명룡은 너무도 뜻밖의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한옆에 쭉 련결된 한창 부풀어오르는 반듯한 모판들에 시선을 박았다.

《이건 언제 뿌린겁니까, 아바이?》

《며칠전에 뿌렸네... 우리 딸이 작년 가을에 양덕에서 실어온건데 씨불임이 정말 잘됐어.》

최명룡은 그만에야 그 종자들을 자기네가 실어온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화제를 돌렸다.

《그렇군요. 한데 요것들이 언제 나무모가 될까요? 나무모는 또 얼마나 있어야 거목이 되구요?》

최명룡의 눈앞에 그 처녀가 스쳐지나갔다. 그때 처녀는 아름답리 이깔을 가리키며 저 거목도 근본은 이런 씨앗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는 처녀와 아바이의 손길이 갓든 모판의 여기저기에 묵묵히 눈길을 보내었다.

《이제 20년만 되면 요것들이 이만은 될걸세.》

아바이는 나무뿌리를 련상시키는 갈퀴진 두손으로 넓은 공간을 지어보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바

이도 20년이라는 수자를 자기 이름처럼 수월하게 외우는것을 최명룡은 어이없는 눈으로 보았다.

《2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이나 지나야겠군요.》

최명룡은 맹랑하게 말끝을 흐리며 주름투성이의 아바이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아바이가 이 나무모들을 거목이 되도록 키워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로 해서였다.

《강산이 몇번 변해도 절로야 안되지. 내가 하다가 못다 하면 우리 딸이 해낼걸세.… 왜 그런 눈으로 보나? 딸이어서 성차지가 많아 그러나?》

《아, 아닙니다. 제 듣기엔 교대자를 물색한다더니 그게 딸입니까?》

아바이는 너무나 정통을 찢른 최명룡이 언짢은지 눈섭을 찡긋하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정말이지 일을 해서 빛이 나는게 산림이기도 해. 10년전만 해도 번번하던 이 산판이 퍼대진걸 보라구. 이제 며칠 안 있어 슈음베기한걸 갱목으로 보낼수가 있어. 또 10년후에는 기본갱목으로 팡팡 베나갈수가 있구. 이산저산… 순환식으로 채벌구역이 정해져 앉은자리에서 장훈이를 쳐볼수 있단니까.…》

《그러니 우리도 가까운데서 호강스레 갱목을 실어나를수 있겠군요. 이제 10년후엔 양덕이나 신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지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일세. 미리 서둘렀더라면 지금쯤 그렇게 성수를 낼것 아니겠나?》

어느새 그의 기분에 흠뻑 침취된 최명룡의 흥에 뜬 한마디에 아바이는 흥분해서 맛장구를 쳤다.

《글쎄 갱목을 백리길이 넘는데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산판에서 해결할수 있겠으니 그게 장훈이지 뭔가.》

《거야 그렇지요. 한데 아바이, 양묘장을 왜 이런 높은데다 정했습니까? 평지에다 만들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할텐데요.》

최명룡이 불쑥 이렇게 묻자 리도영은 사뭇 두눈을 빛내이며 마주보았다.

《편리는 할테지만 이깎모엔 적실치 않네. 난… 이깎나무의 생태적특성을 고려해서 몇해전부터 이렇게 해보았네. 높은 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이깎을 나무모때부터 산꼭대기에서 자래워보니 식수때 사름물을 100프로로 보장할수 있더라니까. 더우기 중요한건 모살이를 거치지 않는다는거네. 산상에다 첫 뿌릴 박았대선지 식수한 날부터 땀다 크더군. 이자 올라오면서 원전을 봤겠지? 심기는 작년에 심었는데 5년생과 맞먹거던.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나무모때 뿌리에 생기던 벌레피해도

전혀 없고…》

최명룡은 아바이만 뒤쫓느라 주위를 여겨보지 못했으나 다 본것 같고 긍정하고만싶은 심정이여서 듣기만 하다가 《그래도 가물때는 물을 저울려야겠지요?》 하고 타협조로 한마디 비치었다.

《저 웅탱이에 눈석이물을 잡아두었다가 몇지게 올리지. 눈석이물이란게 비료성분이 많은데다가 부식된 락엽우린 물이어서 그야말로 보약 한가질세. 좋은 점이 더 많아 그까짓 몇지게 저울리는건 고생으로 치지도 않는걸.…》

아침해별이 유난히도 째뼉하게 반각산을 내리비쳤다. 아바이는 다보록한 애기이깎들이 그늘속에 편안히 든것을 흐뭇해서 내려다보고있었다. 꼭 잠든 아기를 보는듯 한 자애로운 눈빛앞에서 최명룡의 가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임자 여기까지 온김에 돌을 좀 쳐다주겠나? 돌담을 쌓다가 채 마무리 못했네.》

문득 아바이가 모판에서 눈길을 거두며 울담으로 친 돌들을 가리켰다. 최명룡은 얼핏 눈짐작으로 돌배나무가 서있는 산중턱을 내려다보았다. 경사도가 밋밋하게 흘러내린것이 내리굴리면 험하게 옮길수 있을것 같았다.

《그럼시댜요, 까짓!… 여기서 내리굴리면… 제격일텐데요.》

최명룡이 선선히 대답하며 맞춤형 돌을 찾아냈을때 뒤늦게 그의 의도를 간파한 아바이가 기겁을 하며 막아나섰다.

《여기서 굴리자고 하나? 임자?》

《안됩니까?》

최명룡은 물론이라는듯 되물었다.

《원, 사람두… 돌을 굴리면 나무밑등을 칠수 있고… 혹시 알겠나? 평등지나 새끼노루가 상하게 될지.…》

《평등지나 새끼노루가요?》

《여기엔 나무만 자라는게 아니잖나?》

《예- 예?》

최명룡은 입을 벌린채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바이는 바로 이런 세심성으로 이 산림을 가꾸었다. 이런 아바이이니 평알을 새끼평으로 보는게고 더불어 우리가 하는 일이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것이다. 아바이가 가꾼 이 산림은 결코 10년이라는 세월만으로 푸르러진것이 아니었다.

최명룡은 갑자기 아바이가 거인처럼 느껴지고 어려워졌다. 천성적으로 침울해만 보이던 산림감독원에게 위압이 되고 경건해지기까지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최명룡은 처음부터 품었던 의문을 비로소 털어

놓고야말았다.

《아바인 어떻게 산림감독원이 됐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차를 끌었댔다면서요?》

《차를 끌었지. 임자네들처럼 갱목을 실어날랐네. 신앙에서, 양덕에서... 때론 량강도와 자강도에도 가군 했네. 우리 운전사들중엔 자주 휴식참에 모닥불앞에 앉을 때면 먼길을 고생스레 다니느니 내 고장 반각산을 가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념볼처럼 외우던 한사람이 있었네.... 평생 잊지 못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은 이렇게 달라졌네.》

아바이는 문득 말을 끊고 긴숨을 내그었다.

《그 사람과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가요? 그 사람도 숲을 가꾸는 사람이 됐습니까?》

최명룡의 호기심어린 물음에 아바이는 또 한번 길게 숨을 내불더니 움쭉 자리를 일었다. 그리고 끄-소리를 내며 돌을 안고 제먼저 밭길을 놓았다.

그후 명룡은 종일 아바이 생각으로 마음이 묵직했다.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피했을까....

주성은 저녁이 다되어서야 닭알 한바께쓰를 가지고 나타났다. 명룡은 닭알바께쓰를 던지시 들여다 보고나서 시까스르듯 말했다.

《헛참, 옛말 그른데 없구나. 꿩대신 닭이라더니...》

주성은 그러지 않아도 역기가 올라있던데다 명룡의 첫 말이 시까스르는 소리인지라 대번에 불평을 쏟았다.

《최동지라면 어디서 꿩알이 난단 말이에요? 휘발유값이라도 해야겠기에 겨우 사정해왔는데... 닭공장에선 계획본이 다 나갔다고 딱 잡아떼는걸 말이에요.》

《아바이 말이 정말 신통해. 우리한테 열가지, 스무가지를 잘못할수도 있겠다고 한 말 말이다.》

제풀에 기가 올라 팔팔대는 주성에게 최명룡은 이렇게 던지듯 놀러놓았다.

그리고 더 설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결김에 차를 움직였으니 귀한 휘발유를 망탕 태워, 자유주의를 하니 말은 일을 하지 못해, 본의아니게 닭공장의 제도와 질서를 허물게 돼. 그래 이것이 한가지의 잘못으로 파생되는 열가지, 스무가지가 아니란 말인가. 최명룡의 얼굴에서 질책보다 더 강한 모멸감을 느낀 주성이 울부짖듯 대들었다.

《그럼 잘못된 저에게만 있다는거예요?》

《주성이, 내 잘못이 더 크다. 며칠동안에 산불막이선이나 끝내면 그만이라구 생각하면서 숲을 가꾸는 일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루 여긴나였다. 그래 이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게 아바이한

테만 한한 일이고 나나 너한텐 상관없는 일이겠니? 이 숲이 우리 담당림이여도 언제나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적이 있었는가 말이야?》

여기까지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말을 끊는 최명룡의 듣직한 태도를 주성은 아리송한 눈길로 훑었다.

《최동지! 하루... 하루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성은 좀 아연해하며 더듬거렸다.

《그래, 하루였지. 하루밖에 안되었지만 내 일생에 남을 하루였다.》

최명룡의 눈앞에는 주먹밥을 싸들고 어둑스레한 새벽부터 산정에 올라 모판을 돌보던 아바이의 진실한 행동이 눈물겹도록 감동적으로 안겨왔다. 곁에 있는 집을 나와 막에서 생활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바이의 꾸준한 성실성을 어떻게 말로써만 설명한단 말인가.

4

산을 내려갔던 아바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별스레 끼끗하고 씩씩해보였다. 작업복의 목깃은 새하얀 목달개로 해서 단정했고 진곤색의 새 지하족은 까만 끈에 가뜩하게 매여있었다.

《딸이 왔습니까, 아바이?》

《그건 어떻게 아나?》

최명룡의 단도직입의 물음에 아바이는 덩들해서 마주보았다.

《아바이두 참... 새 신을 신었군요.》

《오, 우리 애가 가져온걸세. 우리 앤 여느 일두 잘하지만 신발도 잘 고른다네. 이렇게 신창이 든든한데다 살이 깊은걸 골라와서 웬만한 비탈길에서도 미끌지 않는다네. ...》

최명룡은 갑자기 천진해진 아바이를 재미있게 보았다. 주성은 흘끔거리며 아바이를 훑쳐보기만 했다. 파묵해만 보이던 아바이입에서 딸자랑이 쏟아지니 전혀 탄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였다.

《마침 새 신이 생겼어. 오늘 탄광에서 사람들이 온다네. 새 탄발을 또 찾았으니 울리굴에 댈 동발목을 네립방이나 내라누만. 첫 동발목을 내는 뜻깊은 날인데 이렇게 새 신을 신으니 날개가 돋친 것 같네. ...》

아바이에게 정말 날개라도 돋친듯 마지막말마디는 저만치에서 들려왔다.

최명룡과 주성은 하던 일을 멈춘채 멀어져간 아바이의 뒤모습을 더듬었다. 아바이의 잔등은 땀엔지 이슬엔지 푹 젖어 질게만 보였다. 아바이가 핵

돌파서 다시 뛰어왔다.

《임자네들… 우리 딸을 좀 도와주게나. 이 산판에서 첫 동발목을 내는 날인데 맨승맨승 동발목만 지워보낼수 없지 않나.》

《뭘해야 합니까?》

최명룡은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쏠리던차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막에 내려가서 우리 애가 하는 일을 맞잡아주게. 이런 땐 부엌일이 부산스럽다네. 그리구 한사람은 차상태를 보라구, 어차피 차신세를 또 져야 하니까.》

주성이는 자기에게는 눈길 한번 주는 일없이 운전사하고만 상대하는것이 시큰둥해서 코바람을 내 불었다.

《헐, 우리더러 부엌일을 하라니… 내 원 참.》

그러면서도 걸음은 먼저 뻗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막에 내려오니 처녀는 무슨 산나물인지 한 무더기 놓고 다듬다가 반색을 하며 일어났다.

《어야, 차를 보고 처음엔 웬일인가 했었어요. 이렇게 또 만나니 정말 기뻐요.》

《우리도 기쁩니다. 그러니 동무가 감독원아바이의 딸이었군요. 우린 이름도 모르고 헤어졌었어요. 난 여기 와서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마? 별말씀…》

최명룡의 진정 어린 말에 처녀는 송구해하며 얼굴을 붉혔다. 최명룡이도 불쑥 나간 자기 말이 의외적이어서 벅룩 웃고말았다.

처녀의 백자기같이 말쑥하던 얼굴은 그사이 해별에 많이 그슬렸다. 그것으로 해서 남들과 대조되던 차이가 없어보여 친근감이 더해졌다. 최명룡은 될수록 친밀감을 보이며 우선우선하게 말을 건네었다.

《갓던 일은 잘됐습니까? 산림설계소일 말입니다.》

《그럼요. 연구소에선 우리 산림개조안에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보냈어요. 이제 저 소동굴과 마라골이 다 이깁구역이 돼요.》

환희에 넘쳐있는 처녀를 이윽히 보며 최명룡은 스스로없이 그앞에 마주앉았다.

《이건 무슨 산나물입니까?》

《똑같이라구 해요. 이름은 벌스럽지만 참나물이나 굶취못지 않아요. 1년내내 뜯어먹을수 있는 산나물은 이 똑같은걸요.》

《아니, 산나물이라는건 쇠기마련인데 1년내내요?》

최명룡이 아는 티를 내자 처녀는 더욱 신명을

썼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소나무밑에서 솔검불을 들썽쳐 크는데 뜯으면 뜯는대로 돌아나고 또 돋는 특이한 산나물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찬서리 내리도록 설줄을 모른답니다.》

《거참, 멋있군요. 맛도 좋은가요?》

《솔밑에서 자라선지 짹쓰레하면서도 솔향기가 그윽해요. 이 똑같은채에 맛들이면 여길 떠나기가 아쉬울거예요.》

《그래요? 사실 난 돌배향기에 반해 왔겠는데…》

최명룡은 슬쩍 말머리를 돌리며 떠보는 눈길로 처녀를 보았다.

《돌배향기요? 돌배향긴 정말 멋있어요. 가을바람에 폭 익은 돌배가 절로 떨어지면 그 향기가 온 골안을 짹 채우는데 정말 기막히게 멋있다고요.》

주성은 막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광주리에 가득 담긴 버섯을 보고 새된 탄성을 내질렀다. 평알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놀람이었다.

《아, 이거 송이가 아닌가요? 닭고기도 울고간다는… 맞지요. 송이가?》

《맞아요! 송이버섯이에요. 점심에 누룩재기국수를 누르자고 해요. 국수는 꾸미맛에 먹는건데 꾸미감이 신통찮아 속이 알끈했지요 뭐. 한데 아버지가 <마라골에서 뜯어말린 송이를 불귀쓰면 어떠냐?> 하고 이르지 않겠어요. 말렸던걸 물에 불렸는데 얼마나 생신한지 모르겠군요. 방금 캔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국수는 덕천국수집의 쟁반국수를 압도할 것 같은요. 그렇지요?》

주성이가 사기가 올라 끼어드는데 처녀가 한수더 뻗다.

《압도하고말고요. 거기다 삶은 닭알까지 통알로 놓으면…》

삶은 닭알소리를 할 때 처녀는 주성의 눈치를 슬쩍 살폈는데 그것으로 해서 최명룡은 부녀간에 자기들 두사람의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주성이는 못 들은척 외면하고 자동차에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차를 한바퀴 돌며 심심풀이하듯 바퀴에다 세게 발길질을 해보아 공기찬 정도를 가늠해보고는 기관실뚜껑을 열어제꼈다. 이런 때 차점검은 웅당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성이었다.

《음, 시작들 했구만. 벌써 다 찍어넘겼네. 탄부들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거기다 국수까지 대접

하면... 우리가 탄광을 지원한다구 말들은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한적은 별로 없어.»

언제 왔는지 막앞에 이른 아바이의 흥픈 소리에 셋은 똑같이 아바이에게 시선을 집중하였다. 아바이는 서로 머리를 닿을듯이 앉아 일손을 다그치는 팔과 쇠명통을 방해하지 않을셈인지 곧바로 주성에게 다가왔다.

《정상이겠지?》

아바이의 묻는 말에 주성은 대답을 좀자르다가 《좀 봐야겠어요.》 하고 통명스레 짜냈다. 그리고는 불심지 달린 휘발유병을 들고 기관에 붙여섰다. 공기청정기를 덥혀주어 발동이 제격 걸리게 하자는 것이었다. 혹 발동이 인차 걸리지 않아 아바이 앞에서 썩썩거리며 역사질을 하게 될가봐 저리 불뭉치를 갖다대었다.

《어서 그래주게!》

아바이가 뒤걸음 물러서는 참에 병을 잡은 주성의 손이 갑자기 후끈하게 뜨거웠다. 어느새에 불이 퍼졌는지 손안의 휘발유병이 불병으로 화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엔 입김을 세게 불어 끄곤 했던지라 주성은 예전처럼 혹— 내불었다. 그런데 꺼질줄 알았던 불길은 그 입김에 더 확 치솟아올랐다. 때가 좀 늦은 것이었다. 이제는 안된다! 어차피 내던지는 길밖에 없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난 주성은 주위를 황황히 살피었다. 먼저 띄운것은 리도영아바이었다. 공교롭게도 아바이앞에서 이런 황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자기가 막 한스러웠다. 주머니안의 라이터들을 건어내느라 에너지를 모르던 아바이앞에서, 아직은 자그마한 평알을 새끼뿔으로, 산림자원으로 치는 아바이앞에서 이 빌어먹을 불덩어리를 어디다 내친단 말인가. 이때 아바이가 달려왔다. 어느새 달려와서는 갈퀴진 손아귀로 불덩어리를 다급히 뺏아냈다.

《인내게, 인달라구!》

《아바이, 던지랴요. 저기, 저기루요!》

어느새 띄여본 쇠명통이 급하게 달려오며 이깔숲을 가리켰다. 짙어진 머루넝쿨이 허공에서 데롱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활둥처럼 굽었던 옷조리가 그사이 곧아진듯 했다. 창황중에도 곧아가는 이깔나무를 알아본 아바이는 짝 문 이새로 부르짖었다. 안될 말! 어떻게 가꾼 숲이라구? 이 봄바람에 어떻게 되랴구?

손은 불속에서 타고있었지만 아바이의 생각은 고집스레 이렇게 내닫고있었다.

《아바이! 적, 적재함에 내던져요, 적재함어요!》

주성이가 아바이의 심정을 꺾뚫은듯 적재함을 쾅쾅 두드렸다. 적재함? 안돼, 당장 동발목을 실어야

할 적재함에다? 더구나 첫 동발을 단단히 얹어땀바줄이 실려져있는데... 안되구말구!

저마끔 내지르는 새된 울부짖음이 고막을 세게 쳤으나 아바이는 입을 꼭 다문채 작업복웃자락을 활 잡아제겼다. 단추알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아바이는 거침없이 불병을 품안에 쑥 밀어넣었다.

순간 퍼영! 하는 폭음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화염방사기에서와 같은 센 불줄기가 회오리바람소리를 내며 목깃으로 빠져나왔다. 아바이가 진대통 넘어지듯 쓰러졌다. 쓰러진 아바이의 품안에서 형편없이 줄아든 수지병이 연기를 날리며 굴러나왔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꿈을 꾸는 것만 같은 환각이 셋의 머리를 동시에 휘감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요? 아버지, 정신차리세요. 예, 아버지!》

어느새 달려온 처녀가 떠듬거리며 아버지를 흔들었다.

쇠명통이도 주성이도 주저앉은채로 아바이를 어루쓸었다. 아침에 보았을 때 새하얗던 목달개가 거뭇하게 오가리로 말려들었고 머리칼은 회백색으로 변색되었다. 이윽도록 아바이의 눈은 떠질 줄 몰랐다.

《자, 빨리 병원으로!》

쇠명통이 아바이를 들쳐업은채 운전칸에 오르는 데 뜻밖에도 아바이의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날 좀 내려놓게.》

아바이의 지치고 희뿌연 시선이 주성이를 더듬었다.

《주성이라구 했지? 아직도 날 노엽게 생각하냐?》

《아니예요. 아바이, 절대로... 아니예요. 내가 어떻게 아바이를...》

주성이가 떠듬거리며 눈길을 떨구었다.

《그럼 됐네. 임자 우리 집에... 우리 로친한테 가보라구... 평알을 말렸는데... 깨났는지 알아보게.》

《예— 예?!》

쇠명통과 주성은 목소리를 합치며 흠칫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범상하게 말하는 아바이앞에서 둘은 서로가 눈길을 마주치고 얼없이 보기만 했다.

《놀래긴... 임자들두 날, 날 흠에비루 알았던게지. 우리 로친한테 내가 다친 일을 말하지 말게. 모르는게 약이란 말 있지 않나. 우리 산판엔 이쯤한데 불이는 약은 부지기수네. 이 산림이 얼마나 령험하구 신비하다구.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한테 별의별 보물을 다 내놓는다네. 허물자리 하나없이 미

끈하게 아물게 할걸세. 내 말이 거짓이 아니란걸 가을에 다시 와서 보라구.»

아바이는 상처가 아픈지 눈을 감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닙니다, 아바이! 우린 여기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바이와 함께 보물산을 가꾸며…》

여기까지 말한 최명룡은 막 나오려는 뒤말을 삼켰다. 그는 분명 《행복을 가꾸겠습니다.》라고 다음말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여겨진 것이었다. 더구나 처녀당사자한테는 자기 심중을 일언반구 비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영애야. 탄부들에게 내 소린 말구… 일체 말구 국수를 대접해라! 알아들었니?》

처녀가 흐느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 일생에 제일 기쁜 날인데… 너도 기뻐해야지. 탄부들이 시장할게다. 어서 내려가 부엌일을 마저들 봐라!》

《알겠습니다, 아바이! 아바이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최명룡은 굳이 고집하였다. 병원부터 가야 한다. 자기가 아바이의 자리에 들어서자고 해도 아바이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서 자기들이 아직은 다 모르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한다. 누가 산정에다 양묘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며 그렇게 키운 나무모가 모살이없이 잘 큰다는걸 알수 있을텐가. 이젠 여기 산판일은 아바이에게 힘에 부친 일이다. 젊은이들이 대신해야 할 일앞에서 최명룡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숲을 가꾸는 일이 종당에는 자기 일이라것을 스스로 자각하였다.

《여긴 내 일터이기두 하지만 병원이기두 하네. 이 산판을 떠나면 난 죽어버리구마네. 그러니 내 걱정은 말구 어서 하던 일들이나 하게!》

《아바이… 아바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가…》

주성이가 목멘소리를 하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5

두 분기의 갱목끌기계획을 마친 최명룡은 리도영 아바이가 그러했던것처럼 산림경영소배치장을 품에 안고 운흥리로 왔다. 그런줄도 모르고 영애는 자기 아버지가 산림감독원이 되던 리유를 비로소 털어놓기 시작했다.

《10여년전 신앙에서 갱목을 싣고 돌아오던중에 아버지의 차 23호에 일이 생겼대요. 푸룩거리던 기판이 벗고 발동이 죽었는데 그만에야 차가 지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바로 몇미터밖에는 경사급한 낭떠러지인데 밀리기 시작한 차는 짝 밝는 제동기에도 상관없이 낭떠러지로 밀리우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뒤를 따르던 운전사가 자기 차를 급제동시키고 지치는 23호바퀴밑에 버팀목을 들이댔어요. 아버지도 구원되고 23호와 동발목도 구원되었지만 그 운전사는 휘뿌려지는 버팀목에 그만… 병원에 실려간 그 사람은 반각산을 잘 가꾸라는 말을 남긴채… 그 사람은 운행길에서 자주 화톳불을 피워놓고…》

처녀는 입술을 옥물었다. 그 순간 최명룡이 부르르 몸을 떨기 시작했던것이다. 명룡은 입술을 옥문 처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영애동무! 혹시 그 고개 이름을 가다울고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명룡의 울부짖는듯 한 물음에 처녀는 화들짝 놀래었다.

《어마, 운전사동무가 어떻게 그 고개 이름을 다 아세요?》

최명룡은 대답할념을 앓고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운전사동무의 아버지?! 어마— 아?!》

처녀의 외마디가 길게 여운을 끌었다.

《그랬군요! 그랬군요!》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처녀가 최명룡의 두손을 꼭 감싸쥐었다.

《글쎄 어쩐지… 침부터 남갈지 않았어요. 그 룡계끝안까지 차를 대서 이깁송치를 실어올 때부터 말이예요.》

처녀는 그옥한 정이 담긴 눈길로 최명룡의 곱살한 얼굴을 더듬었다.

《아버진 친구의 희생으로 이어진 삶을 헛되이지 않으려고 그 다음날로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창성이깁을 심는 일을 벌렸어요. 너무나 산림밖에 모른탓에 모두들 흠아비로 빗볼 정도였어요.》

췌!— 가을바람이 운흥리벌판을 지나 산판으로 욱 밀려왔다. 묵묵한 수림은 어리광치듯 설렁대며 어린 가지들과 잎새들을 휘저었다.

문득 어데선가 특이한 숲의 향기가 실려왔다. 그들은 그 향기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둘은 돌배나무앞에 이르렀다. 몇달전만 해도 눈석이에 떠밀리어 뿌리가 드러났던 거울진 나무는 돌담을 안전하게 두른채 두툼한 토양에 폭 잠겨있었다. 그 토양우에 새노란 돌배알들이 한벌 쪽 덮이여 디굴거렸다. 끝안을 진동시키는 특이한 향기는 바로 그 돌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처녀는 허리를 굽혀 돌배 한알을 집어들었다.

아이들아!

원영옥

아이들아!
여기가 어디냐
꿈같이 황홀한 이 궁전이
행복동이 너희들의 집이 아니냐
바로 여기가
우리 원수님 지어주신
너희들의 보금자리란다

아버지 그리워
엄마 그리워
철없는 자식들 울며 잠든 그밤에
부모없는 너희들 너무도 가슴아파
원수님은 몇밤을 지새우셨단다
아, 가슴속에 쌓여오신 정으로
이 땅에 펼쳐주신 너희들의 궁전이란다

어서 보아라 아이들아
마음껏 뛰어놀라
앞마당에 유희기재 한가득
포근한 요람에서 꿈나라로 가거라
아롱다롱 베개잇에 고여주신 사랑
눈내리는 겨울에도
더운물 출렁이는 물놀이장

고운 꽃그릇엔
어머니사랑 한가득 고여
끼마다 풍성한 식탁 너희들을 부르고
배움의 종소리 울리는
해빛밝은 교실이 반겨맞는 너희들의 집

나라일이 얼마나 바쁘신 우리 원수님이시나
천하도 쥐락펴락하시는 우리 원수님
그 령장의 품에 안겨 복받은 아이들이
온 세상이 부럽도록 웃고있구나

마음 든든히 억센 걸음 내어짚어라
배짱도 굳세게 마음껏 활개쳐라
원수님 너희들을 지켜주신단다
하늘땅 떠들썩 크게 웃어라
그 웃음 원수님의 힘이 된단다

아, 생명을 준 부모도 다 주지 못한 사랑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분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분
운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잊지 말아라 아이들아
그 사랑 안고
몸도 마음도 어서 으쓱 크거라
너희들의 집은 원수님의 품
그 품속에 강성조선을 빛내여갈 꿈을 키워라

아이들아!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정은원수님 받들어 충정을 다하거라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거라

《돌배나무는 꽃피고 열매를 맺는 전기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해요. 열매가 무르익어 땅에 떨어
졌을 때에야 사람들은 이 돌배의 향기를 비로소
느낍니다.》

최명룡이도 처녀처럼 한알 골라든채 뒤말을 이
었다.

《땅에 떨어져서 그 자양분을 고스란히 뿌리의 영
양소로 보낼줄 아는것이 돌배인줄 나는 잘 알았습니
다. 그래서 그 향기가 더욱 짙은 모양입니다.》

×

《학철이한테선 소식이 옵니까?》

《오네. 제대되면 대학에 가서 산림학을 배워 외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산림일군이 되겠다고 써보
냈더군.》

느닷없이 묻는 주성의 물음에 최명룡은 격세지감
을 느끼며 감회어린 어조로 대답했다.

《거 멋있는데요. 3대를 이어 숲을 가꾼다?》

《울창한 숲은 한 세대에 한한 일이 아니야.
20년, 30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품들여 가꿔
야 할 나라의 재보지.》

꺾— 켕! 어데선가 장끼의 호기찬 울음이 최명룡
의 말에 공감이나 하듯 때맞춰울렸다. 이어 그에
화답하는 까투리들의 세찬 퍼덕임소리가 이깔숲우
로 오래오래 메아리쳐갔다.

단 평

강산에 메아리치는 조국수호권의 노래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에 대하여—

최 언 경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창작 발표된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작사, 작곡 설태성)는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 활력을 안겨주고있다.

승리의 7.27,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 밑에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비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 불패성의 빛나는 상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가요 《근위부대자랑가》는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상의 명령에 대한 결사판철의 화답이다.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함께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1950년대의 투쟁정신,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을 투철하게 구현한 데 있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그것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이다.

이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은 오늘도 변함없이 반미대결전의 전초선에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위업, 주체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유산으로,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정신적재보로 된다.

60여년에 걸치는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련전련승을 떨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1950년대의 자랑스런 조국수호정신의 빛나는 전통이 있었기때문이다.

전 5절로 된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원수 미제를 무찔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끝까지 싸워 승리한 1950년대 영웅전사 근위병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이 맥맥히 맥박치고있다.

그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은 특히 절가화된 가사의 절구와도 같은 제5절과 후렴구에서 특별히 선명하게 부각되고있다.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기억된 자랑스런 근위부대들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진
그 이름 영원토록 후대들 가슴속에 긍지로 빛을
뿌린다

군기에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치리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영웅한 근위부대들의 혁혁한 영웅적위훈을 2개의 시구들에 담아 간명하게 집약적으로 노래한 가사는 제5절과 후렴구에서 그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의 본질과 대를 이어 계승될 승리의 전통을 집대성하여 노래하고있다.

하어 가요 《근위부대자랑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국놈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축을 울리며 전승광장을 행진해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그 불굴의 기상과 본때를 오늘의 성스러운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혁명의 북소리로, 영원한 승리의 군가로 되고있다.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의 가사의 사상예술적성

과는 다음으로 시인의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발견된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찾아쥐고 그것을 훌륭히 시화, 음악화한데 있다.

이 가사를 두고 말하게 되는 기발한 착상이란 어떠한 사건과 사실의 발견이나 역사에 실재하지도 않은 허황한 허구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사의 중심 깊이에 깊숙이 잠재해있던 역사적자료, 그 어느 시인도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것에 대한 혁신적인 발견이며 그의 풍부하고 심오한 시적일반화이다.

이것은 분명히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가슴을 꿰뚫어뿐 아니라 그 아무리 깊은 땅속에 파묻힌 것이라도 그것이 진주보석이라면 기어이 찾아내고 야마는 시인의 참신한 혁신적안목과 재능의 산물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백승의 령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584명의 공화국영웅과 함께 무려 13개의 부대가 영예의 근위칭호를 수여받았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은 강철의 령장의 손길아래서만 창조될수 있는 조선의 기적이며 그 필연적승리에 대한 령사의 증견이다.

근위부대, 이것은 무려 100여차례의 살육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자처하던 미제에게 령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안기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 불굴의 조선의 녀의 대표이다.

전 5절로 된 가사는 매개 절마다에서 단 2개의 시구들로 몇권의 책으로도 다 말할수 없는 영웅적근위부대들의 위훈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노도로 질풍쳐 단숨에 서울에 공화국기발을 날린 무쇠철마로 소문난 근위 105땅크사단

가사 제1절에서 노래된 이 2개의 시구는 전쟁개시 단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하늘 높이 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의 빛나는 위훈을 훌륭히 시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사의 제2절에서는 적들이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처하던 적 중순양함 《볼티모》호와 경순양함 1척을 작은 어뢰정으로 격파함으로써 세계해전사에 류례없는 위훈을 떨친 근위 제2어뢰정대의 빛나는 위훈을 역시 단 2개의 시구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바다의 섬이라 떠들던 미제의 침략선 중순양함을 통쾌히 수장한 해군의 영웅한 근위 2어뢰정대

이처럼 가요의 가사는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영웅적인 근위부대들의 빛나는 위훈을 짧은 시구들로 훌륭히 전형화하여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1950년대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의 빛나는 체현자들인 영웅적인 근위부대의 위훈에서 시적계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훌륭히 시화하였다는 바로 여기에 60여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시창작에 기여한 시인의 기발한 착상과 혁신적안목이 있다.

가사는 영웅적인 근위부대들의 불멸의 위훈사를 훌륭히 노래함으로써 그 한편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사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집대성적인 반영으로, 빛나는 시적화쪽으로 되었다.

이것은 시적발견과 함께 시적일반화의 높은 경지에 대한 유감없는 파시로 된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이 구태의연한 경직상태, 낡은 도식과 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새것을 탐구하고 찾아내어 당이 요구하는 명작폭포를 불러와야 할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마땅히 따라배우고 내세워야 할 귀중한 경험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가요 《근위부대자랑가》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다음으로 가요의 2대형상부분인 가사와 선물의 조화로운 밀착과 가사의 형상적성과를 훌륭히 안반침한 독창적이고 특이한 선물창조에 있다.

물론 가요의 사상예술적기초는 가사이지만 가사는 어디까지나 곡과 함께 부르는 시이기때문에 가요에서 선물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할수 있다.

궁지도 드높이 한껏 멋을 부리면서 부르게 된 가요의 선물은 승리자의 궁지와 자부로 넘치는 근위병사들의 사상감정을 참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5개의 절로 절가화된 가요는 전렵과 후렴으로 선물화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가요의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선물형식이다.

두개의 부분으로 된 전렵의 선물은 처음부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적인 선물로 신심도 드높이 원썩 미제를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는 근위부대들의 전투적기백과 기상을 잘 형상하고 있다.

눈내리는 포켓에서

김 정 삼

새해 첫전투라 불붙는 마음
포전마다 듬뿍듬뿍 거름무지 쌓아놓고
땀젖은 얼굴 쳐드니
흰히 트이는 동녘하늘에
어허 기다린듯 눈이 내리네

내리는 눈꽃 한두송이 떨어지더니
너울너울 명주수건 펼친듯
하늘을 가리우며 땅을 덮으며
쏟아져내리네 무수한 눈송이들
내 정든 고향땅을 소복단장하네

내리는 함박눈이 조화를 부리는가
여기서 저기서 거름무지들이
어느새 쌓더미되어 우뚝우뚝 솟는듯
화끈 단 동가슴 솟웃았쑈 활 헤치며
달콤한 햇살향기에 취해보는듯

내리며 그 어디나 황홀경을 펼치네
앞산 뒤산 파일나무 가지들마다
일시 떨어떨기 사과꽃 배꽃 하얗게 핀듯
창공에 울려퍼지는 《조국찬가》의 선률타고
춤추며 내려앉는 백학의 나래런가
농촌마을 문화주택 건듯 들린 저 추녀들...

전야를 달리는 트랙포르 발동소리

방송원처녀의 열기편 호소
비료인양 씹없이 내리는 흰눈에
겨울잠 깬 대지가 기지개 쭉 펴며
어절씨구 풍년가를 흥겨웁게 부르는듯

두손바닥 살며시 펴면
나비처럼 살며시 내려앉는 눈송이들
그러면 온몸의 피줄을 타고
따스히 흘러드는 사랑의 속삭임...
뜨거이 흘러드는 믿음의 속삭임...

아! 그 속삭임!...
못 잊을 음성이어!
나에겐 생각되네 억만송이 이 흰눈이
올해에도 인민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내 나라 내 조국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자고
우리 원수님 뿌려주시는
축복의 꽃잎처럼 꽃보라처럼

내려라 흰 눈송이야 기쁨을 싣고
내려라 고운 꿈 속삭이며 속삭이며
아, 금빛이삭 물결치는 내 정든 고향땅에
그리운 원수님을 꼭 모시고싶은
농민의 간절한 소원 안고
눈이 내리네 푸짐히 내리네
풍년약속의 흰눈이 내리네

그런가 하면 후렴의 선률은 전렴에서 축적되어온 선률감정을 폭넓게 터뜨리면서 전투마다에서 적을 쳐부시고 통쾌하게 승리한 근위병사들의 희열과 랑만을 감격적인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특히 기백있는 음조로 힘차게 상승하는 후렴의 마지막단의 선률은 선률의 고유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특색있는것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가요의 특색있는 선률은 가사의 시적완벽성을 더해지면서 훌륭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작품을 명가요로 완성하는데 기여하고있다.

이것은 작곡가이자 작사자이기도 한 창작가의 높은 기량의 발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모든 작곡가가 동시에 시인으로, 모든 시인이 동시에 작곡가로 될수는 없지만 음악을 잘 아는 시인일수록 좋은 가사를 쓸수 있는것처럼 시적재능을 겸비한 작곡가일수록 가사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안받침해주는 명곡을 창조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가요 《근위부대자랑가》는 가요 창작에서 따라배워야 할 좋은 경험을 주고있다.

참으로 가요 《근위부대자랑가》는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파로 하여 오늘날도 래일도 강산에 힘있게 메아리치는 1950년대 조국수호전의 노래로 될 것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

리 경 명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크나큰 화원인 내 나라, 놀라운 기적들이 편이어서 일어나는 내 나라에 또 하나의 기적이 생겨났다.

은산군 재동로동자구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철준이 10년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체발로 다시 대지를 밟기 시작한것이다.

무슨 신비한 약을 썼기에?

어느 유명한 의사가 치료를 했기에?

어느만큼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기에?...

경탄속에 주고받는 말마디들과는 달리 당사자인 철준이 눈물속에 터친 말은 너무나도 의외의것이였다.

《문... 문두드리는 소리에 으흠...》

채 여물구지 못한 말끝을 흐느낌이 대신한 그 말. 문두드리는 소리!

파연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떤 하많은 사연을 담고있는가.

10년전...

그때까지만 하여도 최광숙(철준의 어머니)의 집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하였다.

김철준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아들, 딸 두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고 그 나날에 남편마저 불치의 병으로 여의다보니 아침마다 광숙(그는 교원이였다.)이 학교로 나가면 이 집은 하루종일 문이 잠겨진채로 있었다.

그러나 철준이 특류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온 날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당일군, 청년일군, 의료일군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집집에서, 길가에서, 작업장들에서 철준의 이름이 물기에 젖어 뜨겁게 울려나왔고 집이름도 특류영예군인네 집으로 바뀌었다.

형제들도 많아졌다.

친척, 동창, 친구들도 불어났다.

저 멀리 유치원시절 동화그림책을 너 한장, 나 한장 엮바꿔 번져가며 이마를 맞대고 친해졌던 짝꿍동무들.

소학교때 하늘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하고 조그만 얼굴이 빨개지도록 다툰질도 해가며 친해졌던 꼬마짝친구들.

중학교때 동창들.

행군때 샘물터에서 떠주는 물 한바가지를 마시고 나서 그게 그리도 뜨거워 가까와졌다는 녀동무.

어느 길가에선가 얼핏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친구도 제가 제일 가까왔던 사이인듯 무작정 무릎을 밀며 다가갔기도 했다.

얼마 안 가 철준은 천연색텔레비존과 록화기에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로 그쁘히 갖추어진 넓고 번듯한 새 집으로 옮겨졌고 인물곱고 맘씨 착한 처녀 한금희가 자진해나서서 철준의 안해로 되어주었다.

자기 아들에게 쓰려고 품을 놓아 구해온 귀중한 약을 아낌없이 꼭채로 들고오는 사람, 아직은 돌아누울 엄두조차 못 내는 철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삼륜차를 장만해 밀고오는 사람, 먼곳에 가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던 길을 돌파서서 이 집부터 찾아주는 맘씨 무던한 녀인.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그 음식을 싸들고 좋다는 약처방을 알게 되면 처방대로의 약을 구해들고...

원기회복에 좋다는 삼지구엽초를 구하려 해발 천여메터가 넘는 재동산 문옥봉을 오르내리다 벼랑턱에서 굴러내려 발을 뚫시 절면서도 고결한 그 마음은 룡말속에 웃음으로 몽그러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듯 발을 광광 구르며 들어서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기도 하였다.

수백수천마리의 꿀벌들이 수백수천개의 꽃송이들에서 단즙을 날라들여 그것을 차곡차곡 담아 익혀 만병통치의 꿀을 만들듯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수천가지 사랑을 품어안고 이 집 대문안으로 날아들었다.

어느해인가 초복 전날에는 자그마한 상점에서 기쁨기호르는 개 한마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두사람이 서로 제가 먼저 왔노라며, 제가 꼭 사야 할 이유가 있다며 옥신각신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중내 둘중 한사람은 개를 사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 그런데 잠시후 그 두사람이 철준의 집마당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바로 그 두사람은 특류영예군인의 몸보신에 쓸 개를 구하느라 그런 다툼까지 하였던것이다.

사유를 알고서 맘보후련히 오해를 풀며 실컷 웃었던 그날...

결국 트랙에서는 세마리의 허리늘씬한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설레발을 치게 되었다. 그만하면 삼복철의 단고기국감으론 넘쳐날판이였다.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옥창이 나 운신조차 못하는 철준의 몸을 씻어주고 두드려주고 돌려놓혀주고 안아주고 덮혀주었다.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로도 다 담아내기 어려운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세부가 이 집 대문으로 물밀듯 밀려들었다.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늘어만 갔다.

철준은 침상에 누워 생각하였다.

고마운 내 나라에 태어나 첫걸음을 떤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기만 하며 살아왔던가!

갓 태어나서부터 받아안은 사랑의 선물로부터 시작하여 탁아소, 유치원, 학교 가는 곳마다, 들어서는 곳마다에서 사랑이 기다리고있었지!

철이 들며 이제는 보답의 총대를 굳건히 잡자고 했는데...

철준은 너무나 억이 막히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와 가슴을 쥐어뜯었다.

《어머니! 때문에 빗장을 걸어주세요.

더는, 더는 받기만 하며 누워있을수가 없군요!...》

그 말에 광숙은 미여지는 가슴을 안고 대문곶로 다가가었다.

문은 걸렸으나 누워있는 철준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싶었다.

그래서 창문가에 각도를 맞춰 거울을 걸어달라고 했다.

그 거울에 대문밖에 모여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왔다.

《으옥!》 철준은 터쳐나는 오열을 이겨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창을 넘어 말소리도 들려왔다.

《이 사람이 어딜 갔을가? 그 몸을 해가지구...》

잠시후 여러번 찾아온 덕에 이 집의 래력을 속속들이 잘 알고있는 70대 중반기의 김환로인이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토끼곰을 단지채 싸들고 뒤문으로 새어들어왔다.

그 곰그릇을 받으며 철준은 더는 오열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늘 받기만 하면 으옥! 전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됐어. 이제 그만... 보답이야 성한 사람들이 하지 않으리...》

이러며 김환로인은 대문빗장을 열어놓았다.

사랑의 저수지에 물목을 더친듯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들어오며 한마디씩 했다.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다더니... 이 집이 오늘 별나게 노는군...》

한 로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왜놈때 징병에 끌려갔다 폐인이 되어 돌아온 사람네 집에 새끼줄을 둘러쳤던 생각이 나는군... 그때 마음어진 우리 어머니가 야밤삼경에 물동이를 이고 가 새끼줄너머로 물을 쏟아주고 오군 했지... 나라잃은 백성의 뼈아픈 설움이었어...》

그때야 인간의 정을 새끼줄을 둘러쳐 막는 세상이었으니 그랬지만 이 좋은 세월에 빗장은 왜 닫아진다는건가. 원, 사람들!》

아아, 고마운 사람들!

내 이렇듯 뜨거운 사랑의 강보에 싸여 누워있었던 말인가!

이렇게 지나온 10년세월이었다.

어느날 철준은 사랑에 겨워, 사랑속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자기가 군사복무를 하던 오성산이 보여왔다.

바라보니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높은 오성산의령마루에서 철준에게 어서 오르라고 두팔을 벌리시고 환하게 웃고계셨다.

철준은 가파로운 벼랑길을 날듯이 툭아오르고있었다.

더 빨리, 더 힘껏...

그때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기적이요!》

저게 무슨 소릴가?

정신을 가다듬었다.

눈을 떴다.

둘러섰던 사람들이 철준을 감동어린 눈길들로 내려다보고있었다.

《기적이요! 분명 발에 감각이 생겼단 말이요!》

누군가가 《억!》하고 흐느낌을 터쳤다...

정녕! 정녕 기적은 어디서 왔는가?!

철준이네 집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꿀벌들처럼 사랑을 날라다가 그것을 한데 합쳐 기적을 만든것이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을 안아 자래운 내 나라, 내 조국이 준것이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준것이었다.

벽찬 오늘의 시대가 준것이었다.

내 나라, 우리 제도, 이 시대를 찾아주시고 빛내주시고 가꿔가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겁게, 뜨겁게 안겨 준것이었다.

오, 문두드리는 소리!...

이 땅, 이 하늘아래에만 있는 사랑의 문두드리는 소리여!...

첫 발자국을 떤 날 철준은 사랑하는 안해와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모신 태양상을 찾아 10년만에 처음으로 제발로 걸어나가 꽃다발을 올리며 목이 메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들 또한 그토록 소중한 내 나라, 고마운 이 제도, 벽찬 시대에 안겨사는 후더움에 눈굽들을 적시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젖은 가슴들을 더더욱 덥혀주며 뜨겁게 울려오고있었다.

...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경기장밖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류명호

이른아침

출근길에 오르니

온통 축구이야기다

우리 축구선수들이

어느날 언제 몇시에

어느 나라 팀과 경기를 한다는 소식

아, 흥분으로 달아오른 목소리들

일터는 서로 달라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우리 축구팀을 응원하러 가는 길인듯

이 아침도 축구열풍으로 달아오른이들이

경기장밖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

사무실에서

한 일군이 전화를 놓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몇알 넣을것 같소?

아, 체육일군이 그런것쯤은 알아야지

—우리 경기에 대한 예평이 어떻소?

좋소 좋아, 역시 중앙통신사가 빠르구만

—중앙텔레비 최동무요?

온 나라가 전화를 걸어오는데

뭐 나만이라도 좀 가만있으라구?

여보, 난 이 나라 공민이 아니요?!

×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는가

지팡이도 없이

한다리로 달리는 청년

오른쪽 한다리로 그렇게 달리다가

다시 왼쪽 한다리로 꺾충꺾충

이상한 달리기를 하는 청년

누가 알라 그가 지금

축구선수들의 한다리에 실리는

힘모멘트를 가늠하고있는줄

그가 얼마전

축구훈련지원체계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선수들의 기술훈련에 기여했다는것을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야 어이 알랴

×

축구공처럼

등그런 밥상에

등그렇게 모여앉아

일흔똥생일을 쇠는 박아바이

잔을 들고 흥그럽게 말한다

—내 일생에 오늘처럼

기쁜 맘으로 생일 원적은 얼마 없어

오늘 우리 선수들이 남조선팀을 누르고

공화국기를 날릴 때 난 울었어

정말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장해

우리 나라에선 녀자들이 큰일을 하거던

이 세상에서 우리 녀자들이 최고야!

×

그날 밤 12시

평양역앞 대형전광판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섰어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최절정인

우리 녀자축구팀과 일본녀자축구팀과의 경기

그 결승경기를 보려고 모여선 려행자들

렬차는 기적소리 울리며

어서 떠나자고 부르는데

기차야 가보라지

대형전광판앞에서

결승경기를 보는 사람들

우리 팀이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는 마음들

우리 팀이 방어하면 같이 방어하는 심정들

치렬한 공방전속에

드디어 우리 선수가 첫 골을 넣자

야! 터져오르는 환성소리

3 대 1로 우리 팀이 승리하고

영예의 1등시상대에 오르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어찌 평양역앞

대형전광판앞에서뿐이라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 울려나오는

감격의 웨침소리

장엄한 애국가의 주악속에 오르는

하늘로 날아간 닭알

김 성 료

어느 마을에 사는 암탉이 처음으로 알을 품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품에서 까난 병아리들도 다른 집 병아리들처럼 날지 못하는 절반짜리 새라고 남들의 놀림거리가 될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내 어떡하든 우리 애들을 높이 날게 하여 하늘 나라 세상구경을 꼭 시키고말테야. 헌데 무슨 방도가 없을가.…”》

암탉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듯 날아가던 수리개가 낮은 나무가지에 내려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암탉아주머니도 새끼들 걱정때문에 머리가 아픈게군요. 한숨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리는걸 보니.》

사나운 수리개라 대뜸 긴장해진 암탉이 부리에 힘을 주어 쏘아주었습니다.

《썩 물러가고, 내 귀한 알들을 빼앗아먹을 생각 말고.》

《원, 암탉아주머니, 성미가 꽤 영악스럽군요. 나도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는 새인데 어떻게 남의 알을 빼먹겠나요. 난 남 좋은 일만 하는 수리개인데 오늘도 이웃강가마을의 오리가 제 알들을 주면서 나보고 깨워달라기에 그걸 가지고가다가 이렇게 쉬는중이래요.》

그러면서 수리개가 지고가던 자그마한 바구니에서 하얀 알을 하나 꺼내보였습니다.

암탉이 놀라와하며 물었습니다.

《에그머니, 진짜 오리알이네. 대체 그 오리알을 어떤다는거요?》

《참 암탉아주머니 영 깜깜이구려. 아, 지금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 저저마다 나한테 제 알들을 맡기며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새들로 키워달라고 경쟁적으로 부탁하는 판인데 그걸 모르다니. 그래서 엄지오리도 나한테 제 알을 다섯알이나 주었다오.》

수리개의 말에 창피해진 암탉이 벋을 뽐했습니다.

《나야 촌구석에서 살다나니 모르는게 정말 많라우. 좀 대주구려. 어떻게 알을 깨우길래 하늘 나는 새로 되는가요?》

《아주 특별한 묘리가 있지요. 우선 등지가 땅바닥에서 아주 높은 곳에 있어야 하고 먹이도 내가 골

라주는것을 먹어야 하지요. 예뻐, 만일 내 알을 아주머니가 깨워 키우면 날지 못하고 걸터다니는 수리개가 될수 있지만 반대로 닭알을 내가 깨워 키우면 날아가는 병아리가 된다 이거란 말이요.》

수리개의 장황한 설명이 그럴듯해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펼쳐보던 암탉이 정신이 번쩍 들어 수리개에게 사정하였습니다.

《종수다. 맘 좋은 수리개님! 나도 내 알들을 통채로 맡길테니 어서 잘 깨워 키워주시오.》

《잘 생각했수다. 후에 새끼들이 저희들은 하늘구경 못하는 땅바닥인생이라고 에미를 한탄하면 어떻게 머리들고 다니겠소. 내 잘 키워 보내줄테니 마음을 꼭 놓고 기다리오.》

흠족해진 수리개가 제 바구니에 닭알을 담아가지고 날아가버리자 암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귀여운 병아리들이 제 머리를 날아며며 뺨뺨뺨 노래할 황홀한 생각에 암탉은 저도 나는듯 날개를 퍼덕이면서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어느덧 강가마을에 다달은 암탉이 오리틀 찾아가 자랑을 해했습니다.

《오리아주머니, 그 댁은 다섯알이지만 난 알들을 몽땅 수리개한테 맡겼다오.》

금방 깨어난 새끼들을 거느린 엄지오리가 암탉의 말에 눈이 켜혔습니다.

《아니, 수리개한테 알을 맡기다니요? 혹시 알을 빼앗기고 정신이 돈게 아니요?》

암탉이 그 소리에 펄쩍 뛰며 수리개한테 제 알들을 부탁한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암탉아주머니, 정신있어요? 난 한알도 수리개한테 준게 없는데요. 가만, 그놈이 내가 버린 품아 썩은 알을 가져다가 속임수를 썼구만요.》

교활한 수리개놈한테 속아 알들을 몽땅 떼었다고 질책하는 엄지오리의 추궁에 암탉아주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땅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애고고, 되지도 않을 어망쳐망한 생각에 정신이 썩 빠져 하늘나는 새끼들을 바라다가 끝내 귀한 알들을 영영 하늘로 날려보내고말았구나.》

~~~~~

우리 국기를 보며 터치는 호느낌소리

아, 그날 밤 12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11명의 우리 선수들만 달렸던가

온 나라 남녀로소모두가 경기장을 달렸다

온 나라 인민이 함께 축구를 했다!



# 조선봉건왕조시기의 《10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연구에서는 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료를 모르고서는 당대사회의 구조와 성격, 발전정도를 옳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력사연구에서는 사료가 중요하며 사료를 모르고서는 해당 사회의 구조와 성격, 발전정도를 옳바로 리해할수 없다.

따라서 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당시의 현실,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형사범죄의 하나인 《10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악(十惡)》이란 봉건시기 형법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열가지의 가장 극악한 범죄를 말한다.

《10악》에는 주로 왕실과 나라를 배반한 반역죄와 3강5륜에 저촉되는 강상죄가 속하며 이 행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제외없이 대사령이나 기타 형벌면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반역음모(謾反)이다.

반역죄는 나라의 전복을 꾀하는 범죄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로 보았다.

둘째로 대역음모(謾大逆)이다.

대역음모죄는 큰 역적행위라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왕궁, 종묘, 왕릉을 파괴할 음모를 꾸미는것 등이 속하였다.

셋째로 반란음모(謾叛)가 있다.

반란음모죄란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추종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꾀하는것을 말한다.

넷째로 흉악한짓(惡逆)이다.

여기에는 부모나 조부모, 시부모나 가시부모, 삼촌, 형제, 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들을 죽인 행위가 속하였다.

다섯째로 무도한짓(不道)이다.

도리에 어긋나는것이라는 뜻으로 한 집안의 사람 3명을 죽인 행위, 사람의 각을 뜨는 행위, 독벌레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것들이 속하였다.

여섯째로 공경치 못한짓(大不敬)이다.

대단히 공손치 못한것이라는 뜻으로 임금과 왕실에 대하여 공손치 못한 행동을 범하여 지은 죄목들이 속하였다.

즉 종묘, 천지, 산천에 지내는 제사와 같은 임금이 참여하는 큰 제사에 쓸 물건들을 도적질한 죄, 임금이 쓰는 물건들을 도적질한 죄, 임금의 인장을 위조한 죄, 임금의 약을 처방대로 짓지 않은 죄, 임금의 음식을 잘못 만든 죄, 임금이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죄와 같은것들이 속한다.

일곱째로 효도스럽지 못한짓(不孝)이다.

여기에는 부모나 조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는것, 부모의 상복을 입는 기간에 장가를 들거나 상복을 벗고 음악을 벌리는것, 부모나 조부모의 상사에 조의를 표시하려 하지 않는것과 같은 죄목이 속하였다.

여덟째로 화목치 못한짓(不睦)이다.

친척간에 화목하지 못한것이라는 뜻으로 석달복\*<sup>1</sup>을 입는 친척을 살해하였거나 팔아먹은 죄, 남편이나 아홉달복\*<sup>2</sup> 이상을 입는 가문의 좌상 또는 다섯달복\*<sup>3</sup>을 입는 가문의 웃어른을 때리거나 고발한 죄 등이 속하였다.

\*1, \*2, \*3 지난날 상복제도의 한가지. 고인과의 촌수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이 차이났다. 시마(3개월), 소공(5개월), 대공(9개월), 재최(1년), 참최(3년)이다.

아홉째로 의리가 없는짓(不義)이다.

고을의 주민이 자기 고을의 원을 죽이거나 군졸이 자기의 상관을 죽였을 때, 아전이 자기 고을의 5품이상의 관리를 죽였을 때, 안해가 남편의 상사

에 조의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재가하였을 때 이 죄목에 걸렸다.

열째로 집안안의 추잡한짓(內亂)이다.

한집안안에서 료리를 어지럽힌 행위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주로 가까운 친척끼리 간통행위를 한 죄가 속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주자성리학에 기초한 봉건적료리 도덕에 저촉되는 이러한 범죄들을 봉건국가의 통치 규범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형, 참형, 릉지처참형과 같은 극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막아보려고 꾀하였다.

사실 일반평민들이 관리를, 노비들이 상전을 죽

이거나 때린것은 봉건적착취와 억압을 더는 참을수 없어 분연히 떨쳐일어나 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

그러나 노비와 평민들의 사소한 항거나 반항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고 무자비하게 탄압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놓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가로막았다.

이상과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가장 극악한 범죄—《10악》은 봉건적통치제도를 유지공고화하고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리용되었으며 봉건국왕의 전제주의적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리용되었다.

전 금 성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1호 (루계 제807호)

**편 집 위 원 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쇠   공   장

인    쇠    주체104(2015)년 1월 10일

발    행    주체104(2015)년 1월 15일

ㄱ-461260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